朝鮮日報 夕刊 二日(水) 本紙朝夕刊十二面

陣頭捕虜使用에 叛軍抗議的放送
叛軍의 빌바우空爆說은不明
政府軍叛軍本據空爆

【세빌리아一日發同盟】叛軍은政府軍이 捕虜를 前線에 세워 叛軍攻擊을 阻止케하고잇는 非人道的作戰을 非難하야 一日 如左한 抗議를 세빌리아放送局으로부터 放送케하엿다

政府軍은 捕虜를 擔捕하야 陣頭에세워 이를 방패로 叛軍의攻擊을 阻止하고 잇는것은 非人道的으로 戰時國際公法에 어기는 行爲이다 叛軍은 如斯한 卑劣한 政府軍作戰에 左右되지안코 又까지 果敢한 戰鬪를 繼續할것이다

【이룬一日發同盟】叛軍은 이룬總攻擊開始와 同時에 빌바오의空爆을 行하엿다고 傳하는데 詳細는 不明이다 政府軍의 發表에 依하면 政府軍飛行機도 三十一日午後 北部叛軍의本據를 고스의空擊을行하야 多大한損害를與하엿다 (寫眞은 아자니아大統領)

一日未明에突然 叛軍首都空爆
市民은唐荒、地下室과地下鐵道로避難
損害는比較的僅少

【마드리드一日發同盟】叛軍飛行機는 一日未明 마드리드空爆을 敢行하엿다 기피잠든 마드리드市民은 요란스런 싸이렌소래에 忽然 꿈을깨여 市民은 爭先하야 地下室 又는 地下鐵內에避難하얏다 叛軍飛行機는 探照燈의 光線、機關銃高射砲의 殷殷한 中을 悠悠四十五分間에 亘하야 市上空을 旋回하면서 重要建物을 겨누어 爆彈을 投下하엿스나 모다 판역이를러 時間이 오랜代身에 比較的 被害는적엇다

西班牙內閣 近近再改造

【마드리드一日發同盟】히라ー르內閣은 未曾有의 國難을 압두고 叛軍과의 抗爭에 主力을 하는同時에 人民戰線强化에 熱中하고잇는데 近近 再次內閣大改造를 行하야 部內의 統一强化를 圖할것이라고 傳하다 右 [illegible]에도氏도 入閣한다고 觀測된다

空陸兩方으로 『이룬』市總攻擊
獨逸人、伊太利人이叛軍指導
政府軍이善戰擊退

【이룬一日發同盟】叛軍은 一日朝 再次 攻勢로 轉하야 未明에 이룬總攻擊을 開始하얏다 叛軍은 援軍을어더 무서운勢力으로 飛行機六臺도 戰鬪에 參加하야 敵陣地에 數十의 爆彈을 投下하고 野砲陣에서는 이룬郊外에서 市의 咽喉를 扼하는 要衝 산·말샤에 砲彈을 集注하야 同地域을 一瞬에 廢墟化하야 步兵陣의 突喊이 敢行되어 到處에 白兵戰이 演出되엇다 政府軍도 잘 應戰하야 一時 叛軍을 擊退하얏다 이룬市空爆에 參加한 飛行機는 政府軍發表에依하면 獨逸人 伊太利人이 指揮하고잇서서 此等 飛行機가 投下한 爆彈은 五十個로 共產黨本部는 餘地업시 潰滅되고 二名의 死者를 내엿스며 勞働者本部 敎會 貯水池 停車場 瓦斯탕크도 爆彈에마저 被害가 甚大하다 特히 最後까지 活躍한 三發動機附의 巨大한 爆擊機는 十個의 爆彈을 集中投下하야 一區劃을 거의 자최도업시 깨트려버렷다 傳하는바에依하면 今日의 空爆은 北部革命軍總指揮 몰라將軍이 스스로 飛行機에올라 指揮에 當하엿다고한다

酒稅令改正
一日부터實施

朝鮮酒稅令中 一部改正은 今三十一日 制令第十四號로써 公布하고 明九月一日부터 實施하기로되엇다 改正要點은 釀造酒及再製酒에 關해서는 從來單純한 比例稅率制를 取하고 잇섯스나 今回酒精分 二十度를 分界로그 以上의 濃度의것에 對하야 特히 重課할 累進稅率制를 取하게된것이다

羅馬尼亞內閣改造 右翼으로大旋回

【부카레스트一日發同盟】타타레스코內閣은 티투레스코外相을 放逐하고 右翼으로 大旋回를 試하야 內閣大改造를 行하얏는데 確聞되는 바 一日 旋回後의 國策을 決定하고저 重要閣議를 開催하야 如左한 重要諸案을 決定하엿다고 한다

一、나치스鐵血團 其他 이에 類似한 私兵團의 解散及武裝解除
一、十八歲로부터 二十一歲의 無職靑年의 義務勞働制採用
一、大學自治制의 廢止

平塚前長官一旦歸臺

【東京電話同盟】平塚前臺灣總督府總務長官은 殘務整理次 一旦歸臺하기로 決定하고 二日午後三時 東京驛發列車로 떠나 三日 門司로부터 乘船할豫定이다

叛亂以來의死者數 七萬五千乃至十萬

【巴里一日發同盟】마드리드로부터 報導되는 情報에 依하면 西班牙叛亂勃發以來 五十日間의 死者는 七萬五千乃至十萬에 達한다고하며 內亂中의 西班牙各地小都市의 大概는 全혀 人影이 보이지안코 廢墟化해버렷다 叛軍이건 政府軍이건 어느편이 먼저 都市에 들어가면 反對派를 모조리 잡아먹고 또 敵方의 都市에 入城하면 全市의 虐殺을 行하는것이 慣例이다

國境紛爭處理 滿蒙會議再開
蒙古政府聲明發表

【우란바-토르一日發同盟】滿洲國政府는 來二十五日부터 滿洲里에서 國境紛爭處理에 關한 會議를 再開하기로 決定하엿는데 蒙古共和國政府當局은 蘇聯의 타스通信을 通하야 來第二次會議에 對하야 如左히 聲明하엿다

滿洲國政府는 去二日以來 文書를 交換한 結果 來九月二十五日부터 滿洲里에서 會議를 開催하기로 意見이 一致되엇다 此會議에서는 滿蒙兩國間의 現存國境紛爭解決에 關한 混合委員會 設置를 檢討할 混合委員會를 設置할 豫定이다 國境紛爭에 關한 委員會는 滿蒙에잇어서 發生한 紛爭의 原因과 責任을 調査할 二委員會를 設置하는同時에 今後紛爭에 當하야 兩國의 常置代表任命 그 滯在地를 決定할려이다

日本側抗議에 張外交部長陳謝
成都事件그後趨移

【南京一日發同盟】須磨總領事는 一日午後四時 外交部에 張群部長을 訪問하고 爲先 日本記者兩氏의 決議文其他를 手交하고 成都事件에 關하야 日本의 輿論이 激化한 事實을 指摘하고 그 重大性에 關하야 中國側도 充分한 覺悟로써 事件의 根本的解決에 當해주기 바란다 日本의 强硬決意를 通達하야 거듭 中國側의 覺悟를 促하얏다 이에 對하야 張外交部長은 極度로 唐皇하야 言語道斷의 事件이라고 中國側의 非를 認定하고 이미 高宗武、許世英兩氏를 各各 川越、有田兩氏處에 派하야 諒解를 얻기에 努力中인데 事件의 重大性에 鑑하야 充分한 誠意로써 善處하겟다고 中國側의 決意를 披瀝하엿는데 張部長은 다만 陳謝로써 應答하야 會見一時間半에 亘하엿다 그리고 須磨總領事는 張外交部長의 懇望으로 一兩日中에 다시 外交次長徐謨氏와 會見하고 中國側의 提案을 聽取할러이다

【上海一日發同盟】成都事件의 眞相은 一日 渡邊、深川兩氏의 遺骨과함께 上海에 歸還한 田中武夫氏의 報告로 마츰내 明確하게되엇는데 本事件에서 가장 注目할것은
一、暴徒主體가 成都聯合中學校會이것
一、第一回襲擊時에는 岩井總領事代理가잇지안는것을 認定하면서 再次 午後六時頃 襲擊하야 慘殺負傷케한것
一、暴徒一萬人에 達하엿다고 中國側에서 認定하면서 겨우巡警二百六十名을 派遣하엿슬뿐이오 軍隊로써 保護치안흔것
一、瀨戶氏가 督辦公署에 連行하엿슬때 士兵의 一人이 發[illegible]

事件眞相

事件에 關하야 中國官憲은 故意로 判決을 遷延하야 八月十九日 第十二回의 公判을 마친채 次回公判期日까지 言明치안코 不誠意한 狀態인데 이사이에 中國側公安局은 最近 殺人犯[illegible]逮捕한 三名의 中國人을 中山兵曹射殺事件의 眞犯人으로 만들어 虛僞의 自白을하게한 供述書를 作成하야 이미 揭文道以下 三被告를 救出하려고 企圖한 可恐할 事實이 判明되엇다 右는 中國側의 態度를 監視하고잇던 工部局의 警官이 探知한것으로 中國側의 陰謀에 對하야 駐中官憲은 態度로 [illegible]하고잇다

水兵射殺犯人僞造 揭文道等救出意圖

【上海一日發同盟】中山兵曹射殺

[illegible]다 이로써 [illegible]하지아니한것이 明白하다
一、兇物을不用하고 拳銃으로써 亂射한것
一、四氏를 殺害하고 [illegible]으로써 [illegible]한것
一、渡邊、深川兩氏의 死體는[illegible]

日午前五時 正式外交[illegible] 大[illegible] 報告대로 發見되어 [illegible] 收容한데 不拘하고 [illegible] 方不明이라고 稱하고 [illegible] 等이 列擧되어 如何히 [illegible] 가튼 暴徒를 [illegible]하엿는가를 [illegible] 거되는同時에 中國官憲의 [illegible] 와 緊急 國民政府가 如何히 [illegible]를 取하더라도 [illegible]가 中國側에잇는것이 明白하다

羅馬尼亞新外相 蘇聯에協力要請

【莫斯科一日發同盟】羅馬尼亞新外相안토니크스氏는 就任과함께 蘇聯外務人民委員長리트비노프氏에게 對하야 左의 [illegible]을 보내엇다

羅馬尼亞外相就任에 當하야 貴國과 友好關係强化에 滿足의 意를 表하는同時에 아울러 任務遂行에 當하야 特히 閣下의 協力을 要望한다

人事·集會

▲南總督 鹽原秘書官、富永事務局長을 帶同하고 二日午前九時官邸를 出發하야 自動車로 江原道方面의 水害地視察에 赴하엿다 明三日夜歸京할러이다
▲大竹內務局長 二日午前十時五十分京城驛發慶北地方水害地視察次 出張 五日午後歸任豫定
▲嚴江[illegible]氏(國書課理事官) 一日東京에 出張 十日頃歸任豫定
▲金大羽氏(總督府社會課長) 慶北水害調查次 出張中 二日朝歸任
▲李源祚氏 京城府會議員 [illegible] 人事次 二日來社

本社辭令

營業局長 金光洙
兼任廣告部長

米國政府抗議를 西班牙政府一蹴
米艦空爆事實否定

【마드리드一日發同盟】米國政府는 西班牙近海警備의 米國驅逐艦게인號附近에 西班牙政府軍飛行機가 爆彈을 投下한事件에 關하야 三十日 西班牙政府에 對하야 嚴重抗議를 提出하엿슴으로 西班牙政府는 一日 米國政府에 回答을 發送하고 右飛行機는 政府軍所屬이 아니라는旨를 通告하야 米國政府의 抗議를 一蹴하엿다 西班牙政府의 回答要旨는 如左하다

調査한結果 게인號를 空爆의 目標로 한일이업스며 當時政府軍飛行機는 그附近의 海上에 飛行한일이 업섯던것이 判明되엇다 西班牙政府는 米國政府가 指摘한것가튼 型의 飛行機는 所有치안헛다

軍艦을撤收코 大使館도閉鎖
米國國務省方針

【華盛頓一日發同盟】米國政府는 케인號 空爆事件을 重視하고 마드리드駐箚米國大使館을 通하야 곳西班牙政府와 叛軍에 嚴重抗議를 提出하얏는데 今後 同樣의 事件이 發生하야 國際政局이 紛糾함을 憂慮하고機宜의 處置로 如左한手段을 取할 것이라고 傳한다
一、在留民의 撤收終了와함께 派遣軍艦은 全部 西班牙領內로부터 撤收할것
一、軍艦撤收와 同時에 마드리드大使館을閉鎖할것
目下 米國人在留民 約四百名은 依然 마드리드에 머물러잇는데 國務當局은 近近 居留民의 撤歸를奬勵할 意圖라고 한다

敎員試驗
十一月下旬施行

總督府의 小學校及普通學校敎員第一種及 第二種試驗은 來十一月二十五日부터 十二月四日까지 各道廳所在地에서 施行한다 受驗希望者는 九月末日까지 當該道又는當該地師範學校에 願書를 提出할것

八面鋒

◇ 比島의 某將軍이 『日本軍이 襲來할지라도 三年間은 버틸수 잇다』고 放言。

◇ 彼此에 잘못을기약함이라하면 먼저 誤解와疑心을 푸는것이平和의 捷徑。

◇ 西班牙內亂을 人道化식히자는 問題로 列國大公使가 政府에 覺書를提出。

◇ 銃으로쏘고 칼로찌르는것이 戰爭이오 戰爭을하는以上 人道는破壞되는일。

◇ 戰爭은하되 人道는직히자는 酬酌이니 毒瓦斯等의使用을 禁止하자는말인가。

◇ 七萬五千乃至九十萬의 生命이 이미죽엇다하니、저런人道를생각하거든 戰爭을못하게하라。

朝鮮에도增稅!
新首腦部意向
前首腦部와는反對的見解
斷行期는十三年度

政府의 增稅斷行은 願서 必然的이라고보게되엇다 總督府에서는 愼重히 이推移를 注視中인데 新首腦部는 朝鮮에서도 若干의 增稅는 可能하며 또 政府가 마츰내 增稅를 斷行하게되면 資本의 外地逃避를 防止하는 意味에서도 負擔의 公平을期하야 增稅를 行하는것이 當然하다고생각하는모양이다 따라서 大藏省이 行하는 範圍內에서의 增稅는 朝鮮에서도 必至라고 보이게되엇는데 그範圍、稅率等具體的問題에 關해서는 大藏省의 細目案이 決定된後 이를參考로 朝鮮獨自의 立場에서 調査硏究하기로되엇다 그래서 十二年度에는 未及하므로 實現은 十三年度라고보히다 朝鮮의 增稅問題에 關해서는 前上層部는
一、朝鮮에서는 國稅、地方稅를 通하야 最近에 稅制整理를 斷行하엿스므로 그結果는 이三年을 經過치안흐면 明瞭치안흘것
一、負擔力이 貧弱한것
一、增稅의 經濟的及政治的으로 及하는 影響을 들어 反對態度를 取해왓는데 新首腦部는 反對로 增稅도 亦不得已하다는 見解를 取하고잇는것은 注目된다

千樹並列의樹林 百花滿發의草原
⑫ 徐椿

紅湍駐在所小休十五分後에 出發의 소리가 낫다. 十日午前八時頃이다. 일로부터 約三十里는 滿洲땅을 밟어야 된다. 駐在所 바로 앞히 豆滿江이라. 騎馬警備員과 馱馬는 바로 그앞을 건너고 徒步者는 다리를 차저서 좀 올나 갓다. 約十分동안 거러 간곳에 로마나무 三個를 가로노아서 다리(橋)를 노앗스니, 이것이 말하면 豆滿江의 紅湍橋라고 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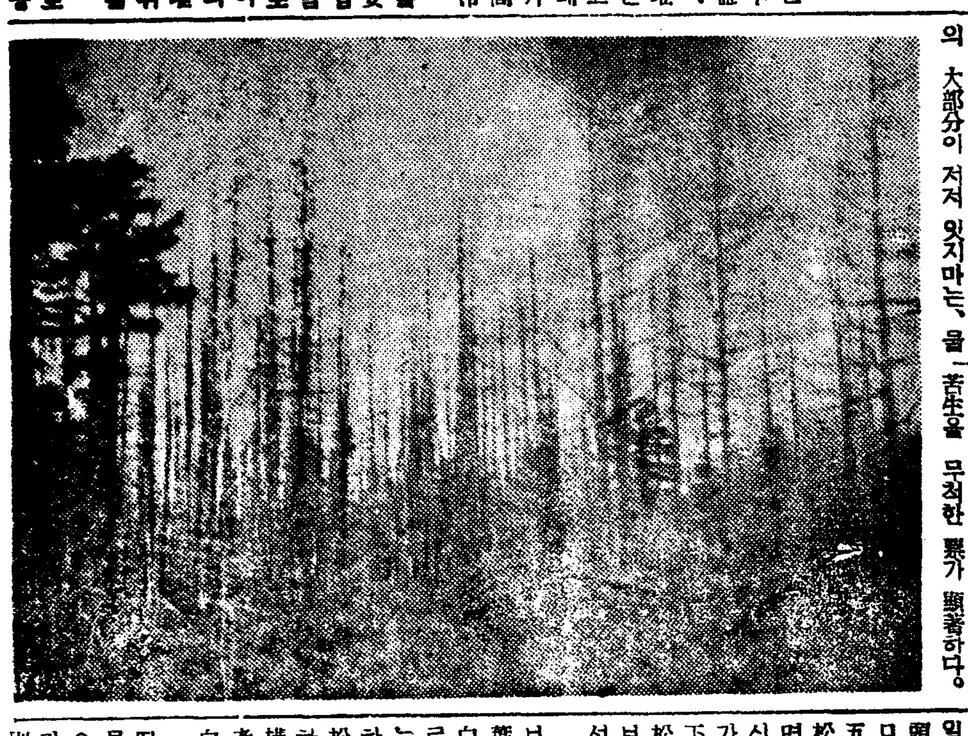
로마나무 기럭지가 四五間에 不過한것으로 보아 江幅이 얼마나 좁은가를 想像할수가 잇슬것이다. 흔히 말하면 또랑에 不過하리만치 좁은 江이나, 豆滿江에는 말하면 다른 同大의 河川에서 볼수 업는 三大特徵이 잇다고 할것이다.

一、아모러한 가물에도 마르는 法이 업고, 洪水에도 減水되는 法이 업다.
二、물빗히 大端히 濁하야 [illegible]色을 못하고 잇다.
三、急流요 寒하야 寒冷하다. 等等.

深林地帶를 水源으로 햇슬뿐만 아니라、그水源이 長遠한것은 不乾、不減의 原因일것이오、河盤이 火山灰의 沈澱物로 構成되며、千里天坪에 無限年을 두고 堆積한 落葉의 썩은 물이 注入하는 것은 水色이 暗褐色을 못하고 잇는原因일것이오、물은 만흔데 끌작은 挾窄하다는것은 水流가 急激한 原因일것이요、水源이 高山地帶에 잇다는것은 水溫이 冷寒한 原因이 될것이다.

三個丸木으로 構成한 다리를 건너서니 이곳은 滿洲吉林省安圖縣에 屬하는 땅이라고한다. 집이 한채가 잇는데 赤是、사람은 朝鮮사람이다. 열닌 門으로 도려다 보니、男女老少四五人이 우리一行의 行列을 奇異히 녀기는 얼골로 보고 잇는데、唯獨、한 사람이 잇서 音上이 뒤바뀌어도 나는 모른다는듯이 활개를 펴고 누어 잇다.

滿江의 직이 다른 國境으로 보지는 못햇스나 다리 업시 그냥 건너온 馱馬及 馬夫들은 이물을 건너기에 퍽 苦生한 모양이다. 그러지 안허도 早朝出發時부터 오는 비가 只今도 繼續해 오는 故로 薄弱한 雨裝에 옷의 大部分이 저저 잇지마는、물로 건너온 馬夫들은 아래스옷을 全部 적시어 잇고、馱馬도 또한 流底가 밋기러워던지 너머진 놈에、짐이 끼우러 진 놈에、짐이 아조 푸러진 놈에 아조 苦生을 무척한 點가 顯著하다.



人家라고는 紅岩四五戶의 人家가 마즈막이다. 이제는 白頭山頂에 올라갓다가 다시 胞胎里까지 나오는 途程四百五十里길에는 人家를 볼수업는것이다. 일로부터 우리一行은 정작 白頭山下浩大平原인 千里天坪의 入口로 드러서는것이다. 높이가 十五丈乃至二十丈되여 보이는 落葉松、그것은 마치 사람에 비기면 목이 가늘피고도 키가 철신 큰 紳士와 가튼 落葉松、가지가 섯긋 섯긋하여서도 上下四方에 調和가 어울린 落葉松、비치 파릿코도 맑고 깨끗해 보이는 落葉松이 여기저기 들려섯다.

키가 落葉松 비슷하면서 그보다 조곰씩 적으나、굵기는 落葉松보다 若干씩 굵어 보이는 白樺나무、군데군데 한 가족으로 뭉려서 잇는데 보이는 白樺나무도 落葉松과 相對하야 여기저기 뭉려서서 落葉松과 豪氣를 다투고 잇다. 말하면 落葉松、白樺樹의 兩者로 構成된 密林인바、數로 본 兩者의 比率은 落葉松이 八이면 白樺樹는 二쯤 되여 보인다.

우리가 밟고 잇는 地上은 어떠나하면 물바다이오 進泥이다. 물은 대개는 장단지쯤은 올라오고、甚하면 무릅을 지나는데 가 잇고、[illegible] 가지各色의 別別 꼿치 다 핀 奇花妖草의 展[illegible]이라고해도 過言이 안되리만하다.

千樹並列에 百花滿發、올려다 보아도 風致요、나려다 보아도 景致다。人間世界인 平原地帶에서는 百景을 넘기면서도 볼수 가 업슬만한 조흔 景致다。그러나 한가지 唯獨、恨되는 일은 것고 잇는 길이 沼池地帶라、발이 빠저서 行步가 困難한 一點이다。이런 境遇에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조흔 景致를 우리한테 보여 주면서 왜 길을 이렇게도 나쁘게 만드러 두시엇노?」하고 造物의 苦情을 吐하기 쉬운것이나、그것은 사람의 種子가 제 慾望대로 합부로 하는 말에 지나지 못하는것이오、大自然의 眞理를 알배가 아니다。自然은 오직 自然自體를 爲하야 잇는것이오、決코 사람의 求景거리 또는 利用物이 되기 爲하야 잇는것이 아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면 人跡없는 深山幽谷에 보아줄 사람 업시 한갓 百花가 滿發한것은 重要가 아니면 徒勢로 보일것이다。그러나 立場을 달리하야 大自然의 境地로 생각한다면 사람의 種子가 가히 멋베는것은 有百害無一利의 것일것이 分明한 일이다。(寫眞은 白頭山入口의 密林地帶一殘影)

社員募集

年齡二十五歲로四十歲까지京城에在住하시는분으로[illegible]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一 日本生命京城支店外交部 [illegible]

원료물감 染料 藥品

京城南大門通四丁目(南大門電車停留場前) 合資會社 福壽洋行直賣部 振替口座京城九三四番

무엇때문에蛔虫이무서운가

蛔虫이 人體에寄生하면 [illegible] 이르키든지 然이나 [illegible] 生命의 危險케하는일도 만흐니 반드시 「산토닌과자」를 [illegible] 먹어서 蛔虫을驅除하십시오

大阪天王寺ノ虫下シ 开 珊篤尼涅菓子 サントニンカシ 산토닌과자 (岩崎大海堂セメン菓子)

類似品잇으니 [illegible]에注意하시압

營業案內中越進呈

藥 御問屋

株式會社 新井藥房 京城南大門通二丁目 電本 四〇九〇.一〇六八 四〇九〇.三四〇八 振替京城一六一番

◇九月一日부터二日間最終興行 料金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均一

劇團 慧星座 公演

◇本座文藝部…編 西部大活劇 洋劇 死線에서 全一幕 出演 鄭洪朝 崔聲波 金有成

◇林仙重…作 時代劇 命 全二幕 出演 鄭菊山 鄭洪朝 金昌雲 崔聲波 金俊玉 姜玉姬 文賢芳 楊元培 金有成

幕間짜스밴드스켓취 獨唱 合唱 一輪自轉車乘·金有成君 特別出演 尹益炳君

◇崔浩善…案 喜劇 高利貸金 全一幕 出演 崔浩善 金有成 文賢芳 張基華

本慧星座는桃花劇場을마치고北鮮으로巡業出發하게습니다

麻浦桃花町 桃花劇場 電龍三三番

待望의소래浦郡羅劇!! 八月三十一日부터特別大封切 ●今週부터夜間은午後七時二十分始映

二十世紀후옥스社超特作日本版 巨匠로ー엘ー만氏大作品! 가바레의鍵穴 콘스단스카밍그스 파라 올케고롬 l보스 主演

淸楚艶美를자랑하는舞姬를싸고도는暗黑街首領과의三角愛!!橫暴慘虐을極한그에게도사랑의眞理를아러는가!!反對派의猛襲中에背反當한그女子를救하며흘니는눈물!!華美!戰慄!哀愁의悲壯史

大都映畵社特作現代劇 石山稔監督作品! 馬上의勇者 主演

코림비아社特作全發聲大活劇 監督 로스래다만氏 港の殺人事件 主演

大每特輯全發聲 오림픽뉴ー스 九月一日까지 孫選手決勝戰의精華篇

黃金町 優美館 電光三九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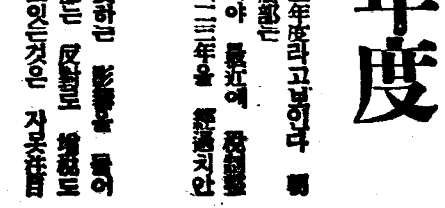
恩給 最長期低利五年分까지 立替、借換引受案內書進呈함 京城府中學町一七ノ四 京城女師前 金星商會

最新式優良特許 メルス延綿製藥機 金儲 カタログ呈 穀物膨脹機

大阪淀川區浦江中二 石堅機械製作所 電話福島四二二六番

◎急告 最近偏眼鏡[illegible]用하야好利를取하는 奸商이 京城、平壤等地에有하오니 諸賢은深究하시옵소서

檢眼無料 眼學生



京城驛前 電(本)五一二二

分錢匙米도 조타!

罹災同胞를 救하자

風餐露宿하는同胞爲하야

救護의 烽火는炎炎

死線에彷徨하는 八十六萬生靈!

연겁허두차례나 남조선지방과강원도지방을 엄습한홍수해는 이미판명된것만으로도 이천의생령을빼아서가고 부상자행방불명자를합하면 인명의피해는실로 오천삼백이란 수자를보하며 가옥피해십만여호에 전답의류실침수수십만정보로 리재민은 팔십륙만에이르는전고에 못드러본대천재이다

이런처참한 수자를보게될때 우리는 집、일코 길가에서 헤매이며 양식、빼앗기고 주린배를움켜안고도 무정한탁류에 장사지낸 부모처자친척의기골을 부르며무심한 하늘를 원망하며 통곡하는소리가 천지에가득찬 대비극을 생각지안흘수 업스며 한벌의옷 한푼의 돈이나 한줌의 양식으로라도 어찌한에서 허덕이며 울고잇는 리재동포를 구하지안흘수가잇스라 이것이야말로 상부상조(相扶相助)하는 인간생활의미덕(美德)이며 지고지존(至高至尊)한동포애의 발로가아니랴 !!리재동포를구하자!!라는소리가 누가먼저 부르지즌바업시 방방곡곡에서 들려오는것은 오히려 당연한일이며 감격에넘치는바이다

水害義捐金品 (朝鮮社會事業協會取扱)

一、三百圓 京城府漢江通三의二〇 株式會社 弘中商店 京日、每日申取扱

一、一圓 京城府內無名氏 朝日京城支局扱

一、千圓 大阪每日新聞社 東京日日新聞社 三千圓 李王家御下賜

日計四、三〇一、〇八 累計五、六三六、三三

罹災民八十六萬

人命死傷五六〇九

家屋被害도十七萬二百五十七

一、二次風水害의集計

경무국에서 이일오후하시 현재로 각도의수해상황을 조사하야 집계한바에의하면 량차의 수해를합하야 사자이천사십사명 부상자이천삼백이십팔명 행방불명자일천이백삼십팔명 합계인명의

사상은 오천륙백구명의 다수에 달하엿다 또가옥의 피해를보면 전괴된것이 사만륙천삼백사십칠호 반괴가 일만이천륙백오호 류실 되 이 침수가 칠천구백륙십칠호 합계 가옥피해가 실로 십칠만이백오십칠호의 다수에달하야 수해리재민은 팔십륙만의 다수에달하엿다 그리고 각도별로 피해상황을보면 다음과갓다

九月一日現在各地風水害集計 (警務局發表)

道別	人命 死者	傷者	行方不明	家屋被害 全潰	半潰	流失	浸水	船舶被害 流失	沈沒
京畿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淸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淸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羅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羅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尙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尙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原道	—	—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鏡南道	—	—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鏡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小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第一次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累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松麗線은또不通

寶城、松汀里間만開通

지난밤이래의 폭우로 말미아마 송려선(松麗線)은 또수해를 입어 불통되엿다 즉 쌍봉-덕양(雙鳳-德陽)사이 려수(麗水)과점십칠"키로"이백"미돌"지점과신풍-률촌(新豊-栗村)사이 려수 긔점 이십오"키로" 칠백"미돌"되는지점 률촌-성산(栗村-星山)사이 이십구"키로" 백"미돌" 및 순천-수덕(順天-水德)사이 사십사"키로"칠백"미돌"되는지점은 각각 흙이뭉켜저 나려서 이튿날 오전다섯시반부터 불통되엿다 그러나 보성-송정리(寶城-松汀里)사이는 전과가티 다니고잇다.

지의 우량은 성주(星州)가구십사미리 김천군지례면(金泉郡知禮面)은 칠십륙미리 김천(金泉)이 오십륙미리로 성주군가천면(星州郡伽泉面)의게천은 전번수해로 흙과돌이쌓혀 읍내지대보다도 개천바닥이 서게되엿다 그때문에 현재의 자가노파저다 그때문에 이곳주민들은 총독원、중수로 제방의결궤된곳을 수선하여 잇는데 성적이조치못하야 목하 또다시 칠수하고잇는중이라고하다 부락민은 지금위기일발에처하여잇다

晋州中心의交通

一部는겨우開通

居昌은三朔後라야復舊

【晋州에서 本社特派員李鍾模發電】 진주로부터 경남각지로통하는 교통은이일오후 다섯시부터 합천(陜川) 의령(宜寧) 고성(固城) 삼천포(三千浦) 하동(河東)까지는 개통하게되고 거창(居昌)은 금후적어도 두달후에나 복구될모양이다 철도는이일부터 마산(馬山)과 진영(進永) 까지개통하엿다 비는 지금도계속하야 내리는중이다

려가 잇서서 오백호 일천오백여명의 주민은 모다산으로 다리우로 피난하고잇다 이와가티 로숙(露宿)에 로숙을 계속하고잇는 피난민들은 이제는 비에기진맥진하야 우왕좌왕하고 비명(悲鳴)만지르고 잇슬뿐이다.

一、二次災地에 또다시暴雨

【大邱支局特電】 어제밤이래 경북(慶北)도내에는 또다시호우가 퍼붓고잇서 금이일오전아홉시까

社會課에서 慰問班派遣

경남북(慶南北)、강원(江原)의세도(三道)를 중심으로 이러난미증유(未曾有)의 대풍수해는 극히 참담한정황을 보이고잇서방금 각도에서는 식량(食糧)과의료(醫療)등에 힘것 응급대책을 실시하고잇는데 총독부에서는수해위문반(水害慰問班)을 셋으로나누어 김 사회과장(金社會課長)은 경상북도(慶北)에 김사무관(金事務官)은 강원도(江原道)에 각기 삼십일일 출발하엿다 또 단하 보안과장(丹下保安課長)은 일일오후세시 경상남도(慶南)에 출발하엿다 일편사회사업협회(社會事業協會)를중심으로 의연금(義捐金)모집에 노력중이나 수해지에서는 의식(衣食)에 곤난받고잇는바임으로특히 의복등의의연도 접수하기로 하엿다

三陟에도慘害

【三陟支局特電】 강원도삼척군은 유사이래의 대폭우가 지난팔월이십륙일오후두시부터 이십팔일오전세시까지 습래하야 오십천(五十川)이범람, 탁류는 그연안일대를삼키고 사상팔십구명, 행방불명십구명, 가옥전괴백칠십이호 류괴일백사십칠호 반괴사백칠십호 침수일천이백륙십사호 선박류실사십이척 전괴아홉 반괴삼십륙척에달하엿다 그리하야 그손해액은수백만원에달할모양이요교통과통신긔관은전멸상태이다

晋州에第二次豪雨

櫻町에는벌서浸水

二日曉에는警笛울려注意喚起

山淸도降雨、南江增水

【晋州에서 本社特派員李鍾模發電】 진주에는 물이다숫지도 또다시 일일아침부터 다시 맹렬한비가 나리기시작하야 이일아침 여섯시까지의 우량은 팔십이미리를보이고 남강(南江)수위는 이일 오전한시에 이"메-타"십오이든것이 동일곱시에는 사"메-타"구십으로 뛰여올라 앵정(櫻町)일대에는 벌서 물이들기시작하엿다 진주경찰서에서는 지난이십칠일밤중에 난불에 전시가 수국화(水國化)된 경험에비추어 만일을 경계하기위하야 이일아침 여섯시경에는 련속적으로 경적(警笛)을 울려 시민의 주의를 환긔하엿다 이소리에놀난 전시민은 아침어두운때부터 이러나 녀자들은 머리우에 어른과아이들은 손에 각각 각구를들고 또는 상점에서는 화물자동차에 물품을싣고 안전지대를차저 속속피란중으로 시내각처에는 이곳저곳에서 녀자들의 비명이들려오며 일시는 대혼잡을 이루고잇서 그정경은 참으로 참혹한바이다 긔자는 제일 안전한곳에 장소를정하고 홍수상황을 조사중이다 지금 남강상류인 산청군(山淸郡)방면에도 비가 만히내리고 잇는 모양이나 자세한것은 지금알수업다

三千五百圓出捐

金、林兩氏도各二百圓

丁子屋及店員一同

이튿날 시내창신정(昌信町)륙백사십구번지 림종상(林宗相)씨와 수하정(水下町)십이번지 김한규(金漢奎)씨는 수해동포의연금으로 각각이백원을 본사에 긔탁하여 왓스며 시내 남대문통정자옥(丁子屋)에서도 금삼천오백원(千圓丁子屋 千五百圓店主 千圓店員一同)을 경성부에 긔탁하엿스니 이얼마나 아름다운일이며 갸륵한일이랴

漢城商業敎員、生徒

學校론最初義捐

據出한四十圓을本社에寄託

금년봄에는 일즉이 보기드믄가물에 허덕이든땅에 여름철장마시절도 다지나가랴고하는 팔월에들어 연겁허두차례나 폭풍우가 남조선일대와 강원도지방을 습격하야 듯기만해도 끔직한참해를낸 풍수해에대하야 정열의피에뛰는 교육자와학도가 어찌 관심치안흐며 상심(傷心)치안흘수잇스랴!

이튿날시내 송현정(松峴町)한성상업학교(漢城商業學校)에서는 과아서상에서 떨고잇는 리재동포를구하자는 열의(熱意)로 직원생도들이 거출한돈 사십원을 본사에긔탁하엿스니 이것이 이번수해의연으로 학교로서는처음이니만치 감격하야 마지안는바이라고하겟다

神經過敏한災民

流言蜚語도盛行

極度의恐怖로戰戰兢兢

【晋州에서本社特派員李鍾模發電】 열흘이 보지 못햇든 요전번 큰비에 얼을 바친 놀란 진주시민들은 하로 이튿날아침까지 계속해서 맹렬히 퍼붓는 비로말미아마 이번은 전번홍수보담도 서자나 더 붓는다하여 누구나 큰 근심을하고잇다 이것은 어듸다가 근거를 둔말인지 모르겟스나 넘어나 혹독한수해에 가슴을 태우든 운남어지에 신경이 과민해저서지여내는 류언비어 인상십다 어쨋든 이러케도 진주전시민은 지금극도로 수해에대한 공포를크게느끼고잇는것이다.

新颱風또發生

北西로進行中

三南昨今降雨는不連續線關係

明日까지降雨不免

【仁川支局電話】 어제부터삼남지방에 내리는비는 그원인을보면 조선해협으로부터 황해(黃海)의남부에걸처 저기압의 불련속선(不連續線)이나타나 이로말미암아 남조선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게되는 것으로 이불련속선은 현재북으로 진행하고잇서서 미약해지는 중부와 남부를통과하야 호우는다게엿다하며 자간히 폭우가 내릴것이라고한다 그리고 「괌」도의 동쪽바다우 동경(東經)百三十四度 북위(北緯)십칠도되는곳에 칠백오십미리의 태풍이 다시나타나 북서편을 향해 진행하고잇는데 태풍은 전번에발생한것과 지점과성질이비슷하야 경계할바이라고한다

各地雨量 (自一日午前六時至二日午前六時)

▲仁川一八미리 ▲京城一五미리 ▲全州三二미리 ▲木浦一四一미리 ▲淸州一八미리 ▲江陵一八미리 ▲秋風嶺二八미리 ▲大邱二二미리 ▲釜山三三미리 ▲蔚山一一六미리

暴風雨의再襲

咸安邑또浸水

【咸安郡北에서本社特派員嚴商燮至急報】 일일아침부터 종일계속하야 나리는비는 이일아침에는 폭풍우로 변하자 강물은 또다시 넘처서 함안읍내(咸安邑內)는 또다시 수국화하엿다 동동(東洞)이백호에 일천여명의 주민은 뒤뜰이여서 피난하야 보통학교에수용하고잇다 경관 소방단원은총출동하야 경계중이나 손이 모자라서 큰곤난중이다 가야면(伽倻面)가야리도 재차침수할우

慶北一帶또暴雨

裸體의十萬災民은發病까지

鬱陵島八百町步流失

【大邱支局特電】 근래에업는 큰 피해를입힌 이번삼남수재는 아직도 작구참담한 그현상이판명되여가는이때 또다시 일일오후여섯시경부터 경상북도 전반에 뻐처서 저주할폭우가 또내리기 시작하야 방금도계속중이다 이일오전 아홉시현재로 대구에서 실측미리의 우량이 내렷다 락동강수위는 각각으로 다시증수하여 발서 상주(尙州)부근에는 팔미돌에 달하엿다 경북리재민 일만구천륙백이십삼호의 십만리재민은 산과제방우에서 피난하고잇는데 도비가 내림으로 설사토사등의 병자가 속출되는 이중의재앙에 부딋치게되엿다 경북도경찰부 위생과에서는 약품을 준비하야 이일안으로 배급하려하는중이다 울릉도(鬱陵島)에는 인축의 피해는업스나 집이 삼십호가 문허지고 배가 십삼척이 파괴류실되엿스며 울릉도의 전경작지 일천정보가운데 팔백정보가 류실되며 도민의 부업인 박농사는 전멸되고말엇다

秋夜月漢江畔에

"에로"自動車妓生監禁

危機一髮에"甘言"으로免禍

不良"運公"은警察에

자동차운전수가 녀자손님을 감금하여가지고 가을달밤 한강연안으로 몰아가서 수욕을 채우려던놀라운일이 잇섯다 이사건의봉한녀자는 시내 한성권번(漢城券番)기생 리금자(李錦子)(二二)(假名)로서 지난이일 새벽한시경에 시내 청향원별장(天香園別莊)놀음에서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중 시내종로통에서 자긔집으로 들어가라고차를정거해달라는것을 들은체 만체하고 운전수는그대로 차를몰아가을달빗치 밝게어리고 잇는 인적이 끈허저고요한 한강(漢江)연안으로 몰아가서 강제로키쓰를빼아스며 수욕을 채우라고 덤버드는것을 녀자도 화류계에 닥근 녀자인지라 교묘하게뒷날에 사랑을 약속하는듯이 속이고 간신히 위험을 모면하고말엇다 이사실을 시내종로서에서 탐문하고 즉시 그운전수를 조사한결과 시내모자동차부에잇는 리종렬(李鍾烈)(二三)이라는 자로판명되여 곳체포하여다가 방금불법감금죄(不法監禁罪)로 엄중문초중이다

麻浦町에 또强盜

二日曉頭、人家를掩襲

이튿날 새벽세시쯤되여 부내마포정(麻浦町)이백이십팔번지 한순환(韓順煥)(三二)의 자근집 김덕수(金德水)(三六)의집에 흰보자기로 얼굴을 가리우고 검어 연한 꼴치되는 식칼을든우에 회색 양복바지를입은 괴한 한명이 그집담을 넘어드러와 때마침 손으로와서 주어귀덕수와 함께자고잇든 박남순(朴南順)(三二)의 다리를밟자 이에놀란 그여자는 "으아!"소리를 지를때에 괴한은 식칼을빼드키면서 「금품을내노치안흐면 죽이겟다」고 위협을 햇다 어때에 김덕수는 가진돈은 구십전을 내여주자 괴한은 금가락지와 금비녀까지 빼서내라고 다시햇스나 그는 이것을 웅지안코 "도적이야!"고함을 지르매 도적은 이에 당황해서 드려왓든길로 다시 다러나고 말엇다한다.

◇……龍山署極力活動中

이급보를 바든 소할 룡산서에서는 때가마침 서대문서관내의 봉래정(蓬萊町)강도사건의수배를 밧고활동해오는차이라 깜짝놀라 때를 옴기지안코 곳성각(星峴)사법주임이 서원일동을 비상소집해가지고 범행현장을검정하는한편 곳곳에 비상선을느리우고 범인을 붓잡기에 애쓰는중이다.

妾의術計?

虛僞强盜嫌疑濃厚

별항마포정 강도사건이 발생되자 동서에서 성각사법주임이 현장에 달려가서 검정한 결과에 의하면 첫재로는 김덕수의진술이 애매한것 둘재로는 방과 마루에 여자의것만도 못한 조고마한 흙신발자욱이 각각하나씩남아잇는외에는 그밖게 아모러한 증거될만한것이 업슬뿐아니라 김덕수의 남편되는 방순한이가 어제밤에 상처를 하고 어른날아침에 장사를 거행코저 분주하던것으로 그동안 한번도집되는김덕수의집에 오지 안흔까닭에 남편을자긔에게 오도록 한것인가? 그러치안흐면 자긔가 죽은본처의 뒤를 이어 정처로드려안즈려는 야릇한계획으로 거짓강도가 드려왓섯다 한것이나 아닌가?하여 자못 의심되는점이 열의아홉이나 기퍼서 그서에서는 그를 검속하고 방금추궁하는중이다.

天氣豫報

概況 颱風은 冲繩으로부터 멀리 南海上에잇서서 西北西로進行하고잇다 高氣壓은 日本海와 千島方面에퍼저서 朝鮮海峽에는 弱한 不連續線이잇다 滿洲는 晴、北朝鮮은曇、其他는 비가오고 日本內地는흐렷다

豫報 今夜는 흐리고 때때로 小雨 明日은 개엿다 흐렷다한다

昨日最高 二九度七 同 最低 一九度九 今朝最低 一九度六 今日正午 二〇度九

今夜 白頭山探險映畵及報告講演會 午後七時半 於本社大講堂 【第四日】

어린이의선약 小兒肝氣散 京城鐘峴 本舖 普生藥房

당신의 事業을成就 하시랴면

지금은 能率時代입니다、아모리조흔理想과 훌융한 事業을 經營한다하더라도 身體가 虛弱한분은 健全한 精神을 發揮치못하며 恒常憂鬱과 煩悶속에서 愉快하게일을對하지못할뿐만안이라 그能率에잇서서도 健康者에 절반도따르지못하야 드듸여 一生의큰事業을 成功치못하고마는것이니 오즉 당신의事業을 成就하시기爲하야 무엇보다도 먼저 身體를健康히 하실것입니다 여기에虛弱者에게는諸病을退治하고 健全한 身體로 改造하며 健康者에게는 一層더 精力을增進식히는『蔘茸精』을 紹介하여드리오니 요사이 흔히 廣告만을 爲主로하는 다른補藥과갓치 역이지마르시고 一次 試用하신後 그眞價를 認定하시와 東西四海에 널니 傳하실줄 밋고 勸하는바입니다

못내神通스러움을 禁치못해

나는 늘 神經衰弱으로 因하야 밧갑지안은 온갓 病的症狀이 日課인양으로 되푸리하는 주제면서도 위낙 藥먹기를 실혀하는 性味라 제아모리 神効하다는靈藥이라도 아주 대수롭지안케만 생각하드니 이번에 偶然한 期會로서『蔘茸精』을 먹어본結果 매우두드러진 効驗을보앗기로 못내 神通스러운생각을 禁치못합니다 申不出

갓혼길에잇는 運動家諸君께 徐廷權

나도『蔘茸精』을 愛用한다 廣告와 틀님업는것은 내가 服用한 事實로서 自信잇는 補血强壯劑蔘茸精을 推奬한다 特히 疲勞한때에 一杯야말로 元氣를百倍나도와준다 그런故로 나는 恒常이 蔘茸精을愛飮하는同時에 가튼길에잇는 運動家諸君에게 勸하야 마지안는바이며 그實効잇는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說明하며 推奬하는바이다

高速度補血强壯劑

蔘茸精

主治効能

精力增進、肺結核、萎黃病、急慢性貧血、腺病、小兒發育不全、神經衰弱、ヒステリー、慢性消化不良、月經不順、産前産後、諸病恢復期、其他一般病弱者

(二五〇瓦入·五〇〇瓦入)

全鮮有名藥店에서팝니다

京城 朝鮮商會

長津地方紹介版(其三)

各界의重鎭人物

西北의名望家 趙鼎允翁

開拓以來몃千年동안寂寞無人하든長津에서 처음으로 破荒而出한大人物은 곳趙鼎允翁이다 翁은 本郡中南面泗水里한貧農의집에태여낫스나 그非常한뜻은 귀밑감자농사에 滿足하지안하야 몸을金鑛에던지어 奮鬪努力한結果 一躍百萬長者가되엿다 그리고 乙未年부터 丁未年까지 滿十年동안 長津郡守 中樞院議官 平安南北道鑛山監理 平北泰川郡守 平北收租官 平安南北道鄕錄調査官 侍從院副卿 成川郡守 中樞院副議長等 官職을歷任하여 實로富貴兼全할뿐아니라 聰明이過人하야 事物에밝으며 漢學의造詣도깁다 또敎育에도 熱誠이 잇서서 일즉이京城五星學校經營者의一人이되엿든일도잇고 長津唯一의私立學校이든中東學校를 十七年間專擔經營하야 여러人材를培養하야 今日長津各界의代表的人物은 거의中東學校出身이니 翁의功이 크다하겟다 또 貧民救濟로 累次巨金을 喜捨한일이잇고 關北大水災에도 크게同情한배잇서서 慈善家로 頌聲이 藉藉하다 第一言하고 趙長津 趙泰川이라면 咸平兩道사람치고는 모를사람이 업스리만큼한名望家이다 晩年에 京城黃金町에서 閑日月을 보내고잇는데 生長한古宅과 先人墳墓와 翁의 지은 淡淵亭 郡民의 세운施惠碑는 아직長津에 남어잇서서 길이길이 翁의歷史를 이야기하고잇다 (사진은 趙鼎允氏)

典型的의良面長인 中南面長 南相鶴氏

氏는 中南面出生으로 今年三十九歲의 少壯面長인데 天性이仁厚하야 長者의風이잇다 多年間面職員으로잇서서 面行政에關한經驗도만커니와 昭和十年봄 中南面長에 就任한以來 一意面民의福利增進을 爲하야 苦心努力하고잇스는바 治績이날로 새로워서 面民의頌聲이 藉藉하다 元來中南面은 長津의 洛陽이든바 이제 一千萬坪의 土地와 五百餘戶의家屋이 一朝湖海化한 隔世的大變動을 當하고 第二次用地買收問題로 面民對水電側의 爭議가 再然하고 面所、學校의移轉과 貯水池擴張 區域民의 移住等等幾多의 問題가複雜하야 實로多事多端한 非常時라 이非常時面長으로서 會社、面民及上司의中間에끼여受難이 만커니와 面民의權益을爲하야 圓滿無缺하게 水電側과折衝함에는 오직公正眞實한 南面長이 其人이다 氏는 德行이 노흘뿐아니라 財產도 裕足하야 郡內의 信望이날로 두터워가는것이다 (사진은南相鶴氏)

溫厚하고篤實한 西閑面長千世勳氏

氏는 溫厚篤實한 性格을갓고 對人接物에 항상平和의 바람이불어서 千面長이라면 누구나조흔兩班이라고 稱頌하는바이다 十餘年동안 面書記로 勤務하엿슴으로 面內事情에 通曉하야 面長으로는가장適任者이다 三百餘戶가西閑面으로 移住하게되매 그收容地開拓及 移住民指導等은 氏로하여곰 努力하게 되엿다 [illegible] 지금不惑之年이니 일하기 한창조흔때다 氏의健鬪를바란다 (사진 千世勳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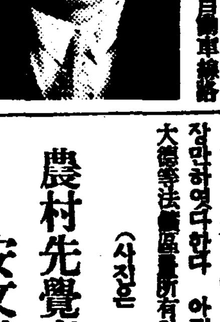
刀圭界의權威者인 下碣醫院長 林在苑氏

氏는 中南面泗水里出生으로 大正九年에 咸興高普를 卒業하고 同十三年에 京城醫學專門學校를 卒業한後 곳忠北陰城郡公醫로配置되엿고 昭和八年에는 日本生命保險株式會社公醫로 被任되엿고 同九年부터 長津江水電株式會社公醫로囑託되야 下碣市에서 開業하고 今日에이르는바 德義心이富하고 儀表가端雅하야 얼른보아도淸秀의 仁術을가진先生으로보이거니와 元來學力도 膽富할뿐아니라 多年間싸은 經驗은 또 斷然刀圭界의 權威가되엿다 또 地主會運動에도 背後에서 援助하야 最後의大問題解決에 이르기까지 氏의功勞가 多大하엿다 氏는今年三十七歲의 年富力强한 醫師로서 一般의 信望이 集中되엿다(사진은 林在苑氏)

醫療界의巨星 下碣公醫鄭台敎氏

氏는 利原郡西面出生으로 京城醫學專門學校를卒業하고 咸興道立醫院囑託醫로 任命되고 昭和六年에 咸興道立醫院醫官으로 任命되고 昭和七年長津郡公醫로 九年부터下碣公醫로 任命되어今日에 이르는바 性格이 沈默莊重하야 衆人의 尊敬을 밧으며 道術이 精妙한手法으로 親切叮嚀하게 診察하야 一般의 信望이 集中되어잇다 氏는 實로 刀圭界의 巨星的存在로서 아직三十三歲의 靑年이니 氏의前途는 참으로 洋洋한것이다 (사진은 鄭台敎氏)

請負業界快人 西松組配下徐貞德氏



氏는 江原道出生으로 當年三十六歲의 少壯活動家이다 일즉이 託田組配下로서 滿十年間土木請負에 從事하다가 昨年부터 西松組配下가 되야長津江水電工事請負及 社宅高原鐵道自動車線路工事請負를 마타工作하엿다 氏는 土木事業에 對하여 十餘年經驗이 도잇거니와 熱誠이잇고 手腕이 敏活하야 斯界의 覇者로好評이 잇다 氣字가 宏壯하고 天性이 豪活厚하야 部下勞働者를 手足가티 사랑하고 무상한사람을同情하고 知己를 爲하여는 목숨을 불보지안는다니 工事界의 快人인 同時에 또한 江湖上豪傑이다 氏는 長津에서의 한 過客이나 秩物鉅商을노코 개가平地된는때까지 氏의記憶의 좋은 永遠히 長津江山에 남기어잇스리라 (사진은 徐貞德氏)

唯一의實業界重鎭 實業家李震鍾氏

氏는 今年三十五歲의少壯活動家로 天性이仁厚沈着하야 老少敬愛의的이되엿다 일즉이 面書記 金融組合書記를 다것스나 이것은千里馬가쥐잡는格이다 龍이어찌池中物이되고말랴 氏가이實業界로轉向하자 그의敏腕을發揮할業界가비로소생기고 百年幸運은 於是乎到來하엿다 長津水電工事와함께 交通運輸가 繁昌하게되자 氏는 丸津運送店을經營하는바 信用과迅速을主義로 하야 斷然長津運輸業界의覇者가되엿다 運送店外에도 여러方面으로活躍하여 累萬의蓄財가잇는바 또新南面에잇는西昌鑛山을經營하다가 最近에 一金十五萬圓으로 日本鑛業會社에 賣渡하엿다 最初共同出願한數人의동무가잇섯스나 하나둘식 落伍되어가고 最後까지 버리고잇든것氏에게 幸運은도라왓다 別로 祖業도 갓지못한氏가 一躍數十萬圓의 巨富가된것은 氏의꾸준한堅忍力과 敏活한手腕이 決定的要因이 된것이다 氏는더욱活躍하고잇스니 經濟界뿐아니라 文化事業에까지도 만흔貢獻이잇슬것으로 期待된다 (사진은 李震鍾氏)

君子의稱號를듯는 福洞金鑛 洪相義氏

長津郡下七十鑛山中 가장노픈聲價를가진 福洞金鑛의主人洪相義氏는 果然어떠한어룬인가 氏는神童의稱까지들엇든才子로 漢學의素養도기픈 明大出身의法律學者이다 氏는咸州出生으로 今年丙戌生인데 靑少年時代에는 漢文書堂以外에 新敎育機關이 地方에 設置되지못하고 멀리遊學할 學資는 업슴으로 氏는 獨學自習하야 普通文官試驗에 合格하고 大正二年부터 元山府廳 咸鏡南道廳 咸興郡廳屬官을 歷任하다가 同僚中學閥의 발달에激憤하엿든지 大正十一年에 快然히 職을辭하고 東京에건너가서 老學生으로 明治大學法科에 入學하야 四年만에 卒業하엿는데 時年이三十九 昭和二年부터 四年間赴戰江 水電工事請負業에從事하다가 再昨年여름부터 福洞金鑛을 經營하는中이다 氏는溫厚謙讓하야 누가보든지 道學先生으로 알게되고 금점판장이라하기는 어려운 金山의君子이다 (사진은 洪相義氏)

鑛業界快男兒 長津鑛山主 金能化氏

氏는 本是關西人으로 元山에居住한지 數十年에 金鑛業의元老이다 儀表가 傑出하야 關北鑛業界의 [illegible] 件行이 快活하야 비가漢漢하고 [illegible] 數五十고개에올랏스되 靑少年을 凌駕할만큼 元氣가 旺盛하니다 [illegible] 漸出하야 [illegible] 困難하다니 不遠에 [illegible] 잇슬것이며 大成功을하리라고期待된다 (사진은 金能化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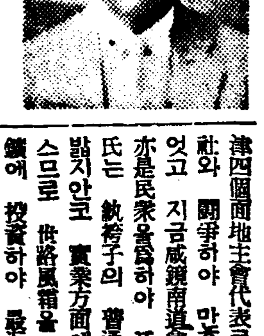
唯一의靑年實業家 葛田配給所主任 楊吉龍氏

楊吉龍氏는 新南面사람으로 現在葛田里에가서 西松組配給所를經營하는 當年二十七歲의靑年實業家이다 十九歲에咸興商業學校를卒業後 煙草專賣局에二個年半勤務하엿고 그後東一銀行에들어가서 二個年間勤務하다가 俸給生活을그만두고 스스로德興商店을經營하다가 지금配給所를經營하는中인데 頭腦가精密하고 商業에對한智識과 手腕이俱備하야 長津商界의名星으로 大成功을豫期할날이 멀지안흘것이다 氏는 一方으로 鑛業에留意하여 出願한鑛區가 이미二十二個所에達하고 登錄된것도三個所인바 德興三興鑛山이매우有望하다니 鑛業으로도 成功할는지 商鑛이爭成功하는듯 (사진은 楊吉龍氏)

在職廿有七年 新南面長 崔斗璉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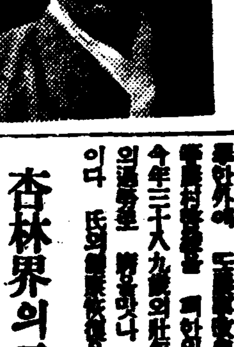
長津의 名望家로 가장 郡人의 敬慕를 밧는이는 現新南面長 崔斗璉氏이다 氏는 儀表가 魁偉하고 性格이 快活果敢하야 누가보든지 一郡의 豪傑임을알게된다 隆熙四年 舊下南面長에 就任하야 十年間勤務하고 大正八年郡參事、同九年道評議員에當選되고 同十一年부터 今日까지十五年間 新南面長으로 勤續하야 公職에잇슨지 春風秋雨廿有七年이되엿다 그手腕及 信望의如何도 알수업거니와 山岳가티 움즉이지안는地位와 長江가티꾸준한精力에는놀라지안흘수업다 成績의優良함은一郡의模範이오 月手當四十六圓도 面長으론 드믄俸給이다 知命의고개를넘엇스나 老當益壯하야 老練한솜시는 더욱可用함을보인다 膝下에子孫이가득하고 家產도넉넉하야 實로福祚조흔영감의典型이다 (사진은 崔斗璉氏)

溫厚謙讓한人格者 咸南道議員 趙大河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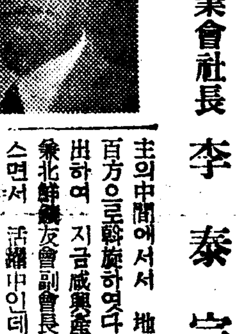
氏는 百萬長者趙鼎允氏의 令孫이며 京城藥學專門學校出身으로 財閥學閥이 함께赫赫한 當年三十六歲의 事業家이다 乃祖를닮아서 매우聰明한 天稟을타고낫스며 비록富貴한집에 生長하엿스나 嚴格한家訓을 바로타이지도 驕奢한빗이 업슴으로 누구든지 歎服하는바이다 일즉이 長津四個面地主會代表로서 水電會社와 鬪爭하야 만흔慰藉金을 나기엇고 지금咸鏡南道會議員으로서 亦是民衆을爲하야 活動하고잇다 氏는 紈袴子의 普通걸음 길을 밟지안코 實業方面에 進出하얏스므로 世路風霜을 겪는다 金鑛에 投資하야 最近에 數萬圓을 어덧다니 靑樓紅燈에 用錢如水하는 公子들에 比하면 實로 雲泥의 差가잇서서 더욱 敬服하게된다 氏는 元來 偉大한 抱負를가지고 恒常 묻든것이 貧弱한 朝鮮을 爲하야 근심하고잇스니 오래지안아서 一大活動이잇스리라고 밋는다 (사진은 趙大河氏)

逆境에서成功한 鑛業家 池明湖氏



長津에서 맨처음으로 金銀鑛을 經營한이는 池明湖氏이다 砂金採掘은 몃百年前부터 시작하엿고 成功한이로는 趙鼎允氏도잇거니와 [illegible] 最初의成功者 [illegible] 本是[illegible]氏이나 氏는 [illegible]出生으로 [illegible] 十年에多少의 [illegible] 長津에와서 [illegible] 從事하야 [illegible] 가지고 [illegible] 모조리 [illegible] 氏家族의 生活難까지 當하다가 物極必返에 苦盡甘來라 黃金界氣가 다치게되여 新南面에잇는金鑛區中에서 一個所는十四萬圓 又一個所는一萬五千圓을밧고 日本鑛業會社에 팔아서 一躍巨富가되엿다 [illegible] 田庄을 작만하엿다한다 아직도新大德等法鑛區를所有하고잇다 (사진은 池明湖氏)

長津의大功勞者인 咸興產業會社長 李泰完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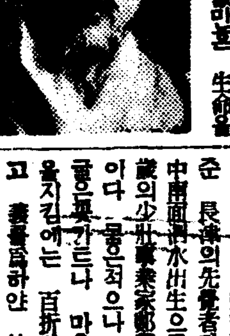


獨學自習으로 普文試驗을파스하고 官界로드러가다가 歸去來하야 大衆運動의 指導者로 活動하엿고 이제 實業界에 大闊步進出하야 怪手腕을 들으는 當年三十八歲의 少壯事業家가잇스니 그는 中南面出生의 李泰完氏이다 氏는 風采가 淸逸하고 頭腦가明晢하며 手腕이 敏活하고 勇毅果敢한 人格者이다 多年間光州咸平等郡屬으로잇슬때에도 人望을 어덧스나 그의遠大한 抱負는 刀筆吏로 [illegible] 업서서 昭和三年春 東京留學을 돗하고 渡東次京城에 들럿다가 鄭贊周氏等 鄕友를 맛나 地主會經過報告를 듯고 慨然奮起하야 地主會急先鋒이 되여가지고 七八年동안 三菱財閥 野口財閥을 對抗하야 百折不屈하고 苦戰하엿슨것이다 斷斷此心은 오직 大衆에 잇고 一毫도 自身을 돌보지아니하여 留學도 그만둘뿐아니라 여러해모와 노앗든 學資數千圓까지 이運動費에 提供하고 말엇다 地主會解消後에도 水電會社와 地主의中間에서서 地主를 爲하야 百方으로斡旋하엿다 實業界에進出하여 지금咸興產業株式會社長 兼北鮮鑛友會副會長等 重職에잇스면서 活躍中인데 實로 前途洋洋한事業家이다 (사진은 李泰完氏)

農村先覺者 安文漢氏

開化에도 文化가장뒤떠러진 長津에서 뻔히처이려나 부르지즌 先覺者는 누구인가 南長津의鄭贊周氏와 北長津의安文漢氏가 其人이다 安氏는 性이剛直하야 堅忍不拔의意志가잇고 大衆의公益을爲하여는 一身을犧牲에 [illegible]

杏林界의元老 韓泳昇氏



겨저녁大方家요 杏林界의元老이다 多年間下碣市에서 開業한바 그靑囊妙法에 依한 濟衆의功이 적지안코며 더구나 正直하고信義가잇슴으로 一般의信望이놉다 氏는 今年還甲을 마젓다니 우리는 九仞의壽을 [illegible] 하는同時에 [illegible]活人의 功德이 [illegible]하기를바란다 (사진은 韓泳昇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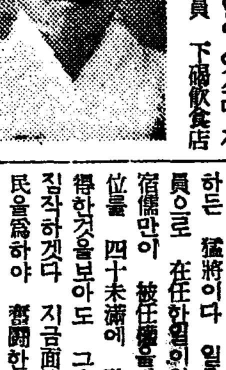
氏는 咸州出生으로 어려서부터 漢方醫學을硏究하야 기픈[illegible] 만흔經驗으로써 數많은 生命을 [illegible]

長津社會의指導者 海聲 鄭贊周氏

[illegible]事件에 連座되어 [illegible]生活을한일이며 한동안長津新友會라는靑年團體를組織하야 文盲退治 生活改善 [illegible]運動을指導하엿이며 滿九年間鄕里私立中東學校敎員在職中 四年間이나無報酬로 勤務하야 財政難에빠진 [illegible] 一力維持하여온일이며 그리고 昭和二年에 여러同志로더부러地主會를組織하야가지고 三菱、野口等大財閥을對抗하야 八年동안 [illegible] 實로 公을爲하야 一身을 [illegible] 하엿든것이다 이제는 時局도 [illegible]되고 私生活도 좀아볼 形便이어서 再昨年부터 鑛業에 발을던저 발서 出願한 鑛區가三十餘個所에達하고 登錄되어作業하는데도 四五個所이다 그리고 現在中南面協議員 咸興產業株式會社取締役으로잇다 氏는長津의開拓者인저 (사진은 鄭贊周氏)

文化事業에 [illegible] 實行하는中이니 [illegible] 長津이 氏를[illegible]하야 [illegible]하게될것이다 氏는元來[illegible]出生이니 [illegible] 만흘 이[illegible] 되어서 [illegible]氏의[illegible]어 놉하간다 (사진은 [illegible]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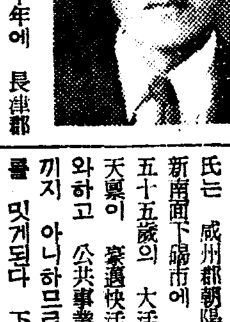
前途가實로有望한 實業家 鄭昌奎氏



氏는 中南面出生 今年四十二歲 中年人士 性이豪俠하야 미련한 交遊하기를조와한다 十年前까지도 일이뜻과가지못하야 가진風霜을겪다가 近年에幸運이 도라와서 萬事如意하게되야 집도新築하게되엿다 現在鑛業도經營하고잇스며 豐山方面에 土地를만히買入하일도잇스니 모다成功이잇슬것이다 實業方面에큰計畫을가지고 活躍하려한다니 不遠한將來에 實現할것이다 氏는 狩獵을조와하야 高地帶猛獸를 多獲한까닭에 名砲手의稱이잇다 氏의成功을 祝福한다 (사진은 鄭昌奎氏)

谷陵飛峯을 지내임이 잇스며 지금은 新南面協議員 下碣飮食店

長津의召杜 長津郡守韓洪錫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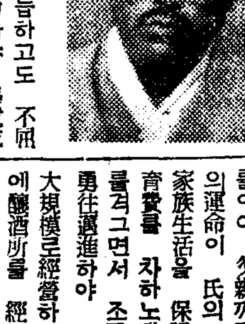
氏는 咸南三水郡出生으로 大正五年에 咸興農業學校를 卒業한後 六年부터 郡屬、道屬으로잇다가 咸興府 財務課長으로 擢拔되엿스며 昭和十年에 長津郡守로 赴任하엿는데 儀表가俊秀하고 天性이 仁厚하야 民間疾苦를恒常 근심하며 產業開發과

百事可堪의活動家 下碣衛生組合長 李完吉氏

氏는 咸州郡朝陽사람으로 現在新南面下碣市에 居住하는 當年五十五歲의 大活動家이다 氏는 天稟이 豪邁快活하야 社交를조와하고 公共事業에는 몸을 아끼지 아니하므로 下碣市에서 大小事間 氏의參與치안는데 업는것을보아도 氏가 百事에可堪之人을 넉넉히알것이다 일즉이 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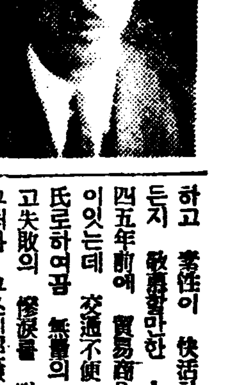
組合長 下碣衛生組合長等 諸職을 兼帶하여가지고 孔席이 不暇하게 奔走不暇함으로 官民間의 信賴가 여간이 아니라한다 (사진은 李完吉氏)

七顚八起로成功한 立志傳中人物 金冑乾氏



여러번失敗를거듭하고도 不屈不撓하고 奮鬪努力하야 畢竟成功을한立志傳中의人物을 長津에서들자면 첫손가락에 꼽을이는 金冑乾氏이다 氏는 咸興出生으로 家貧하야 어려서 父母를따라 長津에來住하엿든것이다 十九歲부터 商業에從事하야 처음에 燕麥장사에 萬餘圓의 失敗를보고 다시酒造業을하다가 또失敗하엿다 그동안 家事를主管하든親兄斗乾氏가 早夭하고 뒤를이어 父親까지別世하매 一家의運命이 氏의一身에달렷다 全家族生活을 保障하며 弟侄의敎育費를 자하노라고 無量의艱苦를겪그면서 조곰도 落望치안코 勇往邁進하야 또다시 木材業을大規模로經營하는 一方 下碣市에醸酒所를 經營하게되여 今日에이르러는 斷然實業界의第一人者로서 數十萬圓의富를致하얏다

多角的活動家 李寅郁氏



氏는中南面出生으로 今年四十二歲의壯年 實業家 氣字가 軒昂하고 孝性이 快活하야 누가보든지 敬畏할만한 人物이다 十四五年前에 貿易商을 經營한일이잇는데 交通不便 世界恐慌은 氏로하여곰 無量의 艱苦를 겪고失敗의 慘狀을 부리게하엿다 그러나 그쓰린經驗은 今日捲土重來를 이루게하여 이제金鑛其他實業方面에 活動하는바 多少의貨殖도 하엿거니와 압흐로큰成功이 잇슬것이다 實業家뿐아니라 多角的活動家이다 昭和二年부터 七八年間 地主會 幹部로서 大衆의 權益을 爲하야 三菱及 野口 財閥과 惡戰苦鬪하든 猛將이다 일즉이 文廟直員으로 在任한일이잇는바 老師宿儒만이 被任할수잇는 그地位를 四十未滿에 破格的으로獲得한것을보아도 그人格그聲望을 짐작하겟다 지금面協議員으로面民을爲하야 奮鬪한다 그리고氏는 性이豪邁한이만큼 狩獵을조아하여 一字砲手란 名聲도잇으니 氏의實業界成功도 祝福하거니와 公益을爲하야 더욱 奮鬪하기를 바란다 (사진은 李寅郁氏)

勤儉着實한靑年 下碣商店主李文鉉氏

氏는 郡內[illegible]下碣市에서 [illegible]商店을 經營하고잇는데 商業에對한 識見과手腕이 出衆하야 商業이 날로發展할뿐아니라 天性이 勤儉着實하야 模範靑年이라는稱讚을 듯는다 그리고 相當한貯蓄도잇게되여서 北長津의唯一한生產機關인三成醸酒所經營者의 一人으로잇는데 實로前途有望한靑年實業家이다 (사진은 李文鉉氏)

[illegible]山[illegible]하는바 成績이 조타한다 今年四十二歲의 壯年實業家이다 (사진 金[illegible]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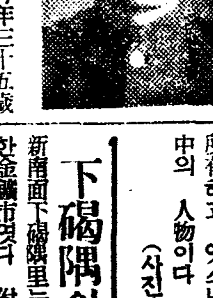
治績이一新한 北面長 韓國順氏

北面長 韓國順氏는 北面會計員으로 六七年在勤하야 面行政事務에는 마흔 經驗을싸엇고 面長에就任한後로는 面의開發과 面民의 福利增進을 爲하야 努力함으로 治績이 날로새로워가는中이며 天性이寬厚하야 面民의信任을밧는다 그리고 特히敎育에 留意하야 普校設置에도 매우努力하엿거니와 未就學兒童을爲하야 書堂가튼機關을 만히開設하는中이라니 文盲退治에 對하야 氏에게 期待되는바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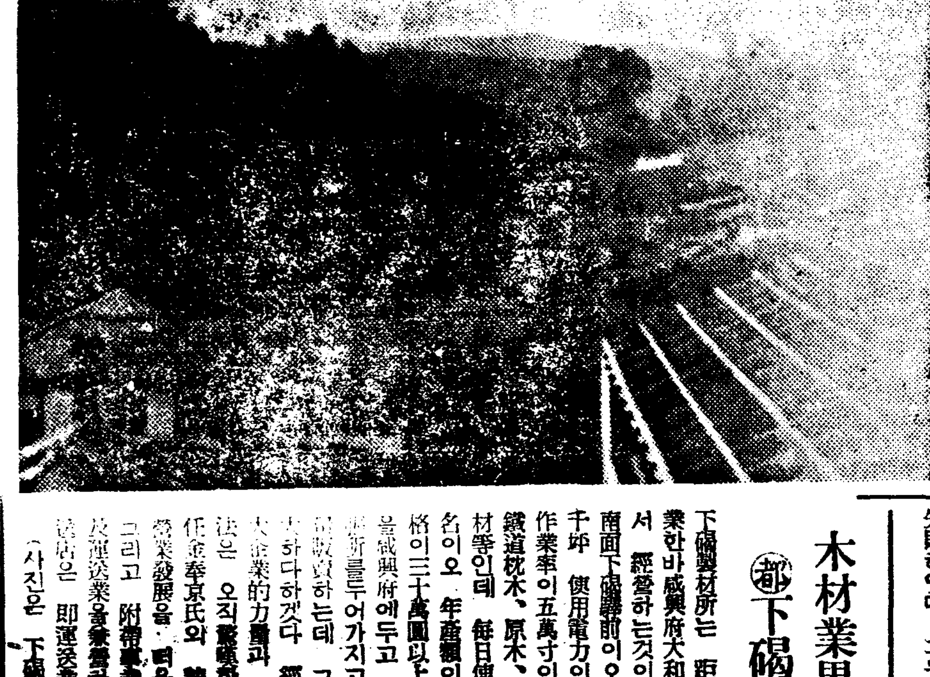
職務에充實한 東下面長林琪垣氏

林琪垣氏는 여러해동안 西閑面書記 東下面會計員을 歷任하야 面政에對한 經驗도만커니와 農村振興、面勢擴張에對한 抱負를 품고잇는바 昭和八年 東下面長에 就任되야 비로소 그高貴한 經驗으로서 그抱負를 實現하게되엿다 熱烈한誠力과 圓滑한手腕을 發揮하야 成績이 매우良好하야 一郡의 好評을 밧는다 東下面은 長津에도 奧地로서 交通이 甚히不便한바 連三年大凶作에 勞働市場까지 遠隔하야 坐而待死할수밧게업는 罹災民으로 하여금 今日까지 殘喘을 保케한것은 北面과아울러 面長善政의所賜라할것이다 果然 職務에充實한 面長이다

務實躬行의篤志家 李德模氏



氏는 中南面出生 今年三十五歲 일즉이 京城中東學校를 卒業하고 다시 咸南臨時敎員養成講習所를 거처나와서 四年間公立普通學校訓導로 勤務하다가 昭和二年부터 鄕里泗水에잇는 私立中東學校敎員으로 옴아와서 昨年겨을 公立으로 變更될때까지 熱心으로 育英에 盡瘁한바 敎員勤續이 前後十三年이니 氏의 敎育에對한 功勞를 稱頌한것이 다 또 氏는 產業方面에도 留意하야 特히 農事改良에 貢獻이만으며 性格이 剛毅하고 勤儉貯蓄으로 模範을 示하야 農村啓蒙에 功勞가만타 그리고立錐의 租業田도 업든것이 自手成家하야 이제數萬圓의 家產을 所有하고 잇스니 實로 立志傳中의 人物이다 (사진은 李德模氏)



下碣隅의今昔

新南面下碣隅里는 예전부터有名한金鑛市였다 附近二三十里內의 無數한개울바닥에서 몃千몃萬兩의黃金을파내기때문에 約六十年前에는 鑛夫及商人의居住者가千餘戶가되여 一時는매우繁榮하엿섯다 十數年間북구덩가리파먹고나니 餘地가업섯든지 한戶한戶撤去하게되여 四十年前에는겨우 四五戶의客店이남엇슬뿐이엇다 그리다가 十七八年前부터木材燕麥澱粉等商工業으로因하야 다시殷盛하게되엿다 昭和八年以降數三年間은 長津江水電工事로一時繁榮하다가 現在는附近金山의好況으로因하야 活氣를 띄고잇는데 現在戶數는 七百六十五戶인바大部分이 商業이다

木材業界大王 ㊞下碣製材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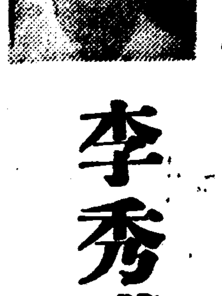
下碣製材所는 距今二十年前에創業한바咸興府大和町郡泰潤商店에서 經營하는것이다 位置는 新南面下碣驛前이오 工場敷地가四千坪 使用電力이百馬力 一晝夜作業率이五萬寸이며 木材種類는 鐵道枕木、原木、電柱、諸建築用材等인데 每日使用人夫가 八十名이오 年產額이約四千尺締 價格이三十萬圓以上에達한다 本店을咸興府에두고 京城及興南에出張所를두어가지고 前記木材를多量販賣하는데 그規模가 實로彪大하다하겟다 經營主郡泰潤氏의 大企業的力量과 合理化한生產方法은 오직驚嘆할뿐이며 工場主任金奉京氏와 精勵忠實한努力은 營業發展을 더욱促進하는것이다 그리고 附帶事業으로 米穀貿易及運送業을兼營하는데 ㊞咸南運送店은 即運送業部門이다 (사진은 下碣製材所)

謝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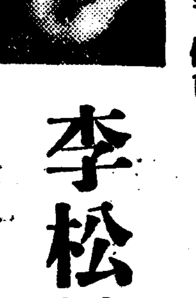
紙面의 不足으로 原稿의 三分二만 揭載되엿고 主要한寫眞도 빠지고 地主會小史는 不得已한事情으로 削除등에 빠지고 主要部分이削削되고 또其一其二에는 誤植字가 過多하게되여 여러가지로 未安합니다

祝 長津支局發展

長津下碣市 李秀燁 女史



長津下碣市 李松鶴 女史



長津新南面 德洞鑛山 香月快策

長津下碣市 鐵道貨物 陸地運搬 ㊟丸津運送店

長津下碣市 朝鮮料理 金盤舘 主 蔡昇烈 李春紅 金桃花 蓮花 金山月 金龍斗 崔花子

西閑面柳潭里 林在觀

長津下碣市 食料雜貨 郡散賣商 新興商店 主 李俊夏

長津葛田里 西松組專屬 葛田製材所 安[illegible]

長津下碣市 時計 眼鏡 蓄音器 ラヂオ ボリドール レコード 各種 永信堂時計店 主 朱[illegible]

新南面德洞 德洞鑛山配給所

長津下碣市 京城旅舘

長津葛田里 新豐商店 主 宋泳[illegible]

長津葛田里 豐上商會 主 金洙鳳

長津葛田里 咸興旅舘 主 韓[illegible]容

長津下碣市 美容理髮舘

長津葛田里 西松組指定 歐米洋服店 主 朴泳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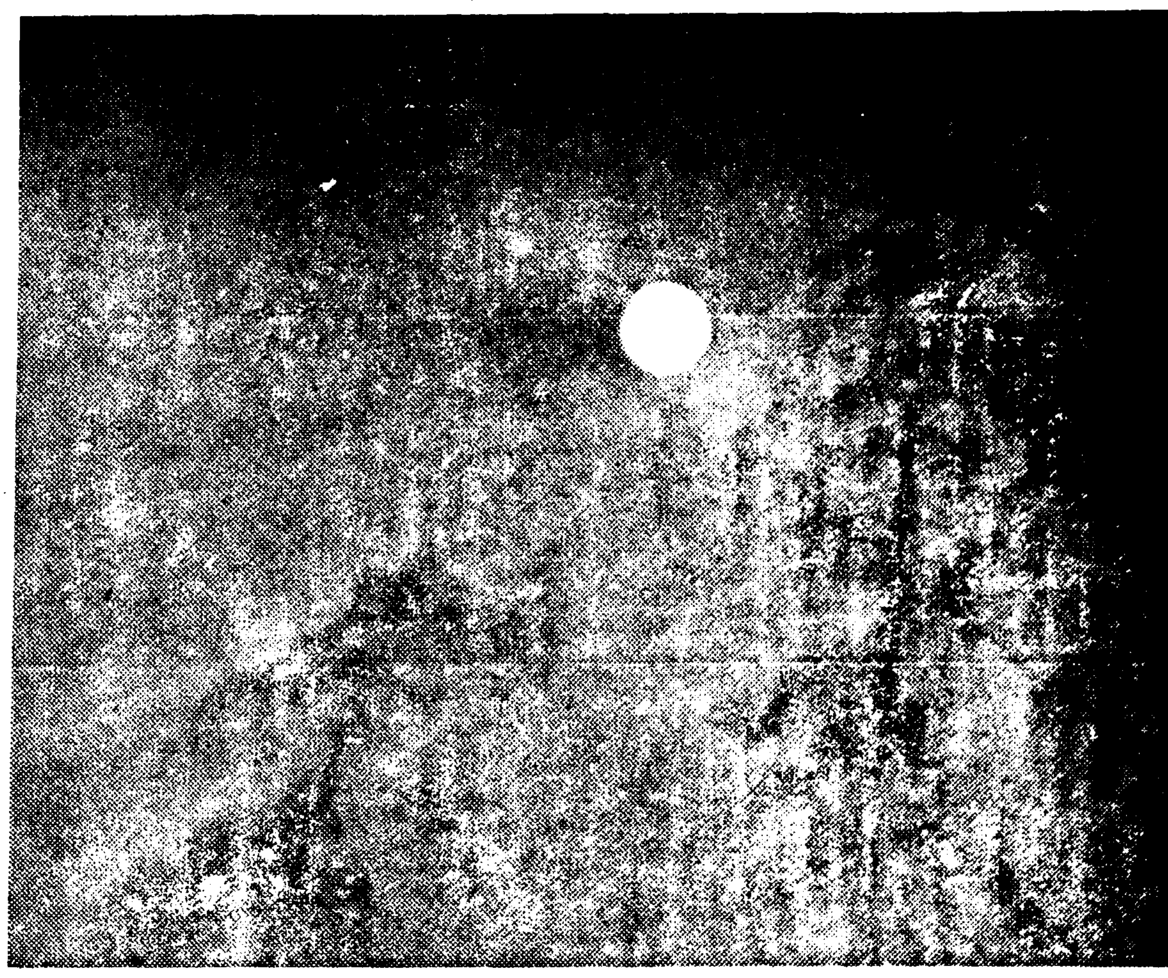
長津葛田里 鄭昇乾商店

下碣市 下碣劇場 主 金秉奎

下碣市 請負業 韓秀萬

下碣市 司法書士 朴文明

葛田里 宋[illegible]



∞ 달도 밝은데 ∞

처참한 수해소식 동포의 정을 표하자

돈도조코、쌀도조코、옷도조타 각자힘이미치는대로

[illegible] 물난리가 업 [illegible] 올해와가튼 물난리는 아마 업섯슬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상하기를 오천명이요 집이 헐어지고 떠나가기를 십만호라니 농토가 결단 난것은 말할 여가도 업습니다。그러나 아즉 교통이 완전히 통치 못하는 곳이 만흐니만큼 그런데서는 또과연 얼마나한

참경을당하고

잇는지 아지도 못하고잇습니다。근년의 큰 수해라면 의례히 을축년을 첫는데 금변의 수해는 지금까지 안 범위만 가지고도 을축변의 멧십배나 되는 모양입니다 가엽슨 리재동포들은 장차 어찌나 살아 갈는지요? 집도、놋밧도、심지어 부모처자까지 일허버리고 장차어찌나 살아 갈는지요? 그야말로 하늘도 무심하고땅도 무심합니다。이 고장의 이백성을 이다지도 괴롭힐 것이 무엇인지 아모리 생각하여야까닭을모를일입니다。

×

장차로

살문제도문제

가 아닌것은 아니오나 당장은 또 어찌하란 말입니까? 먹을 것이 잇습니까? 입을것이 잇습니까? 헐허벗판에서 찬비를 마즈면서 굼주리고 목마르고얼고 떨고쇠가어니요 돌이 아닌 사람의 몸으로어찌하란말입니까? 철업는 자식새끼들은 배고프다고 버채고 칩다고웁니다。늙으신 부모님네는차라리 남과가티 죽어나버리지 못 한것을 한탄하고원망합니다。제목이

아프고병드는

것은 오히려 참으려니와 어린 자식과 늘근 부모의처참한 정경을 어떠케 [illegible]볼 수 잇슴니까? 모진것은 사람의 목숨이라 그런대로도 눈을 뜨고 살아잇지오만은 그러고 살아 잇노라니 그 가장이 얼마나 녹고 그 배가 얼마나 조라 들 겟습니까?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다행히 그 재해를 벗어 난 우리네의 행복을 깨닷습니다。

그러나그들은

우리와 가튼 사람입니다。아니 그들은 우리의 동포입니다。그들의 위험한 생명이나 그들의 심각한 고통을 바라다만 보고 잇슬 것이며 이야기로만、전하고 잇슬것입니까? 따뜻한 피를 가진 우리로서 어찌 차마 밥이 맛잇고 잠이 달게 올 수 잇습니까? 멀리 구라파나 아메리카에서도 이 소식을 들으면 가엽든 생각에 불연듯한 동정심이 솟다 지지 아할수 업스오니하물며 한고장에서

한께사는우리

들이겟습니까? 우리들이 그들에게 대하야 냉정히 군다면 그 아니 애닯고 서그픈 노릇입니까? 그래도인정이 만흔신것은 아주번네입니다。섬마하니 아주먼네야 그럴리 잇스랴 굿게 밋고잇습니다。

×

그래도 다른해에는 돈푼을 내놋는다 옷가지를 내놋는다 비교적 서투른듯이더니 금년에는 도라혀 잠잠한 폭입니다。해마다진보되어야할 우리 사회는그 반대로

되보되야가는

지도 모르겟습니다。어 어지한 일입니까? 어 무슨연유입니까? 야박한 세상에 제살기가 바쁜 것도 사실이요 돈이조흔 세상에 내노키 아까운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케까지모호고 그러케까지 구더서 얼마나잘 살닙니까?하로사발 요리스갑슨 백원 이백원을 척척내면서도 이런데는 그때 내노치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저그번 우리 신문사에서수해

구제음악회를

열엇슬때 기생들은 돈를 안밧고 노래를 불러 주고도 자진하야 의연금까지내노핫습니다。이 것은 비단 본사에서만 감사히 아는바가 아니라 만천하가 감격해 할배입니다。되지 못한 사회의 신사들이여 이기생아주머네들 좀 배워보면 어떠겟습니까?

×

만허서 나볼 것은 아니나 만흔 것만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힘이 밋는대로 한가지옷과 멧푼 돈도 조습니다。

입술의신비 아랫입술두터우면 정렬적인녀자

크기는눈의일배반이표준 체경을한번보십시요

녀자의미(美)가 눈과입술에 잇는것은 누구나 아는바이지만 엇더한입술이아룸답고、입술의미의표준은 어데잇는가、또는 엇던입술을가진여자가 엇더한성질을 가지고잇다는 입술에관까지 신비의 과학적해부는 아마 여러분도 잘모르실 것입니다。그러면 다음을 읽어보십시요

◇

대체로 아래입술은 웃입술보다 좀더 두텁고 「커-부」의 돗수도 훨신 풍부하며 또한웃입술보다 아프로 툭삐어저잇는데 이와반대된것도 잇겟지만 대체로 이것이 표준형이라고 볼수잇습니다 그리고는 그외에 여러가지 자미스런 형상의 입술이 만습니다。

◇

입술의 형상을 크게보아 두종류로 나눌수가잇습니다。한가지는 입술이두텁고 활(弓)형상으로 「커-부」가 풍부하고 장미색을 띄우고잇스니 이것은 「보헤미안」형또는 「큐피드」형이라고하는데 이형의입술을 가진 녀성의 애정이 대단하야 그야말로 열정적이고육감(肉感)이 넘처흘러 극단으로 이런사람은 일종의백치미(白痴美)를 띄우고 잇습니다 또한가지는 입술이 엷고 모양도조코 좀 동근편이니이런 입술을 가진녀자는 먼저와반대로 지적(知的)미가 잇습니다 적당히 세련이 되고 혈색(血色)이 조호면교양이 노픈 미를 보이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쌀쌀하고 냉정하게됩니다

◇

그다음에 입술의 크기인데 물론 너무커도 천격스럽고 너무 적어도 궁상스러운즉 적당히 큰것이 제일 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일정한 표준이 잇서 「눈의 크기의 일배반이라고 되어잇습니다。그러나 시대를따라 입술도 미의 변천을 입어 최근에는 적은 입술보다 큰입술이편이 매력이 잇다고 환영바씁니다 (영화배우로 본다면 「존•크로포-드」、「돌로레스•델•리오」、「마리-네•데드릿히」등 다상당한 열정가들입니다)

입술이 적은것은 녀자로서의 숙덕과 얌전한것을 표현하고 두터운 입술의 정력적이요 정감적이지만 옛날에는 극도로 적은 입술을 숭상한 것으로 보아 시대의 감정이 또한 변하는것을 알수잇습니다

◇

이번에는 웃입술과 아랫입술에대한 생리적 고찰인데 여기에대해서는「만테가쓰아」란사람이「연애생리학」가운데 에서 웃입술과아랫입술의 긴중를논한바가잇습니다。

「입술은사랑을주는 기관인 동시에 사랑을 바뎌드리는기관이니 웃입술은 사랑을주고아랫입술은 사랑을밧는다」하엿습니다

이것은「키쓰」의 경우를말한것이지만 이것을 가지고생각하드래도 아랫입술이 발스달된 부인네는 관능적 쾌락적이고 그와반대로 웃입술이 발스달된부인은 정이대단히깁고 이성에대해서 헌신적이란것을알수잇습니다 그럼으로 아래입술이 두둑한녀자는 주의해야 됩니다。농담 입니다만。아와가리 아래입술은 녀성의 급소(急所)의 하나인데 옛날부터 노는계집들이 아랫입술에 뻘건칠을할때 입술보다넓

목수의연장가튼 주부의식칼

날이 무디거나 녹슬면 음식솜씨는불문가지

목수가 연장을 무듸게 가진다는것은 그목수가 일을할줄 모르는것과 가튼것입니다 이와가티 주부되시는분이 반찬만드는 식칼을 무듸게 한다던지 녹아슬게한다는것은 음식을지을줄 모르는 사람임을 좌증하는것입니다 그뿐아니라 식칼에 녹이슬고 때가끼인것은보기에도 숭할뿐아니라 위생상으로도 대단히 조치못한 것입니다。

식칼을 깨끗게가지고 항상빗나게하며 음식을작만할때칼에 드지안허서 절절매기보담 웬만한석의만 가지면 가라쓸수 잇는것입니다 칼을가는데는숫돌(砥石)을 준비해두는데 식칼채는 돌은 보드러운 숫돌이라야만합니다

남을 식히지말고 손수가라쓰는것도 조흐며 아모수저될 것이업습니다。보통 시장에서 사쓰는 식칼은 안밖이 잇습니다칼가는데는 어안팟을잘알어서 가라야합니다 일본식칼가트면 칼날을 가만히보면글자를새인 상표가 보입니다 칼은 글자새인편이 안쪽이니 칼을갈때는 글자쓰이지안한쪽으로부터 먼저 갈기시작하여야합니다。

칼날을 두손으로 잡아쥐고것쪽과 숫돌을부채서갑니다 그러면 글자쓰인 안쪽이날이서게됩니다

한참 갈기를게속하다가 안쪽으로부터 칼날에 손가락으로 밀어보면 까끌까끌해젓슬것입니다 이것은칼날이섯다는증거입니다 그때에칼을 뒤덤처서 안쪽을 거트로 것쪽을안으로 너허서 두서너번갑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밧갓쪽이날이서게되는것입니다 칼을갈때는늘 칼과돌을틈이나지안케 부처서 가러야 하는것입니다 그러케하지안흐면 날이넘어서 도로혀 무디여지는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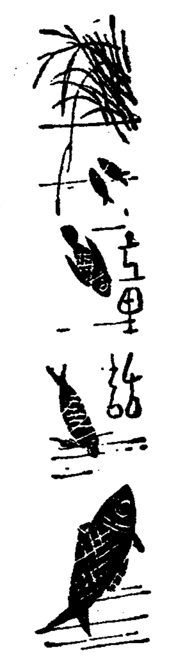
그바께 칼이안밧기업는것도 잇습니다

옛날조선칼은 모다가안밧기 업습니다 그것은 잘가라 노호면시장에서 산것보다 훨신 잘 듭니다이런것은 것트로나 안으로 할것업시 면방구어가면서 갈면 날이서게되는것이니 편리하나 녹이잘쓰는폐가 잇습니다 이것은칠을하지안코 무쇠를그냥녹여서 만든까닭에 철이산화작용을 밧하는까닭입니다

메뚝이

—(메뚝이이마는왜 번번하나?)—

康承翰



옛날 어느곳에 메뚝이한마리가 살고잇섯습니다。이메뚝이는 매우 자랑하기를 즐겨하여 모두 아모일이나 저혼자 잘한다고、떠들엇습니다。

그런데 어느여름날 우연히 메뚝이는 낭새와 개미를 맛낫습니다。

「어-낭새형님아니가?」

「오 메뚝이네아우 어딀 가댓나?」

「여기까지 오든길이야。」

「아차-개미도 언제 왓섯군! 너무 작어 보이지안허서 이러케 밟을뻔햇네 용서하게。」

하고 낭새가 하는말을 듯고 땅바닥을 보니까 참말 개미가 안고잇섯습니다。이리하여 세친구가 맛낫는데 자랑쟁이 메뚝이는 또 자랑을 떠노키시작하엿습니다。

「이거봐 낭새와개미친구야 저길좀 보라구。저기 낙시질가는 사람이 뵈이지안나? 참 낙시질하기는 매우재미잇서! 나는 요새 낙시질하여 큰물고기를 세마리나 잡엇서! 낭새도 아마 내가 부럽지?」

하니까낭새는 거짓말 듯기실타는듯이

「무엇?자네가 물고기를잡어? 하하하」

하고 개미와가티 웃엇습니다 한참만에 겨우 우숨을 멈추고

「그럼메뚝이 자네는 물고기를 잘잡는다는데、어디 자랑하는겸 우리에게 점심을 한턱내는겸하여 고기를 낙거오게그려。우리는 나무하고 물길어올께。」

하엿습니다。그래 메뚝이는이 말을듯고 신이나서

「참말인가?나는 자네들이 나무를거오고 물길어오기전에물고기를 잡어오겟네。」

하며 낙시스대를 둘러메고강까로나갓습니다。

메뚝이는 물고기잘잡는다고큰소리는 하엿지만 고기잡는 구경도 제대로 한일이 업는터이다 낙시스대를메고 강까로왓다갓다하며 고기잡을 궁리를하다가발을 잘못드듸어 강물에빠젓습니다。

「아시차。」

하는동안에어느새 왓는지붕어한마리조흔밥낫다고 집어삼키고 말엇습니다。

낭새는 물깃고 개미는 나무해가지고 돌아와보니 아직도 메뚜기가 돌아오지안헛습니다。한참 기다려도 메뚝이 그림자도 뵈이지안햇습니다。암만 기다려도 메뚝이가 돌아오지 안흐니까 낭새는 슬그머니 화가나서 강까로 메뚝이를 차저나갓스나 메뚝이는 강가에도 업섯습니다 그래 낭새는 할수업시 메뚝이를 찻지못하고 애쓰다가 강물우에 펄떡펄떡 뛰여노는 붕어한마리를 쪼아가지고 돌아왓습니다。

낭새와개미는 그붕어를 끌려먹을량으로 붕어배를 갈럿더니 그속에서 메뚝이가 이마를 손으로쓸면서

「에구 더워라。」

하고 소리치며 나왓습니다。

낭새는 그러케 혼자 잘잡는다고 떠들던 메뚝이가 그모양이 된것을보고 얄미운마음이 생기며 풀이나서 주둥이가 갑재이 빼죽해젓습니다。이때 개미는큰소리로

「하하하-。」

하고 대굴대굴 굴어가며 웃엇습니다。갑재이 빼죽하여진 낭새주둥이도 우스엽지만 붕어배속에서 나오며 이마를 치쓸어 이마가 번번해진 메뚝이가 우서웟든것입니다。낭새는 주둥이가 빼죽해지고 메뚝이는 이마가 번번해젓는데 개미는 어찌되엿슬까요?개미는 허리가 너무 우서서 허리가 잘녹하게가 늘어젓습니다。

지금도 자꾸웃으면개미허리된다는말이잇지안습니까?

—(쯧)—

보리차찌기

여름에는 맥차를 만히먹습니다 그런데 맥차를 먹고는 그찍기는 버리는것이 보통인데 이것은잘못입니다 이찍기는일광에 말려두엇다가 만히모두어지거던 벼개속에 너호면대단히 조흡니다 머리위생도조커니와 마음도상쾌한것입니다

감자는갓쩌서

지금부터 감자나고구마가 만히나옵니다 이것은 식으면 소화가잘되지안하는 것이니 될수잇는대로 뜨끈할적에 먹도록하는것이 조습니다

「비타민」은 열에약하다

—료리할때는알고할일—

사람의몸에는「비타민」이라는것이 절대로필요한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래에는 이「비타민」에대한 일반의인식이 기퍼저서 모다이것을 섭취하기에 로력하는것은 대단히 조흔일입니다 그러나 비타민이라하는것은 렬(熱)에 때단히약한것이므로 이것을 주의하지안코는 아모리 비타민을섭취헌데야 소용이업습니다

「비타민」중에는 「에이」「삐」「씨」가 특별히 일상식품에 필요한것입니다 그중에이는는 열에대한 저항력이 강하야 섭씨 백이십도까지의 열에는 그냥보존되여 잇스나 그한도를 넘으면 그만파괴되여 버리는것입니다

「삐」는 섭씨백도 즉물이끌을만한 더위에도 그만파괴되여버리는것이니 그이하로 가열하지 안호면 안되는것입니다

「씨」는섭씨칠십가량에 그만파괴되고마는것이니 「비타민」흐을케섭취하자면 생식(生食)하는것이 제일조흐나 생식할수업는것은 그저 형식으로 물기운을약간드려서 먹도록하는것이 조습니다 나물을 삶는데물을 만히 붓는것은 잘못입니다 그저복기지안흘만큼 물을언치고 디치는 것이 조습니다 삶는것은 물속에 귀중한「비타민」이모다 빠저버리는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이후부터는 나물을삼지말고 쪄서 먹도록하는것이조습니다

가정의화

잇몸에서피가나

문 생은 금년이십이세의 미혼남자이온데 매일아침세수할때 니를 닥글적에는 반듯이이몸에서 피가나와 불결한감을 끼치게합니다 무슨까닭일까요 간단한 처방을 하교하야주시옵 (市內齒口生)

답 흔히 이를닥글때피가 나는것이 치조농루증의 초긔인듯하니 될수잇는대로 자극이적은 치마약을 사용하야 보시요。치솔도 역시보드라운것으로 사용하되 차차강한 것으로 선택하시요 다음약으로도 잘낫지아니하거던 갓가운치과전문의사에게 가서 치석을 깨끗이글거낸다음 계속하야 조석으로 二차사용하야보시요

硼酸末 二、〇
薄荷油 十滴
丁香油 二滴
白色바세린 二〇、〇

一日二回乃至三回齒齦塗布摩擦

(世醫專齒科 金詰鷹)

《박》

넝쿨은 챙챙감는다。
동그런박통이
주렁주렁 달리면
묵어우니까
넝쿨은 집웅우흐로、
집웅 우흐로、
다릿술이 위테로워서
며츨을 기여올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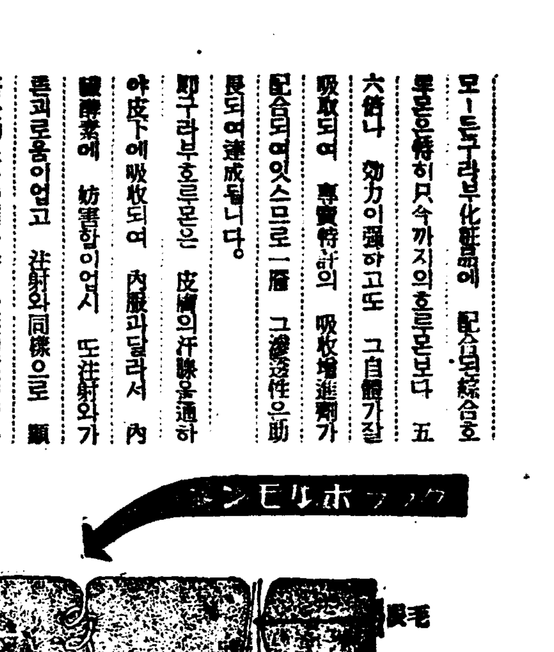
(글쓴사람 오정환)

皮膚에서吸收되여 若く美しくする

젊고아름답게됩니다

모-도구라부化粧品에 配合된綜合호루몬은特히只今까지의호루몬보다 五六倍나 効力이强하고도 그自體가잘 吸收되여 專賣特許의 吸收增進劑가 配合되여잇스므로一層 그滲透性은助長되여達成됩니다。

斯구라부호루몬은 皮膚의汗腺을通하야皮下에吸收되여 內服과달라서 內臟諸素에 妨害함이업시 또注射와가튼괴로움이업고 注射와同樣으로 顯著한効果를發揮하야 女性의福音이라고할만한世界의 자랑이젊어지는 호루몬입니다。



新秋美容에必須!誇張할만한이特長!

① 수름弛緩을防止 潑剌하게젊어저

暑中으暑熱과땀의 刺戟으로 衰皮는 活動이過激하야 眞皮는 非常히衰弱하여버립니다、新秋에꼭구라부美身크림으로 綜合호루몬을補給하여주십시요주름 弛緩을敢然히防止하고 潑剌淸新한살결로젊게합니다

② 紫外線을完全히遮斷하야벗꺼름을防止

구라부美身크림을外出할때 바르시지마시고 使用하여주십시요벗꺼름의 原因이 되는가을의 紫外線을遮斷하야벗꺼를 죽은깨 거미를防止합니다

③ 終日도록化粧이밀리지안는絶好의白粉下

구라부美身크림을白粉下로 써보십시요 白粉은濃淡이 업시잘먹고終日도록化粧이 밀리지안코시원한 여름化粧이됩니다

AM.4

最近製造綜合ホルモン含有

クラブ美身クリーム

구라부 크림

學藝

季節의除除 ③ 夢金浦雜記 (下)

梁柱東

하도 無意인 때에는 「夢金浦」란 地名의 由來를 생각하여 본다。「夢金」이란 무슨뜻일까。어떤 會社에 들어온 傳說가운데는 옛날 某士人이 浦上에 來留하면서 金山을 꿈꾸엇다하여 그곳을 夢金이라하엿다는 말이 잇는듯시 記憶하나、그런 傳說은 저곰 남아잇지안코 또 說明잇다하여도 그것은 近世漁夫老人의 附會說에 不過하다。俗客中의 어떤이는 朝鮮各地方에 金字든 地名을 가진곳은 거의金을 産出한다하면서 어곳도 昔날엔 金山이 잇스리라한다。이야말로 不推古人의 夢金이오、今人이 又「夢金」이다。

夢金浦는 그地方사람들이 모다「몽구미」로 부른다「夢金」은 그原名「몽구미」의對譯에 不過한것이다。그러면 위선「구미」는 무엇인가。이말은 그附近地名에 종종 나오는말이니、例컨대 西洋人의 誤譯으로有名한 저「九味」浦(或作九美、구미人개)가 그一例다。西海沿岸에는 무슨「구지」、무슨「구미」라는 地名이 甚多한데、구지는 周知함과가티 串、古義嶼으로 쓰어지고 미의 語어니와、「구미」는「곰」(岸)의 古語에 「곰」어것으로 보아 곰(岸)이 語尾의 訛轉인것이 분명하다。다음「몽」은 무엇인가。「몽」은「먼」(遠)의 音韻轉化다。即「먼곰」이 變하여서「몽곰」이된것이다 「곰」(岸)이 語尾하게 ○音으로 化하는것은 이를테면 英語에도 link, bank 가 適例인것과가티 東西의通則이다。생각하건대、夢金浦一帶의 沿岸이 甚히 迷遠하므로 「먼곰」(遠岸、遠浦)이라 이름하엿든것이「몽구미」로轉稱되고 다시「夢金」이라漢譯된것이다。

昨年에 내가 [illegible] 一家에 나는「[illegible]」三字를써서 서로上에 부치고 바라보다가 그대로 잇고 도라왓더니 수年에 가보매 아즉 그대로부터잇든것이 반가웟다。今年도 그곳서 一個月을 [illegible] 나는 八月中旬에 도라왓스니까 [illegible] 漁村이라、아모 素朴한 [illegible] 主要한 風景을 構成한다는 [illegible] 曲線美도 [illegible] 보이지아니하므로、浴客들中에는 도라갈때공연히 왓섯다고 後悔하는이도 만흔모양이나 나는 今年에도 相當한 내딴의 자미를 보앗다。나무다리가 조코、砂丘가 조코、金沙에 寫照가 조코푸른바다에 흰돗이 조코黑山이 [illegible] 모르나어떠튼 海蔘맛이조코 그뿐인가 村사람들이 나가는 머느리가 다시드리온다고 [illegible] 서(나가자엿스면 [illegible] 하엿만) 論란는 맛에 조코 가자는것을 계울면서 가보지는안핫스나 때라고 長山串도라드는맛도 조타하고、무엇보다도 [illegible] 다。今年에는 [illegible] 도 한것이적어 [illegible] 지 [illegible] 아니다。明年여름에 또 [illegible] 거든、이번에는 [illegible] 보고 沈淸의「인당수」도 보고 讀書는 무룻 一百餘篇을 지여야 하것다。그러나 그리자면 못처럼 休養자로 간것이「閑日月」이 되지못하겟스니 그도 또한 걱정이다。呵呵

文章論 現役作家들의 伎倆

—그들의個性과領分에關한小考—

① 安懷南

나는 요새 水泳에熱中하고잇섯다。언제나 深體로 돌아다니다 거만하다가 벼라간 現役作家들을 網羅하야 그들의 文章을이야기하게될에 색삼스러히 부드러운空氣와 潑剌한日光이 그리워지며

……索……漠하고 不安함을늣기게된다。그러나元來 批評이라는것은 이러한 感傷을 消滅하여 버리는것이 여간 自己의힘이 不足하더라도그 主觀을 巧妙히 粉飾하여가지고는 보라는듯시 披瀝하는것이우리 批評하는사람들의 常套要警策이다。나도 批評家는 아니지만 鐵筆과原稿紙가 잇스니 한번 見習을 해볼텐데 이것은決斷코 批評家들을 揶揄하는말이 아니라 정말 이拙文이 見習批評이 되기를 希望하는 탓이다 남의 文章을 이러니 저러니 褒貶하는것가티 까다롭고 어려운일은 업슬것이다。

于先 基準이업서서 할이다。孫基禎君처럼 마라손에나가서 一等을하면 時間記錄이 첫재임을 表示하여주는 外에 二等 三等들과의 距離가잇서 눈에 빤한 노릇이지만 文章에 잇서서는이러케 簡單明瞭하게 안된다。一等을 헤서도 조쥐처럼 안보이고 보여다 하드라도 월로 一等이냐고 是非를걸면 뒤풍수를 칠수밖에는 업스며 二等 三等甚之於는

……等…… 外까지 내로라하고 판을치며 跋扈하여도 亦是 時間記錄과 距離測定이 確的하지못하야 할말이업다。在來의 法則과傳統을 無視하고 오늘날의 文章이 無政府狀態에 잇는것도事實이자마는 文章은 마라손이 아니라 實로 올림픽이어서 그 內容과 目的이 서로 웨異하는것이다。小說에限하여서만 보아도 各各 立場이 다르다。高岩 短距離와 走高跳와 마라손을 混同하여 가지고는 短距離의 첫재가 마라손의 첫재보다도 조코 走高跳의 꼴지는 마라손의 꼴지만도 못하다 하는 따위로 批評을하게되다면 이것처럼 더센스한일은 업슬것이다 一等文章이니 二等文章이니 하는소리는 우숩지만 文章에도分類가 잇기는 잇슬것인데 아무리 現役作家의 作品속에서만이라는 一定한範圍안이라도 올림픽과가티 複雜多端한

……文……章의批評에 잇서서는 항용 短距離와 走高跳와 마라손을 混同하기가 쉬운것이다 「文章은 즉사람이다。」

벳날 高山樗牛이라는이가 이런 말을 하엿다는데 이것과함께該名句와는 아무 聯結이업는 딴意味의 생각이 지금 나에게난다。假令 安懷南以外에 더조흔 安懷南과 아주나쁜 安懷南이가 업는것처럼 이며 印刷發表된한 文章에 잇서서도 그것과 똑가튼內容 同一한條件의 文章은 둘도업는것이고 單只 하나인내가 어떤사람에게는 善人으로 누구에게는 惡人으로 될수잇는것처럼 亦是文章에 이르러서도 오로지 批評하는人物의 主觀에依하야 그것이 左右되는것이 아닌가한다。그러나 客觀的으로한 사람이善人 惡人 둘中의 하나일것만은 움즉일수업는것이며 文章도 藝術이니까 對象으로 한것을 直截簡明하게 表現하고文體 평범 修辭等에 가서도 훌륭하게 되엿스면 조흔文章이요 그反對가 나쁜文章이지 그러케 簡潔하게 區別할것이 무엇이냐고 하겟지만 이것은

……批……評以前의 일이다。어떠한 詩를 조타 한 小說을 나쁘다 할수잇는 양으로 文章에서도 그러할것이라 생각되지만 딱 다러보면 文章의 批評이란 小規模인것 가트면서도 作品批評에 견주어 文章의 普通짜다러우며 範圍가 넓고 깁다。善惡을 갈으기에 마즌 理論的根據와 何等의 基準을 發見할수업스며 더구나 그普遍性을 밥하기에는 全然 不可能하게 생각되는것이다。他人이 조흔人物이라고 하는사람을 나는 그러지안라고 하는것과 한가지로以下 내가 惡文이라고 引例하는것도 다른이들에게는 名文으로 쳐斷되는수도 잇슬것이요 내가 名文이라고 推薦하는것 또한그들에게는 惡文으로 誹謗될는지 몰으는것이며 그것은 할수업는 노릇이라고 認定한다。抛稿가僭越한 作文講義가 되지말고 오히려 穩健한 見習批評을 바라는것도 우의 여러가지點을 念慮함으로 써이다。

○…○…○…○…○…서늘한『테라스』

移……民……文……學……의 過去와現在

⑤ 韓植

最近에는"만"의一族 自己의女息이"에리카·만"까지도 國籍을剝奪당하고 追放당하면서도 또일즉이 翰林院의 地位로부터는 追出당하엿스면서도 國內에 짓더잇든"토마스·만"까지도 나치스의 壓迫에 견되지못하야 (瑞西)에逃亡하엿다고한다。

어듬 移民作家들의一部分은 和蘭의 首都 "암스텔담"에잇서서 昨年八月까지發行한 文藝月刊雜誌 "듸·잘룽"(파合)을 中心으로하야 活動하고잇섯다。"토마스·만"의아들 "크라우스·만"이 編輯하야"에룬스트·토라" "아-놀트·쯔와이그"吟誦詩人" "바이빌트" "猶太人쥬스"의著者"리온·포이트왕카"들이 모다執筆하고잇스며"자[illegible]드」"三루파"로망"『하스리』等의 世界的의文豪들이 外國으로부터 積極的으로 支持하고잇는것이다 그間에잇서서 그編輯者이고中心인"크라우스·만"은『암스텔담』에서 移民後의 生活體驗을그린小說『北方에의逃亡』을發表하면서 여러가지로活動하고잇다。또한편 체코의首都프라-그에서는『안나 세르겐스』女史가 編輯하는 『노이에·도잇체·블렛텔』(新獨逸雜誌)가最近까지刊行되고잇서서 가장 活潑한 移民作家들의 두雜誌가 되고잇섯든것이다。그外에巴里에서도『데아·슈럽로트』『슈럽안』(文章家)等이 出版하엿든것이며 最近에와서는

(七月) 부터 『모스크바』에서 『獨逸移民作家』 一團이 『文學雜誌『다스·불트』(言語)를創刊한다는消息이잇다。그의編輯者는"부레히트" "포이트왕가" "부레-델"의三人으로서、特別寄稿家로는、"토마스·만" "벡헐" "쯔와이그" "킷슈" "도라" 等이잇서、昨年가을에 發刊이中止된"잘룽"의後身과가티속後의活動이 期待되는것이다。프라-그에서刊行된 『노이에·도이체·부렛텔』은 前記"잘룽"보담은 좌신左翼的色彩가 만혓스며 그에 執筆 한사람들도 亦是左翼的의立場에서잇는 사람들이關係를 만하고잇스니 "벡헐" "부레멜" "킷슈"等이 協同하고잇는것이다。그間에잇서서"青酸加里"의著者 "보르프"의 千九百三十四年二月의 인暴動을 取材한 小說 『프로릿-쯔의 女人들』 나치스의 猶太人迫害의實例를 生生하게 그린戱曲『만하임教授』『부레멜』의 나치스"쿠-데타"가 發生하엿슬때의 그自身의 經驗을 主題로한 小說『試練』等만흔 作品을 生産하엿든것이다

그리하야 그어느것을 勿論하고브락테스가 看破한때부터의移民文學의 傳統的 生命의 發展으로써 今日에잇서서의 獨逸移民文學도 그들사이에

(多少)의 差異는잇지만은現在에잇서서、그들이한글가티 안티파시즘의 푸론트에 잇는것은 明白한事實이며、또必然한 結末이라고하겟다。그것은 一九三五年六月末에 巴里에서開催된『文化擁護國際 作家大會』에 參加한 그들의 活動으로서、充分히 立證 되는것이다 이大會後에는、"잘룽"誌가 다음과가티 말한것은 더욱그들의 本意를 明白히 하는것이다。『多數의 本質的으로 歐羅巴를 代表하고 잇는 作家가 參加하고잇는 이 大會는 두가지의 큰課題를 가지고잇다。即 이大會는 一面에 잇서서 데몬스트레이슌-그들의 敵인파시즘에對한 모든 안티파시즘의志向을 가진사람들의 데몬스트레이슌이엿다。他面에잇서서는 討論-모든안티파시즘의志向을 가진사람들이가저야할 또 그러한사람들이 그것을 基礎로 하야 싸우지안흐면 안될道德的 知識的基礎의 討論이엿다。』

나의關心事 가재미·나귀

白石

東海가까운 거리로와서 나는 가재미와가장친하다 광어 문어、고등어、가재미…생선이 만치만 모두한두끼에 나를 즐겁게하고말다。그저 한업서착하고 정다운 가재미만이 힌밥과 빨안 고치장과 함께 가난하고 쓸쓸한 내상에 한끼도 빠지지안코 올는다。나는 이가재미를 처음구錢하나에 벌가웃식되는것 여서마리를 바더들고와다。다음부터는 할머니가 두드럼 마흔개에 二十五錢식에 사오시는데 큰·가재미보다도 자근것을 내가 조하해서 모두 손길마룹한것들이다。그동안나는 한딸포 어고을을 떠낫다와서 오랫만에 내 가재미를 차저 생선장으로 갓드니 섭섭하게도 이름선은 뵈이지 안햇다。음력八月초상이되어서야 이내친한것이 온다고한다。나는 어서 그때가와서 우리들힌밥과 고치장과 다만나서아츰저녁 기쁘하게되기만 기달린다。그때엔 또二十五錢에 두어드럼씩해서 나와가티 이물선을 조하하는 H한테도 보내어야겟다

東海와 宋廣과 敎會學과의 사이에서 生命과愛와靜을생각하기조흔 愛翼里를 떠나서五百年오래된 이 고을에서도 다못한곳 例날에한리지안흔 中里로와다。예서는 물보다 구룽이 떠만히 조르는 城川江이 가까웁고또 白帽冠線의 씨허연 눈도바라뵈인다。이곳의 좌우로긴 伏달들어 맛을고놓어선 줄은 골목이 나는조타。이골목의 空氣는 하이야니 밝앗의내음새가난다。어골목을 나는 나귀를타고 일어시 와다갓다하고십다。또 예서 한五里되는 학교까지 나귀를타고단니고십다。나귀를 한마리사기로햇다。그래소장마장을가보나 나귀는 나지안는다。촌에서 단니는아이들이 잇서서 수소문해도 나귀를 팔겟다는데는업다。얼마전엔 어느아이가 在來種의 조선말 한필을사면 어떠냐고한다。갓을을엇드니 한五圓주면되다고한다。이좋말로할까고 머리를기우려도 보앗스나 그래도나는 그처량한당나귀가 조아서 좋터 이놈을 구해보고잇다。

白頭山探險의科學的成果

白頭山登攀의 高山衛生學的考察

② 醫學博士 申聖雨

『잇데룸푸』氏는 『아려카바노』부터 『캬노』에向하야 5000米高地를 徒步하는中 1千米中間地에와서야 비로소 發病되며 오히려 그以上 高山地에서는 아모障害도 無하얏다고 말하얏다 『히마라야』山脈에 在한 山岳病에 觀察도만히잇스나 1812年 『니디파쓰』山에 登山한 모-르크름트』氏의 報告에 依하면 何如間 疲勞感 呼吸困難等 症勢가 有하며 其他手部 項部 顔面部에 充血 皮膚의痛症 口唇部로부터 出血을 보게되며 睡眠中에 窒息感 등이有하야 때때로(金剛기)에가쉬고나면 呼吸이 조곰 便하게되는것을 알겟다고말하얏다。

其外에도 日本에서는 東京醫專上林氏가 長野縣山岳에研究所를 設置하야 研究한報告가 有하며 小田俊三氏가 中學時代(明治三十二年夏) 富士山登山時 其全員이 激甚한頭痛과 徒步疲勞(빈슬기룸)이 有하며 頭痛과어질 症으로 因하야 終夜도록安眠치못하얏다고말한다 以上말한바 以外에도 西洋文獻이 만흐나 如此한 方面에 特殊한 研究者에게 參考될만한 歷史的考察은 不必要함으로 大略山岳病이란 엇더케하야 알게되는 事實과 또大略如何한症이 잇는가에 對한 觀念만이엇게될程度에 限하야 論하얏스니 讀者 諸氏는 諒解하기를 바란다

高山病(山岳病)의 症勢

【第一】一般症狀으로말하면 첫재로頭痛、그頭痛症은 感氣기운이 잇슬때의 頭痛과는 조곰달러서 머리가 무거운症 腦貧血感卽感覺的으로말하면 腦內壓迫感이有한것이다 其外에는 全身倦怠의 感이니 登山으로 因한 疲勞症 程度以上의 倦怠의 感을늣기게 되다 또夜間安眠이 障害되야其 程度에 따려서 甚하면 不眠狀態에 빠지고만다 精神이 흐려저서 意志가 鈍하야저며 어질症卽眩暈症이 生하야 船中에배멀미와가른病症을 맛나게한다따라서 心思가 不安하야 沈着한 態度를 缺乏하게되는것은 勿論 思索困難으로 生覺이맛치지못할때가잇는것이다。其外 甚하면筋肉痙攣痙攣發作、(即자개바람)等을 볼수가잇스며 때때로 失神狀態에 빠지기때문에 精神을 일는수도잇는것이다。

【第二】心臟症狀으로는 胸內窘迫症卽心臟이 잇는部位에 一致되야 가슴이 놀리는것가튼症과 心悸亢進 即가슴이 울렁울렁하는 所謂心性快症이 發하며 脈搏數는 增加되야 所謂速脈이되며 不整脈 卽脈博이 正型으로 뛰지안코 不規則하게 뛰는故로 脈파 脈사이가 或은 短 或은長하야 不平한 狀態에 잇는것이다 血壓은 普通高地를 힘드려올 나갈때에는 若干 노파진다하드라도 結局은 普通以下로 下降되는것이 原則이라한다 元來血壓은 人種 年齡 性別에依하야 甚大한差異가 有한것이요 個人의 身長體重 血液의 性質 血管系統의狀態(硬化症의有無等)血管을 支配하는 血管運動神經의 緊張狀態에따라 影響이 有함은 勿論이나 其外에 氣壓 氣溫 溫度及 身體運動 精神感動에 따러서甚한影響을 바들뿐外라 食物攝取 體位 睡眠 特히婦人에잇서서는 月經과의 關係가기픈것이다 이와가리 諸般條件을 考慮하야測定한 結果登山者 特히高山地帶에 在한人體血壓은 結局 最高血壓의 減少라고 말한것이다。

如此한 血壓下降은 生體에對한 微妙한氏護調節의 現象이라고보겟도다

【第三】末稍血管症狀으로 첫재 四肢가厥冷手足或은 口唇鼻尖部의皮膚의 暗紫色을 呈하나니이와가튼 症은結局酸素의缺乏으로 組織循環이 不完全하야 炭酸이 沈積한 緣由라고 보겟스나 또 一方血壓의 下降도 關係가有한것이다 이와가티 末梢血管에血液性質이 變化함으로 因하야顔面이 時時로 蒼白하야지며 顋寒의 發作이 生한다 이와反對로 時時顔面潮紅症이 有하야恰以히 술에醉한것가티 얼굴이 붉그레하며 末稍血管의 破裂로 因하야 鼻出血의 性質變化로 因한 物理學的溢出性 出血 或은 毛細管破裂에依함이다

【第四】呼吸 症狀 高山 地帶에 氣壓이 稀薄한 緣由로 發生되는 呼吸狀態는 多數學者의 觀察에依하야 一般的으로 增加된다고말한다 普通人平靜時에는 1分間에 16-17回라 보겟스나 高山地帶에 在하야는 18以上의 回數하고본다 如此한 呼吸數에 關하야는 (Mosso A. Loewy)며 Hasselbach u Lindhard氏等은 增加說을 主張하며 後藤氏 亦 呼吸增加說을 主張한다 如此한 呼吸數增加는 酸素供給으로 因하야 輕減할수가잇다는 實驗에 依하야 明瞭하게 되엇이다 勿論 徒步 或은 高山을 허덕어리고 登山한 卽後에 觀察한呼吸數量말하는것은 아닌것이요高山地帶氣壓이 稀薄한 地에 安靜狀態에 잇슬時에 觀察한 結果로서 斷言한바이다 故로 呼吸이 週期性으로 나타나 때때로「기숨」을 쉬게되며 胸部가 쯤한症이 나타나는것이다 如此한症은 卽酸素의 不足으로 血液內炭酸이 鬱積되야 卽 酸素炭酸에 瓦斯交換이 不充分함으로 因하야 呼吸이 困難되는것이다 아까말한바와如히 末梢血管系障害 亦是炭酸의 沈積으로 因하야 末稍皮膚에 暗紫色을呈함으로 手足等이시퍼렇게되는것이다 甚하면 肺에 細小血管이 破裂되야 出血 即肺出血이 되야서 所謂血痰을 뱉게되는것이다。

【第五】消化症狀、消化症狀으로 말하면 各個人의 飮食物關係와 生活狀態의變化으로 因한 諸般條件이 必要한것이나 大體로보면 惡心 嘔吐 속이메스꼽고 結局 甚하면 嘔吐기까지하며 食慾은 不振하야口味가 적고 原則的으로 便秘와 鼓腸 (배속에瓦斯가 차서잘나오지안는症)이 甚한것이다然이나 白頭山城地帶에 在하야如何한 胃腸症狀을 나타나게 하는가에對하야는 次項에서 論述코저한다。

【第六】聽覺에는 耳鳴症 耳痛症 或은聽覺障害等을 症狀한다고 말한다

【第七】眼部에는 結膜充血症을느

科學 將來의兵器

主로電氣用品에關하야 (6)

方聖熙

그럼으로 어떤振動數를 가진 電波가 自己와 同振動數를가진 金屬類의 電氣導體라든가 電路에 부듯치면 이電路 或은 金屬에 振動電流를 誘發하며 同時에 其電流로因하여 熱을 發生하고 或은『스파-크』(電氣火花)를 發한다

(A) 機關에 對한作用

飛行機、自動車等 內燃機關에는、燃料油의 蒸發된 氣體를 點火爆發식혀『피스톤』을 運轉하게하는 點火裝置가잇다 萬一 이點火裝置가 電流를 誘發하기에 適合한 電波의 投射를 敵으로부터 바덧다하면 이點火裝置에 一時에 큰스파-크를 發하여 點火裝置가 高熱로 因하여 融解하여버림으로 어機關은 即時故障을이르켜運轉不能케한다

그러나 事實로는 電波의 波長을 目的物에게 電流를 誘發하기에 適合하도록 調節하여야하며 또有効距離가 短少한缺點이 잇슴으로 아직遂達한 感이 잇다 또 萬一電波를 目的方向에만 射出치못하고『라디오』의 電波와가티 四方으로 放射한다면 電力의浪費뿐만아니라 自己便의 兵器조차 害할念慮가 잇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目的方向에만 放射할수잇는 裝置가 近年發明되엿다 그뿐더러 어떤機關을 金屬板으로 被掩만하면이 電波의 能力을 完全히 阻止할수잇는것이다

(B) 人體에對한作用

人體도 電氣의 한良導體임으로電波로써 人體內에 電流를 誘發식힐수잇서 物理實驗室敎授局等에서 한사람과 또엇던 他人이 接近하면 其兩人體에 『스파-크』가 發하는일도적지아니 그러나 決코이것으로人體를 傷하는일이 업슬뿐더러 近年所謂電氣生理學이라하여生物의 組織에對한 電氣影響을 研究하는 新科學이 發生하엿스나 아주實驗은 幼稚하며電波의 波長을 紫外線만큼短少케하면 이것이 果然人體組織 或은 其細胞等을 共振케하여 破壞或은 滅殺식힐수잇는지는 疑問이며 아직研究에 바라는 수밧게업다

3、紫外線과 電氣或은無線電氣를 利用하는것

紫外線은 前述한바와가티 空氣의分子를 分離한다 原子(陽이온)로 分離된다 이分離된 空氣는 電氣의良導體임으로 電波를 電氣와가티 電流를 通하로 空氣를 電離식히면서 高壓電流를 誘發하여 이高壓電流로서 『스파-크』를 發케하여 或은 電氣裝置를 破壞하며電氣으로人畜을 殺傷하고 或은 火藥의 爆發 火災等을 일으키게할수잇는것이다 그러나實際는 紫外線이 空氣를 電離하여 이空氣가 갓는電氣傳導性은 極히 微弱한것이니 軍事上의 效果는 퍽薄弱한것갓다 또 紫外線과 電波 或은 赤外線 ×線等을 並用한다는發明家도 잇스나 結局은 모다가 電磁波이여서(2)에서論述한바와가티 別로 怪力線의作用을 發揮하리라고는 밋기어렵다

4、其他의 放射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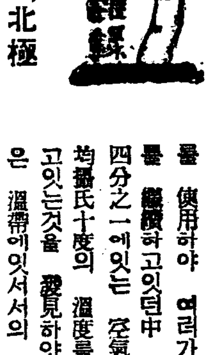
A、X線 普通光線에對하여不透明한 物體를 透過하는 性質을갓고 金屬(特히軍器에使用만흔알미뉴-ㅁ等比重이 小한金屬)지도 透過하며 人體에 透過하生理作用이잇서 組織에도 侵用되나 有効距離가 極히短小하여 問題도아니된다

B、放射性素에서 放射되는 α線 β線等도有効距離가X線만도 못하다

C、其他 旣知範圍內의 放射線中에서는 別로 問題될것이 업고 毒瓦斯 毒液 彈丸等의 放射는 旣知兵器임으로 略한다

5、現在學界未知의放射線

科學進步에 따라 現學界未知放射線을 發明하여 兵器에利用한다면 未知放射線의 發明만으로도 偉大한 貢獻이겟스나 아직學界에 紹介된바가업다



攝氏十二度의北極

北極의 上層空氣層은 길고긴 北極의밤에도 늘따뜻하다는것이 判明되엿다 發見者는 스트쓰크氣候學研究所 所長모르차노푸敎授로서 同敎授는 프란쓰·요셉島 티카이야灣의 北極研究所에서 自動라디오氣球를 使用하야 여러가지 調査를 繼續하고잇던中 地上一哩四分之一에잇는 空氣層은 平均攝氏十度의 溫度를 保持하고잇는것을 發見하얏다 이것은 溫帶에잇서서의 同高度의 空氣層의 溫度보다도 더노픈것인데 同敎授의 말을드르면 이것은 太陽의輻射와는 全然 無關係로서 아마地球의 自轉에依한 遠心力에 影響되여서 따뜻한空氣가 北極에 移動하는까닭이 아닐가한다

南畫會創立

南畫同好者끼리모혀 南畫의 向上普及을爲하는意味로 金致熙、宋致憲、李建楠、李完榮、金秉郁等 諸氏들의發起로 자난八月三十日에 南畫會를創立하야 事務所는 市內勸農洞同書會館에두며 毎週一回式研究會를開催키로하는데 先生은小亭 卞寬植氏이라고한다

讀者社交室

▲仁川府內에 한가하고非營業的인 下宿房이有하시면 社交室로通知하야주시면 感謝하겟습니다 仁川求宿生

▲商船學校와 高等商船學校所在地를가르처주시요 一讀者

▲二十八日附載寧諸生에게答함 貴下가뭇으시는 測量講習所는忠北大同이아니오 忠南大田이오니 大田測量講習所로 學測을請求하여보세요 全南土木課一卒業生

▲漢城圖書株式會社 發行雜誌 『學燈』第十九號를 求합니다。보내여주시는분은感謝하겟스며 同誌第二十號나二十一號나二十二號(新年號)나 또는代金을元價로希望하시는대로 곳送呈하겟나이다 大德郡鎭岑面南仙里 鄭相瑛

▲求文事同業者、相當한敎養이 有하신분으로서 將來文學方面으로 立身하실분을求합니다 小生計畫이爲先堅實한雜誌發刊을 謀策하고잇사오니 有意하신분은資金有無와計畫書等添付하셔서下記住所로通知하여주시요 市內平洞七五의一〇 朴影

▲水原계신 讀者여러분께告합니다!水原出生으로 少年運動과 水原勞働組合委員으로 多年間活躍하시고 童謠作家로 名聲이놉든 李奎仁氏가渡米하셧다오니 住所를아시는분이계시면 社交室로通하야 알여주서기를 千萬伏望하옵니다 京都 金生

▲저금全羅南道에就職하고잇는 讀者列君의 居所를 아시는이는 左記住所에알려주시면 感謝하겟습니다 扶安郡井山面舊村 崔萬祐

▲大田계신 探定氏여!兄의 憂否를 뭇고시프나 住所不明하와 뜻대로아되니 兄의住所를 紙上으로 물지하시든지 直接下記住所로 片紙하여주서요 下記住所로 今年봄에 全北에울물하엿습니다

▲『アルス』社에서 昭和三年度에 發刊한『建築大講座』中三、五、六、七、九、十三、合해六册을讓渡코저하오니 留意하신분은 左記場所로 照會를希望 京城府新設町一五六ノ二號 심가

▲七月十四日附下揭月井里李根根氏에게答하나이다 貴兄께서 欲知하시는朝鮮水利組合令 及朝鮮土地改良例規等冊子販賣住所는 京城府太平通二丁目四十四番地 株式會社 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本部에서 發行하옵기 玆以通知하나이다 平北龍川郡楊下面盤石寺 文隱生

▲鄭茂鄕氏 당신은 지금어느곳에게시난지요 섭섭히 헤여진지가 벌서 일년이넘엇습니다그러 당신에 消息은 제가잘보관하여두엇습니다그리고 놓사지를 보며 위로하여가는중입니다 지금京城에계시난지요 左右間住所를 알려주십시요 鄭鴻者되시는분께서 알으지시면 左記住所로通知하여주시면감사하겟습니다市內南大門自動車學校를 단여섯습니다 府內峴底町四六의四七八金京煥

▲六月九日付本欄에가나다生는先生!作歌하신것 저의게보내주시기를바래나이다 한번作曲해보겟습니다만 或流行歌는지어보시지안켓는지요? 水下町二九番地一二三號 李方 吳浹卿

▲諸先生님中 在米시카고에게신李承文相氏(年令四十三歲 在留二十餘年) 近況을아시는분이 계십니까 或은此人의近況을 알라면 어떤方法을쓰면 조켓습니까 約四年前부터 一切無消息입니다 親切하신분은 左記住所로 市內勸農洞 一二二番地 李燦世

▲六日讀者欄에問議하신一讀者에게 小生도晋文受驗準備中아오니 저로交通하여주시면 感謝하겟습니다 小生에게 直接問議하여주시면 問題集其他參考書等無代로分讓하여 드리겟습니다 그러면 成功을빔며 平北北鎭 一三五 孤影

▲左記二間을本欄으로나 左記住所로通知하여주오면 感謝하겟습니다

一、丙辰年冬至月初一日이면 陽曆으로何月何日입니까?

二、朝鮮語로만든 大衆說集을어느書店에서發行하는것이 第一조흔가요?

三、靑年들에게 修養될만한論文集은 어떤것이조흘니까?

滿洲國琿春新安町 崔龍寶

▲宋榮觀氏에게答합니다 現下이方面(機械建築)에뜻하는이가듬은朝鮮에잇서서 당신의立志는매우반가는일입니다 問議하신前記두가지다 各其通信講義가잇스며 建築만은京城에도 夜學機關까지잇습니다 詳細는面談하겟사오니 來訪하십시요 京城府桂洞町 一四〇ノ一四 金建築事務所

▲今月十二日 社交室을通하야 家庭敎師를 求하신다고하신분에게答합니다 이제꺼家庭敎師를定하시자못하시엇스면 左記住所로 通知하여주시요 小生은 今年에 二十五歲인 女子이오데 벌서부터家庭敎師를 求하여사오나 이때까지한곳도 업섯습니다 먼저도家庭敎師로 여러해를 잇사와 경험도만습니다 京城府蓬萊町四丁目二〇一의八 姬上

▲저는二十三歲에 流行歌에뜻을 둔 男子입니다 그런데某蓄音機會社에서 男女歌手를 募集한다하오니 資格은不問하고서募集하는지요 그리고採用方法은어떠한方式을 取하는지요 아시는분이 계시면 社交室을通하여알려주시면 感謝無比하겟나이다 八月二十九日 鐵路五丁目 ROS

▲求婚 本人은三十歲男子로今春에 喪妻하고 求婚中今月二十二日本紙社交欄記事를보고뜻이잇삽거로 記載하오니住所와內容을左記住所로 問議하여주시요 [illegible] 二年修業 財產은前보다업나이다 鐵原郡金沙面上虎里(某商店)內

新刊紹介

▲[illegible] 八、九月合號 發行所 京城府[illegible]五丁目七九 振替京城一一八七〇番 定價十錢

●中央 九月號 [illegible] 動向 [illegible] 臥風

●新[illegible] 第八卷第七號 發行所 [illegible] 振替京城一八、二 [illegible] 定價五〇錢

第二日從來大公開
シーズン第一陣に放つ[illegible]
第一回 午前十一時三十分
第二回 午後 二時〇分
夜之部 同 六時五十分
新興キネマ特作[illegible]
原作 林不忘
監督 石上[illegible]
オールトーキー
魔像
阪東妻三郎一人二役主演
藤野秀夫、歌川八重子 特別出演
新興キネマ大衆[illegible]
監督 田中重雄
報知新聞連載
原作 小島政二郎
オールトーキー
薔薇ならば
伏見信子、河津清三郎主演
姬宮接子、田中春男、菅井一郎、田中筆子助演
廿世紀フォックス超特作日本版
原作 アレン・リヴキン
監督 アラン・ドウアン
洋上の魔
エドモンド・ロウ主演
永樂町 電本[illegible]番
中央館

上映時間表
9月2日ヨリ8日マデ

	1回	2回	3回
お化け花嫁	12·00	3·25	7·00
カイロの戰慄	12·43	4·04	7·45
素晴らしき空想	1·55	5·13	8·59

入場料 40錢 60錢
電本260 浪花館

青春座公演第九週
八月二十七日부터晝夜
一、悲劇 林仙主作
사랑에속고돈에울고 續篇 三幕
名作悲劇『사랑에속고돈에울고』는 [illegible] 上演하게되엿다。生命보다도重한사랑을빼앗기고 [illegible]
二、新喜劇
三、喜劇 以熱治熱 一幕五場 洛山人作
午前二時부터九時까지
東洋劇場 西大門町電光 [illegible]

八月廿九日封切(六日間)
生涼九月第一週特別興行
毎日三回(午前十一時 午後一時半 六時半)
◆英國BIP超特作映畫
音樂指揮·樂聖말콤사전스博士
名歌手세실루이스監督
마그리타·나마라主演
世界的歌劇
갈멘
◆英國映畫史上空前의壯擧、本年度銀幕界의一大에폭이된名作、以上의完全無缺한歌劇갈멘再現은今後에도萬無하리라(本社獨占封切)
◆JO、超特作映畫
原作脚色-西條八十
監督-永富映次郎
勝太郎の子守唄
日本비크타名歌手로全日本을風靡中인勝太郎의자장가로 [illegible] (本社獨占封切)
◆에이스社特作映畫
세이·씨·루監督
妖鬼잉아
團成社

連載野談

布衣記 (六) (不許複製上演)

申鼎言 作
金熊超 畵

선의잇는편에 (三四)

백운국선이 김천의 말을 들은후 크게 놀내며
『아아 그 군마는 분명 관원의행차。관원이라도 다른관원이아니오 필경 무진태수의관하(管下)에잇는 정주(停主)。그러면 우리를 보고 말이업서 지내리가 만무한일。아아 낫처도 한일이로군。나와 제후소저와 짐자리에서부터 배떨될것을 면약한것은 세상이 다아는일。또한 내가 안맹이 된것도 세상이 다아는일。그래서 그언약을 깨트리고 리교평과 제후소저가 혼인하게된것도 역시 세상이 다아는일。그러귀늘 저관원이 나를 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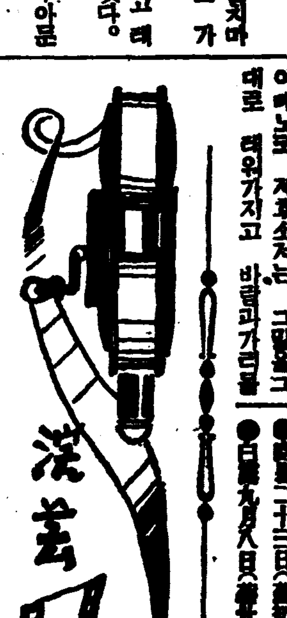
군사자 역시 큰소리로써 대답하얏다。
『잘못알고 물은것을 허물치마오。그런데 태수아문으로 가는길이 어는길요。』
하며 김천은 시치미를 떼고 태수아문으로 가는길을 물엇다。
『바로 이길이 그길!』
하며 그군사가 또한 태수아문 가는 길을 알려주엇다。
이때 김천은 잡엇든 말머리를 그찬란한 투멈을 피하기위하야 거짓 길을 사양하는양으로서 한옆으로 물려세웟다。
대저 그군마는 다름 군마가 아니라 무진정(茂陳停)의 잔치에 잇는 군관이 리교평의 잔치에 참례하엿다 돌아가는 군마이엇다 그런데 그군관이 백운국선

때에 내가 눈이나 성한터이면 달리 핑게할것이 업지아니하렷만 나는 두눈이 업고보니 내본색을 짐작하기 쉬웁것이오 눈먼 사람으로서 이곳까지 온것은 응당 곡절이 단단히 부를줄도 또한 짐작할일。어쨋든 본색이 탄로되기 쉬우니 내모양은 차치하고 제후소저의 앞일이 과연 맹랑치 아니할일。아아。눈먼죄가 심한것을 또알겟군。』
하며 백운국선은 자긔의 불행한 몸으로 말미암아 제후소저의 전정에까지 큰루를 끼치게 되것을 생각하며 무진까지 온것을 크게 후회하엿다。
『국선서방님! 걱정맙소사。하늘이 문허저도 소사날 구멍이잇다하엿거든 이만 경우이오릿가。생각한 꾀하나이잇사오니 그꾀가 파이 들리자안흘가합니다。』
하고 김천이 백운국선이탄 말곱비를 더욱 단단히쥐고 그군마가 들려오는 아프로 나서며
『지영나오는 물이어든 빨리등대하라!』
하고 큰목소리로써 빨리 오기를 재촉하는 양으로 딸짓옮거들하얏다。
『아니야!지영은 웬 지영이야 쉬!』
하며 [illegible]

의 일행을 처음볼때에 다소의심이 업지아니하엿든바 김천이가 대담스럽게 나서서 그군사와수작하는 말을 들은뒤 리교평혼인에 참례하려오는 점잔혼 행차로 짐작하고 그대로 별로 못는말이업시 자내게되엿다
그 군관의 일행이 지난뒤에 백운국선과 김천은 서로 아슬아슬하얏든것을 이야기하고 꼿 김천은 제후소저의 사처를 차저가댓다。
이때 제후소저는 백운국선의 소식이업슴을 여러가지 염려로 조여가며 고대하다가 김천이가 온것을 고하매 크게깃버하야 곳 김천을 불러 딴지소에서 기달리게 하고 밤이터 길기를 거다렷다。
때는 정히 닭우는 소리가 멀니서 들리는 새벽!。
이때 제후소저가 처음 무진을 향하야 떠나려할때 미리 금은주옥(金銀珠玉)등 보물을 따로 꾸려노앗든 보퉁이를 꺼내어 김천에게 쥐여지여뒤 좋은 큰물을 포여얻고 갑옷가려 백운국선에게로 빨리와서。
이에 그보물보퉁이를 떼기실리뒤 백운국선과 제후소저가다가리 그말우에 올으되 제후소저는 말곱비를 잡고 백운국선은 제후소저의 허리를 안고 제양인시 [illegible]

을 부득하얏다。
제후소저가 백운국선과 한말이되어 말을 돌아 무진지경을 넘어서니 벌서 동천에 해가돗고 외롭게는 어슴에 저저서 전선이 멀리엿다。
그때서 그말모양으로는 큰길로 갈수가 업슴으로 할일업시 산길로 들어섯다。
그런데 제후소저가 말곱비를 아산골작이에 들어선뒤 자시말을 내려 쉬일곳을 찾는중 벌안간숨들이 욱어진 숙으로부터 수십명 장정이 내달으며 백운국선은 잡어내려 소나무에 동혀잡어매노코 제후소저는 그말을그대로 태워가지고 바람과가티들꾸갓다。
슴앗다! 제후소저가 사랑의 선의를 지혀 도망하는 피와 음귀는 잇슬지언정 섬섬히 약한 몸으로서 수십명도적의께야 어찌 당할 피와 용긔가 잇스랴。

☆曆☆
九月三日 (木)
陰丙申七月大(十八日)
戊子·大·奎·定
●[illegible]
●[illegible]二十三日([illegible]七日)
●[illegible]九月八日([illegible]廿三日)



演藝

新劇運動小論
演協의創立과 그任務 (上)

吳楨民

一

十月會以後로 이땅에 뿌리어진「新劇의씨」는 몇번 해를거듭하엿고 技手를 달리하여왓스나 아즉껏 이러타할 開花를 보지못하고잇다。그의罪過가 土壤(觀客)의 好不好에잇느냐 技手(演劇當事者)의 熟未熟에잇느냐 또는 種子(作品)의 選擇如何에잇섯드냐?――이것을 이제 새삼스러히 論議하려는것은 뒤느진感이업지안치나 너무나 畸形的인觀念下에 나날이 萎縮하여가는朝鮮의 新劇界를 돌아볼제 慨嘆을不勘하는바이다。

在來의 朝鮮新劇은 微微하나마 劇藝術硏究會를 通하여 紹介되여왓고 또한 專門的新劇團體이 全無한 情勢가운데서 新劇의 唯一한命脈으로 維持되여온 그의功績에는 揶揄가아니요 眞心으로의 敬意를 表해야할것이다。그러나 그것은 一般의識者로하여금「劇硏」의 나가는길。그것만이 朝鮮의 新劇이라는 誤認되기쉬운 弊를 이르키게하엿스니 朝鮮新劇의 今後의 發展을위하야 猛省할必要가 잇지안흘까?

勿論 그럿타고해서 筆者는「劇硏」의 存在理由를 蔑視하려는것도 아니오 그를 相對로 攻擊을 試함도 아니다。過程으로서의 素人劇、放送劇、硏究劇、專門劇等의 諸團體가 簇生하야 各其自體의 目標와立場에서 秩序잇는 活動이 展開되어야할것이다。그럼으로서 新劇은 隆盛해질것이고 向上을 보게될것이다。그렇지안코 餘閑消利用한다든가 또는 狹小한主觀과 十六『미리 康德式의 純粹性만으로는 將來할 여러가지의 巨濤아퍼『白鳥의嘆歌』를 불으게될것은 自明한일이라할것이다。

二

從來에잇서서 新劇은 商業劇과 對抗해서 營利를떠난 다음의 두가지方途를 取해왓다。하나는 演劇의 藝術化요 또하나는 演劇의 社會化이니 前者는『劇硏』으로서 代表할수잇슬것이 업다。

오 後者는 [illegible] 를 볼수업섯다。
[illegible] 第二義的으로 [illegible] 에서 [illegible] 는 共通되엿고 또한 千今까지 는 그럼으로서로 [illegible] 的으로나 마 演劇活動을 [illegible] 수잇섯다。
그러함에는 [illegible] 의 好意的인 後援도 큰힘이되엇고 [illegible] 的인 同情的인 投資家의 [illegible] 의 [illegible] 性도 잇섯스나――그것이 唯一한 [illegible] 의 [illegible] 고도 할수잇섯스나 [illegible] 의 新劇 이란 興味업는것 따러서 收支가 不合理하다는 觀客을 [illegible] 과 投資家에게 [illegible] 거되고말엇 당。
그러는한편으로 日本內地 興行資本家의 朝鮮進出 土着資本의 勃興 그리고 商業劇團의 新劇的假裝과 其他 觀客을 吸收하기위한 巧妙 卑屈한 [illegible] 段等等――
그리고 또한가지는 內部的으로 생기는 新劇當事者들의 生活과 技術者의 陣沒에서 늣겨지는 技術의貧困化。
이러케말하여도「그래도 우리는 아즉것 缺損을 본일이업다고 自然함으로서 將來를 [illegible] 할수잇슬까?勿論 筆者는「劇硏」公演에잇서서 三千乃至 五千의 觀客을動員해온 前例를 모르는바가 아니다。그러나 今後에도 그런 消極的인 [illegible] 으로서 新劇의 發展을 期待할수잇슬까? 疑問이라고 아니할수업다。

三

史家는 말하되―演劇의 發生當時에잇서서 그의中心問題는俳優엿다。그것이 近世에와서는戲曲 또는 演出者로 移行하엿고 今日에는 觀客이 嚴然한存在로 重要視되게까지 이르럿다한다。그러타고는하나 그中의 어느한편에만 輕重을 부칠수는 업는것이니 以上의 三要素가 併行함이아니면 演劇의 圓滿한發展은 期待하기困難함은 말할것도 [illegible]

라디오

二日(水曜)

◇午後六時 童話 金泰仁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課外講座 "白頭山의昆虫" 金秉河
◇同七時三〇分 文藝講座(二) "가을과詩歌" 李光洙
◇同八時 (東) 管絃樂(通俗名曲)
定期演奏 第九號
一、未完成交響曲 B短調……슈-벨트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 모데라-트 第二樂章 안단테 콘모토
二、로잠데序曲 (가)舞踊曲 第一 (나)舞踊曲 第二 슈-벨트曲
日本放送交響樂團

第一放送
◇同八時三〇分 [illegible]
◇同九時 [illegible]
◇同六時廿五分 (金) 講演 田中 [illegible]
◇同七時廿分 (大) 講演 [illegible]谷 正雄
◇同八時 (東) 管絃樂 日本放送交響樂團
◇同八時卅分 (大) [illegible]
◇同八時五十分 (東) 講談 [illegible]田 伯治

三日(木曜)

◇午後〇時五分 (東) 吹奏樂 海軍軍樂隊
◇同一時一〇分 家庭講座(二) 가을에만흔어린이의病 府民病院小兒科長 李先模
◇同六時 管絃樂 DK管絃樂團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五分 課外講座 "白頭山의植物" 朝鮮植物硏究會 張亨斗
◇七時三〇分 講演「學校[illegible]이야기」總督府視學官 張膺震
◇同八時〇〇分 唱劇調
一、短歌 竹杖芒鞋
二、唱劇調 沈淸歌
李東伯 鼓手 丁元燮
◇同八時四〇分 라디오·드라마「夫婦」一場
配役
金英秀…(小說家) 宋在魯
貞玉…(그의妻) 河邊玉
淑子…(貞玉의從妹) 崔銀淑
演出 申佐人 效果 宋同人 [illegible]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東) [illegible]話講座(十九) 覺張信一郎
◇同一〇時三〇分 婦人時間 小野綾
◇午後〇〇時五分 (東) 吹奏樂 海軍軍樂隊
◇同六時〇〇分 (東) 偉人이야기 東京放送童話硏究會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 本多龍成
◇同七時三〇分 (東) 科學講演
◇同八時〇〇分 (東) 長唄 富士田新藏
◇同八時三〇分 (東) 歌謠物語 田中絹代

四日(金曜)

◇午後零時五分 報道外 [illegible] 玉外
◇同一時一五分 家庭講座(三)『秋冬의家事準備』金基鳳
◇同六時 兒童劇 메리와兵丁 一景 配役 메리…朴昌鎭 어머니…朴景順 兵丁…李桂鎭 朴民化 孫允烈 佛國兵…李桂鍾 演出 朴興珉 伴奏
陸好吉 効果尹良燮
◇同六時一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朝鮮舊習의美點과弊害』李富鉉
◇同七時三〇分 講演『가을과屋外運動』
◇同八時 曾成高晉 黃義敦
◇同八時 五峰山歌外 一、五峰山 二、에영곡 三、밀양아리랑 細笛 高一心 奚琴 李忠善 姜錫深
◇同八時一五分 (東)室內樂 鳴曲D短調……弘田龍太郎作曲 알레그로 모데라-트 안단테 메누엣트 피나-레 빠이올린 杉山長谷雄 피아노
◇同八時四〇分 歌詞 一、相思別曲 二、時調 金花香 金美花 金永根 大笒 金一宇 杖鼓
◇同九時 伽倻琴散調와併唱 一、散調 가、다스름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併唱 가、大丈夫 나、瀟湘八景 沈相健 韓成俊 鼓手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東) 英語會話講座 H·뷕아·렛드만 堀英四郞
◇同一〇時三〇分 美容衛生講座 黑見君子
◇午後零時五分 講談 大島小伯鶴
◇同六時 (大) 어야기 中田濟一
◇同六時二五分 趣味講演 鈴木武雄
◇同七時三〇分 (東) 趣味講座 笹川臨風
◇同八時 (仙) 浪曲 一、아이누古謠 二、太田도리와 債田시우가 [illegible]
◇同八時一五分 (東) 室內樂 杉山長谷雄
◇同八時四〇分 (東) 小唄 젤즈·단 菊池 [illegible]
◇同八時五〇分 (東) 라디오·코메듸 望月美惠子外

紛爛한天分의爭霸戰

第2回 全朝鮮音樂懸賞競演會

開催期日 九月下旬 申請期日 九月五日까지

曲目 二曲을 演奏하되 一曲은 本社指定曲을 取하고 一曲은 隨意로함

【聲樂】 一、蓮花(女)「슈-만」 一、넘은 나의安息(男)「슈벨트」
【피아노】 一、「쏘나라」(F長調)=第一樂章=「모짤트」
【바이올린】 一、「콘첼토」(G長調)=第一樂章=「비오티」

參加資格 朝鮮男女로하되 聲樂은 滿十五歲以上

申請規定 申請金 貳圓과 伴奏料 壹圓을 申請書와함께 本社庶務部로 提出하되 樂譜는五十錢에提供함 (但 한번 申請한뒤에는 一切 申請金을 返還치아니함)

表彰 入賞된분에게는 本社로부터 풍후賞金을 授與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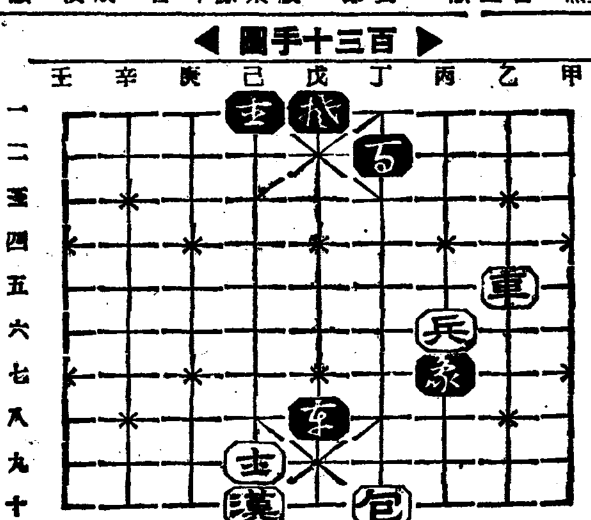
審査委員 金永煥、洪蘭坡、朴慶浩、桂貞植、蔡東鮮、金元福、鄭勳謨 (無順)

主催 朝鮮日報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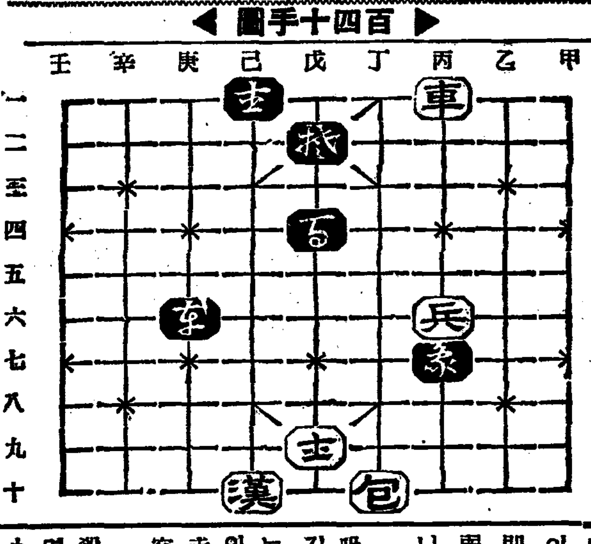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四十)

漢先手 李在鳳 對 馬二淸 朴泰翰

◀ 百三十手圖 ▶



◀ 百四十手圖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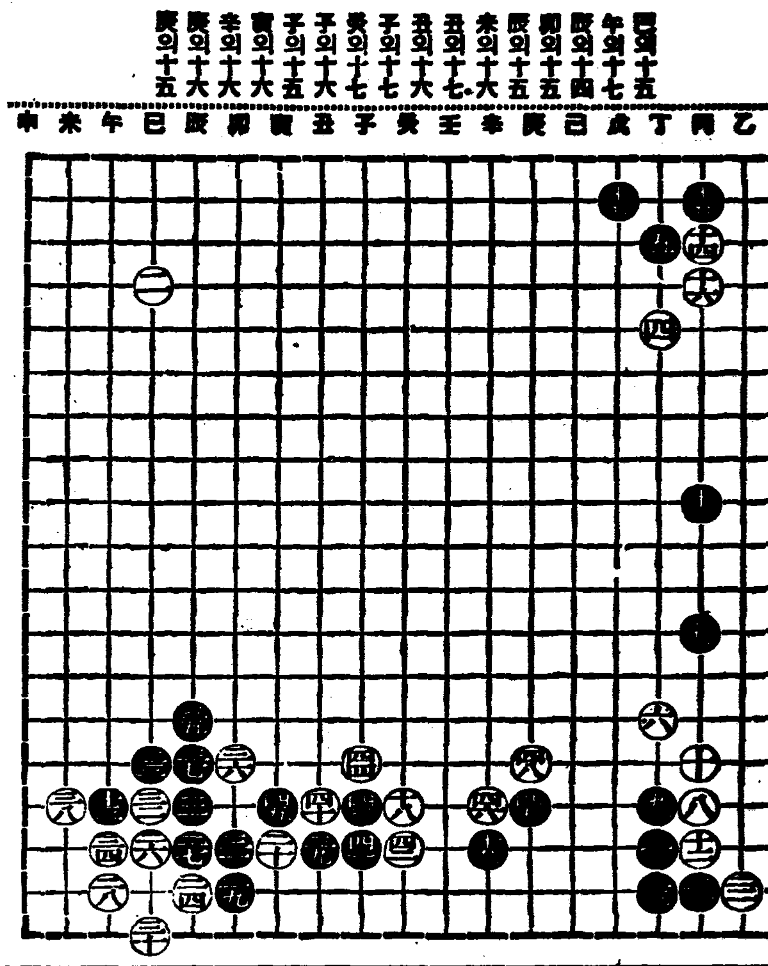
己九士—戊九 戊八包—戊六 乙五車—丙五 戊六包—己六呼將 丁七包—己六
己八包—庚八 己八包—丁十 丁八包—戊八 丙五車—丙一呼將 戊八包—戊二 (第)

棋譜文氏評日

白이 午의十七로 戶口를 塞지말고 午의十五로 黑後手를 斷함이 可함 矣 斷한후 黑이 만일 午의十七로 斷하야 辰의十四로 延한후 寅의十八로 挾擊하면 奇方이잇스 黑丑의十七 白은 [illegible]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一ㅡ三

一白 尹周炳
一黑先 [illegible]河



[illegible]

家庭醫學

胃와腸에만흔 微菌을죽이는作用
치푸쓰赤痢의豫防과、胃腸 가다루의治療에도關係

近日은一般의 衛生思想도 進步하고 施設도周到하엿슴에도 傳染病患者와胃腸病患者가 減少되지 안는것은 如何한理由이겟습니까 特히赤痢와疫痢는 도리혀增加하는傾向이잇는것은참으로 寒心한일입니다。

이理由는 여러가지잇슬것입니다만은 그主要한것은 一般으로 이러한病에對한 抵抗力의減退―卽그러한病에걸리기쉬운 胃腸虛弱者의 增加에잇스리라고생각합니다。

胃腸虛弱이라고하는것은 消化吸收力이衰한것이라고생각하기쉽지만胃腸機能에는 微菌을殺滅하는重要한作用이잇습니다이作用이잇서서비로서 우리들은치푸쓰와赤痢의傳染病과 胃腸가다루에도容易히걸리지안는것입니다

卽이微菌은 胃中에서도相當히殺滅됩니다 그것이다시小腸에가면거이大部分의微菌은죽어버리고小數의菌이勢力업시 남어잇슬뿐입니다

따라서消化管의 大部分인 긴小腸의內容은거이 無菌이라고해도조흔狀態에잇스므로 이것을小腸의自家殺菌作用이라고합니다

小腸의 自家殺菌作用이라고합니다

이小腸의自家殺菌作用은 生理上참으로緊要한것으로 萬若이作用이업스면 病原菌이업다고하더래도 攝取한食物이 適溫適度에數時間保持되여腸內에서 腐敗치안홀理가업습니다

다시大腸으로내려가면 自家殺菌作用이 小腸에比하야 퍽저으므로 種種의微菌이盛히繁殖하지만 小腸과 內容이連絡되여잇슴에도不拘하고 그微菌은小腸에侵入할수가업는것입니다 그러나어떤理由로小腸의自家殺菌作用이 障害되거나 或은衰退하면 食物中의微菌이小腸內에繁殖할뿐만아니라 大腸內에 微菌도上行하야

腐敗性消化不良과、激烈한腸 가다루를이르킵니다

一夜에幼兒의 生命을 빼앗는무서운 疫痢도 이에서 [illegible]

種種의胃腸病과 頑固性疾患에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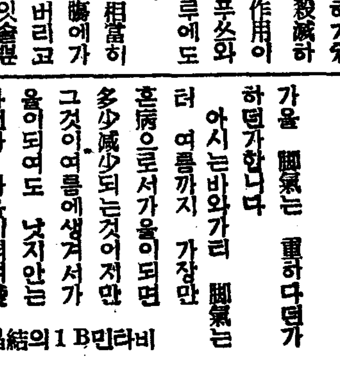
가을脚氣는重하다
★青年男女와姙娠婦는注意★

가을 脚氣는 重하다며가 性惡하다면가합니다

아시는바와가티 脚氣는 봄부터 여름까지 가장만흔病으로서가을이되면 多少減少되는것이지만 그것이여름에생겨서가을이되여도 낫지안는다던가 가을이되여發病한다던가하면 자못

病勢가强 하다고생각하여야합니다

어떤분이 脚氣에걸리기쉬운냐하면 第一靑春期의 男女로 그다음이 姙娠、産後의婦人等입니다 近日脚氣의 治療法은 進步하엿지만 病人의數는 漸漸增加하여갑니다 何故로 靑春期의 男女와 姙産婦가 脚氣에걸리기 쉬우냐하면 이런분은 普通사람보다도 保健上훨신만흔 비타민B를必要로하는 까닭입니다


一九三一年我國의大 [illegible]博士에依하야 [illegible]採取한結晶
비타민B 1의結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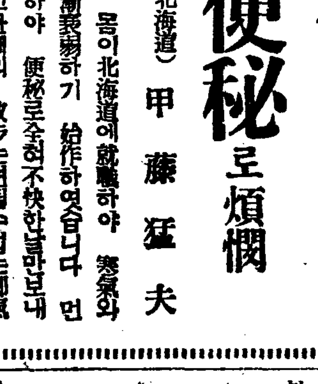
비타민B는 身體의 新陳代謝가激烈할사록―換言하면 含水炭素를 에네루기―로 바꾸는것이만흘사록

多量으로

體內에서消費되는것입니다 靑春男女는 身體의 旺盛한發育으로 攝取하는含水炭素의 分量을 旺盛함으로 食慾도 旺盛하고 또運動도 旺盛함니다 에네루기―의 消費도旺盛하고 또姙娠하면胎兒때문에營養도만히所用이되고新陳代謝도亢進합니다 産後에는自己身體의恢復과 授乳中은 平時의

三倍以

上의비타민B를攝取하지안흐면안된다고합니다 米國學者가쥐에對한實驗으로보니 [illegible]


비타민B 2의結晶
一九三三年獨逸의 [illegible]氏等에依하야結晶 分離에成功

다른地方에와서 脚氣와便秘로煩悶

(北海道) 甲藤猛夫

學生時代東京에서 運動하든 몸이北海道에就職하야 寒氣와地質變化와 職業의關係上漸漸衰弱하기 始作하엿습니다 먼저 第一처음에 脚氣에罹患하야 便秘로全혀不快한날이만흔보내고잇섯습니다 便秘를고칠라고한때의 散步는견될수업는脚氣로아푸고 結果는心臟에까지 미첫습니다

다른地方에와서 甚한脚氣로苦痛을맛고 會社에서도라와서 二層에올라갈때는견딜수업시 苦痛을느꼈습니다。不快한 便秘를一掃할라고下劑를쓰면 泄瀉로서더욱苦痛을맛보앗습니다。

同宿하는내親友가 同情하야『君!『[illegible]』를 먹어보거나 도저히낫지못하엿스나그것으로解決되엿네』하고勸하엿습니다。[illegible]

그後一年只今까지도服用한 [illegible]

結核이

[illegible]

白米飯

[illegible]

四十年來初有水亂
死傷者가百餘名
家畜斃死行方不明도千餘頭
盈德地方의水害慘報

【盈德】 경북영덕군(盈德郡)의 홍수에는 사십년래의 처음이라는바 인명사상이 백여명중 다음과가티 사자로판명된것이 사십여명이며 그외는 부상자와 행방불명이라고한다

判明된死者住所氏名

盈德郡江口面 朱富根(?)男 同知品面其長洞 高武動(?)〃 同達山面鳳巖洞 崔?炳(?)〃 同 同 邑山洞靑蓮寺內藥死者 田明伊(?) 安東郡吉安面默溪洞 ... 田寡伊(?) 同金姓女(?) 同長女 ... 同三女(?)男 (三) 金福伊(?) 靑松郡府東面 ... 辛永生(?) 男 ... 柳興石(?)男 江陵郡沙川面 ... 李七男(?)男 安東郡吉安面 大谷洞 ... 同所金 粉伊(?)女 迎日郡靑洞(出生) ... 李莫法(?)女 靑松郡府東面 ... 男 盈德郡邑南石洞 金先順(?)女 同 所 史和順(?)女 同 所 鄭姓女(?)女 同 所 劉載萬(?)男 盈德郡邑川前洞 鄭音味(?)女 ...

死傷者四十九名 行方不明 一、行方不明、二百十四、計一千七十五頭 家畜斃死(牛、豚、鷄)四百六十 家屋、倒壞、流失、浸水二千餘戶 田畓、流失、全半壞、一百五十餘町

農土被害四千町步
損害額百餘萬圓
道路橋梁等破損莫大

【盈德】 인명사상 판명과 가축의 사상은 별항보도와 갓거니와가옥도괴 유실침수난 이천여호에 달한바 선박(船舶)기타 농작물(農作物)피해상황은 다음과가다

家屋流失 四十八棟 同全潰 一百八十九棟 同半潰 二百十棟 同床上浸水 六百七十五棟 同床下浸水 其數不明 道路、流失、破損二一九四米 堤防一二〇九一米 護岸一六〇〇米 橋梁破損九個所 農作物、水稻、埋沒、流失、浸水一千八百餘町步 田作物浸水、流失、埋沒一千二百餘町步、船舶、流失、全潰、半潰、一百六十餘隻에 어구급 제품 유실등 전군피해총액 일백오십만원을상상한다고한다

러 폭풍우가 나리기시작하야이 침수되여 교량이 두절되엿고 전주가 파상되여 세시경에 만경강(萬頃江)이 하천이 되여 전신전화까지 불통되여 대홍수되여 하천부근에 무산자들의 가옥침수 일부주민들은 피난하엿스나 다행이 세계유람객의 편의를 정리의 피해는 아직조사중인바 관계업고 도로와교 다행이 인명의피해는업다 한다

河陽地方의水亂
人命家屋等被害不少
桑園、苹果等은全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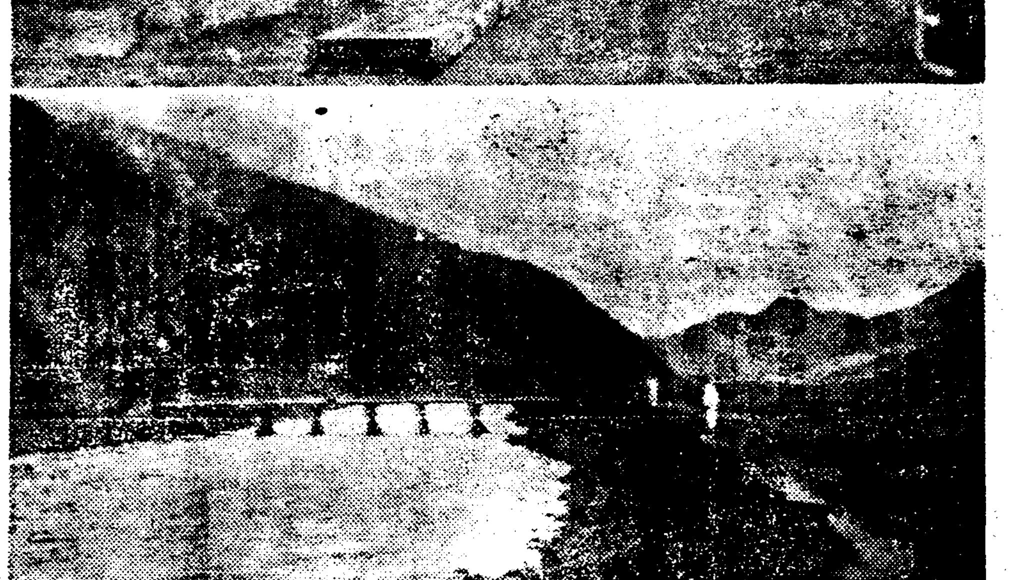
【河陽】 하양지방은 지난이십칠일오후부터 대폭우가 쏘다저며 태풍이 일어나 금호강(琴湖江)이 점차 증수하고 밤이기편갈사록 점점은 꺼지고 베、바람 조산천(造山川)의 물소래는 천지개 뒤흐며 진동하자 모든시민들은 경종을 란타하며도 리동(島里)제방이 터젓다는 아우성과함께 수천명의 피란민은남부녀대로 노픈곳을 차저헤매이며 대혼란을 이루는중 각각이 제방이 사십여미돌이나 파손되자 소방조원과 수방조원들의 필사의노력으로 겨우막어서 인명상해는 업섯다 이십팔일오전사시부

外金剛에도水害
十餘戶를流失

【外金剛】 지난 이십이일부

洪水畫報 三

(一)浸水된晋州邑榮町商街一帶 (二)崩壞된宜寧堤防



(三)郵便局後便地帶의 家屋倒壞된 慘景 (四)浸水된麟蹄舊邑市街一帶

埋沒浸水近二千町步
損害額五十萬圓
井邑地方風水害詳報

【井邑】 전북정읍도당국의 조사한바에의하면 지난이십칠일 오후부터 전고미문의 대폭우가 오래하야 이십팔일오전까지 겨우끄치바 강우량이 일백이십오미리나 되여서 지난삼십일현재조사한것만 벼바름에 녹아붓혼가것이 오십만사천구십구원에나 된다고하며 금번수해는 동군일대를통하야 가운대에서 소성(所聲)、덕천(德川)、리평(梨坪)、정우(淨雨)、태인(泰仁)、신태인(新泰仁)、칠보(七寶)면외감곡면(甘谷面)이 평야부가 우심하고 이외산간지대는 금번수해로 수해가 대단하나 다른곳에 비하면 말할정도도 못된다고한다 그런데 금번의 비바람관계로인하여서 농작물가운대『벼』는 오할의 감수를 당하고 전곡물(田穀物)은 칠할이 감수되엿다는데 면화(棉花)의 피해만 칠할이상이 감수되리라고하는바 각 피해별은 다음과갓다

◇家屋流失=全潰 一二三五戶 半潰二九七戶 浸水二一二四戶

◇農作物=(田) 流失九反五畝 埋沒二町四反 浸水百十六町九反五畝 損害額一萬一千六百五十四圓 (畓) 流失二町二反步 埋沒十二町七反步 浸水 二千八百六十三町七反步 損失額 四十七萬二百十一圓

◇棉花被害 被害反別 百二十五町 減收量 七千斤 損失額 十一萬圓

◇道路破壞損失額 一千二百五圓

◇堤防破壞損失額 九千四百三十二圓

◇橋梁破失損失額 六百五圓

麟蹄邑一帶에는
處處에屍體漂着
郡部의被害程度는尙未判明
罹災民無慮數千名

【麟蹄】 지난이십팔일에 린제에 대홍수가지난후 재지의리재민의 참상은 실로목불인견인데 목하 판명된리재민은 린제읍과 원통리시장(元通里)에만 이천여명이고 기타각면에는 아즉교통을편으로 전상을알수업다고한다 사망자판명된것이 지금까지 십이명인데 홍수때에 집웅을타고표류하는것을발견한일과 도요사이린제면남북리(南北里)에 시체하나가표착한것을발견하엿고 남면대홍리(南面大興里)에는 시체가 둘이잇는것을발견햇다는대 그것은 어머니가 사랑하는 어린애를 포옹한채로 최후까지 모성애를 굽지그대로 남기고 죽은모자의시체라고한다 어려한형편으로추측하면 상류지방에는 상상못할비참한광경이잇서서 우리귀에들려지게될것은 다마시간문제이라고한다 기타피해상황은 금번에는 물이 시가지에 들기시작하야 한시간전에 전부범람하게되엿슴으로 여러피난민은 다만몸만가진이 나갓스며 피해중에 가옥어르잘된것과 도괴된것은말할것도업거니와 침수정도의피해자라할지라도 상상(床上)오척평균의침수이므로 피해는막대하엿다고한다 방금리재민을 위하여는 인제면에서 상인문약식등을 주어서구호하는중이나 의식주가 모다업서진그들에게는 홍로정설 격이다 더욱이 원통리에는 재호에악질로인하야 하로에 어린아이가들식이나 급사하엿다고하여 지민들은 어중으로 공포에차여잇다 한다

茂朱、南原兩郡서
人命死傷七十名
五百災民、面에서救助

【全北特派員白安基發信】 이십칠일 류구렬도(琉球列島)를 중심으로 이러난 태풍은 전북지방에도 팔미삼(八米三)의 시속으로 대습격을 당하엿다 전군 가도(全茂街道)에 심어잇는 가로수가 덕진(德津)부근에서부터 리리(裡里)방면 까지 반절이상이 잡바젓스며 도전반적(道全般的)으로 사상자 륙십이명을 내엿다 금번피해의 극심한 무주군(茂朱郡)에는 여백이십삼미리의강우량으로 도로결궤 칠십개소에 일만이천매돌의 손해로 무주읍내(邑內)남대천(南大川)이 심하게어나 중수되자제방이 범람되야음내는 완연 수국화햇다 그리하야 경북도계(慶北道界)에잇는 무풍면(茂豊面)에서는 산이 문허지고 집에눌려 스물두명의 사자를내엿고 그인접한 설천면(雪川面)만이 오명의 사자를내엿다

◇家屋被害 ▲茂朱面 流失家屋十二戶 倒壞家屋二〇戶 浸水三百二〇戶

이밖에도 교통두절로인하야 아즉것 판명되지아니한 피해액은 도저히 알길이업스며 목하동면오에서 리재민은 견장창(乾藏倉)흥교 면유당(明倫堂)에수용하고 방금 주먹밥으로 동면(同面)의 구조를밧고잇다는데 금번폭풍우로인한 참담한실상은 무주가생긴이래 초유한일이라고한다

水災同胞同情
學費를節約하야
淸津商業學生美擧

【淸津】 청진에유수한 초등교육기관으로 천주교(天主敎)에서경영하여나오는 사립해성학교(私立海星學校)에서는 남조선지방의 위에

月(金剛) 일부동(林部)에 동에 다 침수되여 완연수국화되엿다 평야(平野)는 화세진(畫?)통에 두고 대부분이 태풍에 떼려젓스며 상점(商店)의 모든물의류실이며 밥수기를 알을도작(稲作)의 피해는 해일수가 업다 이십칠일 현재국에서 조사한바는 다음과갓다

死者 二名 家屋全壞六、半壞六 堤防破壞四十米突 家屋浸水 數百町步 畓浸水九千數百圓 其他損害未詳

대수재로 비참한 지경에 빠지지된 동포를구하기위하야전학교 생도가 일치히 학비를절약 하야 출연하엿다 수해의참상 이 동교에생도는 대부분이 무산아동이모인 학교인데 이처럼 사정과 의복(衣服)오십건을 모 아 본보청진지국에 보내와서 재지에 전달을의뢰하엿다

寶城郡下에서도
人命死者廿一人
家屋의流失、倒潰多數

【寶城】 보성군내에는 지난이십칠일 오후한시경부터 십이시경까지 내려피붓는 폭우와 근년에드문 맹렬한폭풍(飓風)으로 인하야인명의 사상 가옥의 침수 류실、도괴등 처처에참상을 일우고 농작물(조사중)도 피해가 심대하다는데 군의 조사한바에 의하면 다음과 갓다 한다

死者二一人 負傷者九人 流失家屋二〇戶 全潰一二二戶 半潰一五四戶 浸水家屋三〇九戶 流失船舶七隻 全潰三九戶 半潰二二戶 家畜死亡(?)

海州市內에
食刀强盜出現

【海州】 십여일전 해주시내에 식도강도(食刀强盜)사건이 발생하여 인심이 흉흉하엿든바 이에잇서도 『식도강도』사건이 발생하야 항간에 비상한 충동을 이르키고 잇다.

구월이일오전이시경 해주부 주옹서영정(海州府西榮町)일번지 거주 권봉현(權鳳賢)의 집에 십이세년이 된 피해자(宋?)의처 리혼녀이와 서(?)씨 (?)에게 피해(?)가 이르러 ... 소지하엿든식도(食刀)로 위협하고 서 ... 석조를 위협하고 현금 ... 를 ... 도주하엿다

여급보를받은 소관해주서(海州署)에서는 서원을 총동원시켜 비상선을 느리고 방금 범인을 엄탐중인데 범인은 아직 본적지못하엿다

水災救濟映畫
當分無期延期

【安東】 과보한바와가티 안동극주최의 남조선 수재구호영화회는 지난이삼일밤 야래의 태폭풍우관계로 당지에 잠혹한수해가 생기기때문에 당분간무기연기하기로 한바일반동자의량해를바란다 한다

修養會音樂會盛況

【平壤】 대성학교(?)가운데서

스포츠의豪華版
第六回綜合體育大會
廿六日箕林里公設運動場에서
本報平壤支局後援

【平壤】 관서체육회(關西體育會)주최 제륙회전조선종합체육대회(第六回全朝鮮綜合體育大會)는 본사평양지국후원하에서 오는이십륙일오전아홉시부터 평양부내 기림리(箕林里)공설운동장 (公設運動場)에서 거행하게되엿다 ▲一般男子陸上競技 ▲男子中等學校陸上競技 ▲男子中等學校籃球、排球 ▲女子中等學校籃球、排球 ▲一般男子蹴球 ▲一般男子野球 ▲一般女子庭球 등을 한거번에 종합하여 전국각중목의 우승권을 결정케되는만큼 인기는 비상히 집중되여잇다

大會의 規定은 다음과갓다

◇競技種目과規定

一、排球는 每校一組十五人以內

一、籃球는 每校一組十人以內

一、個人庭球는 每組二人

一、陸上競技種目

▲中等部=百米、二百米、四百米、八百米、千五百米、五千米、四百米리레이 八百米리레이 ▲필드部=走幅跳、走高跳、三段跳、投圓盤、投砲丸、投槍 但選手一人에 三種目以內로制限

◇審判規定

一、審判은昭和十年度內大版朝日運動年鑑에準함

一、競技順序는 審判部에서決定함

一、競技의組對는 抽籤으로定하고 抽籤結果 相對者이 無한 「팀」은 勝者로하되 그勁果는 當日에限함

◇申請과抽籤規定

一、申請期日 九月二十三日正午까지要到着

一、申請場所 平壤府巡營里朝鮮日報社平壤支局 南門町大平運動具店

一、抽籤期日 二十三日午後六時朝鮮日報平壤支局에서 本會任員及新聞記者立會下에서行함

府內染病患者
六十四名의多數

【平壤】 서선일대의 장마비가 계속하야오든 평양에는 평양에도 명당한우기에 병세를 극히 막아 ... 전염병환자가 발생하여 부민의건강선을 교란하고잇는데 ... 등장하야 현재 ... 명 한계 ...

暴風雨에휩싸혀
九名中六名溺死
痘瘡檢疫갓든發動船이顚覆
全南靈光郡下의慘事

【木浦】 령광군안마도(靈光郡安馬島)에 천연두(天然痘)가 발생하야 령광경찰서에서 경찰서당국과함께 방역을위하야 결시경 면면장에게 천연두방역을 타협하기위하야 이십칠일오전구시경에 발동선(發動船)을타고 안마도에서 락월도(落月島)로 향행하든중 오후일시경에 돌연태풍우를 맛나 파도와싸우다가 "배"는 무참히 파손침몰되엿는데 그배에가타든 구명중 삼명은구사일생으로 생명은 겨우구하엿스나 나머지륙명은 억사도든 행방불명 되얏는바 그들의 주소성명은 다음과갓다한다

◇…死亡者

靈光警察署巡査部長 李宗大 同 巡査 白玄守 靈光警察署巡査 川口正男 落月島月村里女子 劉貴禮(?) 法聖浦鎭內里船長 洪成鎭(?) 落月島月村里 李方植(?)

◇…救助된者

落月島 金得水(?) 同 朴錫圭(?) 同 許二福(?)

안마도 령광군(南靈光郡)도 확실치고 락월도(落月島)에잇는 동개소에 삼천매돌의 도로가 결괴되고 사자구명을내엿스며 실가옥이 이십삼호로 지난번수란(水亂)에 한호의 상상침수(床上浸水)도 여서 안정을 하엿다 가 금번태풍에 연청난폭풍우로 여지업는 손격을 당하자 공포에차인 동군민은 목하전전긍긍하고잇다고한다

好壽敦女高先生生徒의
水害同情金品
本報開城支局에寄託

【開城】 지난번삼남지방의 수해로 이십만명의 리재민이 가장집물과 량식을일코 방금며을것과 집이업서서 가두로방황한다는 소문을들은 개성호수돈녀자고등보통학교(開城好壽敦女子高等普通學校) 오백명학생들은 참아그정경을못보고그대로잇슬수업다고 손에 한푼두푼을 모와서 선생에게 맛긴 적성금이 사십이원륙십오전이고 또는선생님들의동정금이 오원이며 학생간에는 의복도가저온이가 잇는데 전긔동정금품을 지난이십팔일본보개성지국에의탁한바 즉시 긔자가들고본사로 차저왓다

合計 四十七圓六十五錢 衣服 十一點

少年斥候隊創立

【元山】 지난이십팔일오후구시원산긔독청년회 원산소년척후대창업 총회를 개최하엿다는데 그임원은 아래와갓다고한다

隊長姜元祚 副隊長河榮洛 委員李相文 李泰和 全榮乙 朴實浩 李璟弘 崔泰燮 常務金希俊 顧問 孫祚鳳 金景俊 車亨恩

元山稅務署疑獄事件
關係者四名送局
贈收賄의嫌疑로

【安邊】 루보하든 안변경찰서(安邊警察署)에서 검거취조중에잇는 원산세무서 의옥사건(元山稅務署疑獄事件)은 그동안 준엄한취조에따라 그들의죄상이 명백히나타나서 지난이일오전구시 자동차로 관계자 원산세무서 직세과장(直稅課長) 전미암(田尾巖) 리원림(李元林)(?)과 안변대령리산주(安邊大寧里山主) 김인규(金仁奎)(?) 대리광주 리인수(李寅秀)(?) 등 사명을 증수뢰죄(贈收賄罪)로 일건서류와가티 함흥지방법원 원산지청검사분국(咸興地方法院元山支廳檢事分局)으로송치하엿다는데 사건의내용은 전긔김인규 리인수등랑명이 자긔의 광산의 탈세를 목적으로지난오월경에 전긔 전미암 리원림(李元林)에게 삼정정(三中井)의 상품권사백여원어치는사서 준외에 그들을 료정에 수차초대해가지고 역시 사백여원어치의 주연(酒宴)을 배푼혐의라고한다

慘狀의災民爲해
五十圓을寄託
李洪根氏美擧

【城津】 성진상공회주 개풍상회주 리홍근(開豊商會主李洪根)씨는 매일보도되는 본보기사와 라디오 를통하야 참담한때풍수해의 그 비참한참상을 소식을접하고 마음아프게 느긴바잇서 지난삼십일

平壤

第五回全朝鮮水上競技

△時日 九月十二日
△場所 箕林里公設『풀』
◇主催 關西體育會
◇後援 朝鮮日報社平壤支局

地方人事

▲姜英達氏(前扶餘郡內務主任)瑞山郡屬轉入韓來本社扶餘支局來訪

▲韓于圭氏(扶餘郡庶務主任)新任人事次同上

▲野元龍男氏(前瑞山郡屬)扶安郡內務主任榮轉人事次本報瑞山支局來訪

▲鄭炳龜氏(秋富面長)新任人事次同上

▲申正雨氏(大田專賣局保導主事)就任人事次同上

畜牧組合落成式

【?】 신용조합(?)의 낙성식은 공사가준공되여 지난삼십일 화려한 낙성식을 거행하엿다

에 동정금으로 일금오십원을 납부하야 본보청진지국에 긔탁하얏는데 지국에서는 송금하엿는데 그와 고시본사로 군내공민들을 위하야서도 예년세모에 다액의금품을 회사하는일이잇서 일반의 칭송이자자하야 중이라고한다

愛慾의彼岸 【90】

李光洙 作
金康穆 畫

혜련이가 눈물을 씻고 돌아올 때에는 강선생은 벌서 전동쪽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가 버렸다. 그것이 혜련이가 강선생을 마지막으로 본것이다.

혜련은 강선생을 따라가고시펏다. 가서 울고 매어달리고 도시펏다. 그러나 그도 못하고 혜련은 무거운 가슴을 안고집으로 돌아오것이엇다.

이러케 떠나게 된 강선생의 그림자는 그후에도 때때로 누르기 어려운 정다움을 가지고 혜련의 가슴을 엄습하엿다. 강선생이 떠난 뒤에도 학교는 혜련에게는 마치 빗을 일흔것과 가탓다.

다른 선생이 강선생대신으로 와서 강선생이 마타던 과목을 가라칠 때에는 혜련은 일종의 분개함까지도 늣겻다.

그러면서 혜련은 졸업하고 전문학교로 갓다.

강선생이 학교를 떠난지 기

남으로 남으로 가노라」

이러한것도 저를 생각하는것만 가탓다. 강선생은 길에서도 잇섯고 길렴 가까운 어떤 시골서 정말 목수를 하고잇는말도 들엇던 혜련은 송화강사가에 양해나 소매를 다리고서서 멀리멀리 남쪽에 잇는 제게로 생각을 보내것이아닌가 하엿다.

원산에 만난 강선생의 모습, 수염도 나는대로, 머리카락도자라는대로 내버려두고 혜련을 끄립하 보던 그 바다와 가튼 눈에는 거의 세상의 속기를 업섯다. 톨만한것을 혜련이가 평소에 상상하든바와 다름이 업섯다. 강선생의 「목자의노래」는 전부 어떠한일이라고도 하곡그대로라고도 하곡그이라고도 하는 한 사람을 생각하는 노래로 되엇던듯하엿다. 그런데 그 한사람이라는것이 아모리하여도 혜련이 저인것만 가탓다.

강선생은 아버지와 가튼 선생이 업섯을 뿐만 아니라 보다도 어머니와도 가티 학부형에게 맛기고 혜련을 떠나가며 바라보앗다

실은 조선을 떠난지삼년만에라고 거어되는데 혜련에게 『목자의노래』라는 시집 한권이 우편으로 왓는데 경성 어떤발행소의 포장지에 쌋슬뿐이오 보낸사람이 누구라고는 쓰이지아니하엿고 다만 책에 인쇄된 저자의 이름으로 보아서 그것이 강선생의 시집인것을 짐작하엿다.

혜련은 그 시집을 읽을 때에 「시엔임」이라든가, 「그대」라든가, 「그이」라든가 하는 말을 제 몸에비최어보앗다. 강선생을 떠날때에는열일곱살의 소녀엿스나 이 시집을 읽을 때에는 스므살이넘은 성숙한 여성인 까닭이엇슬까.

「길 모롱이에
그대 서서 울 때에」
「내 갓노라、
아아、내 갓노라」

이 구절은 혜련에게는 분명히 저를 가르친것만 가탓다.

「송화강 긴 물스구비
흘러흘러 북으로 갈 때、
내 마음、몸을 거슬러

생 혜련은 딸과가튼 제자 그릴리가 업다고 혜련도 여러번 부인하엿지마는 그래도 속마음으로는 꼭그런것만 가탓다. 만일 강선생이、고향이 어던지가 족이 잇는지 업는지도 분명치 아니한 강선생이 조선에 못잇치는것이 잇다고 하면 그것은 혜련이 제가아닐수업는것 갓햇다.

「오 그는 내 딸
내 엽으로 나온 딸
그러나 아니 떼운 딸여길러」

이러한것은 분명히 혜련이것 탓다。그러고

멀리 두고 생각만하노라

「나는 그리운이를 두고 왓노라
소중하기로 떠나왓노라
행여나 이몸의 때렴이、그를 더러칠까、속구하야、떠나왓노라」

이런 구절을 생각할때에 혜련은 며육이나 강선생의 심사를 다 알수잇는것 갓탓다。

經濟解說

今後米穀事情

新年度前後考察

(一)……申泰[illegible]

오늘에잇서 農林省은 新米穀年度의 米穀[illegible]二百萬石乃至三百萬石의 過剩米가 잇슬것으로 推定되는만큼 [illegible]的으로는 米穀自治管理法이 [illegible] 條件을 가춘것으로 볼수잇다 그래서 島田農相은 自治法[illegible]의 必要를 [illegible] 늣기고 하엿슴으로 不拘하고 農林省事務當局은 그推定된 二三百萬石의 過剩米를 [illegible] 버서 自治法發動에 [illegible]한 準備에 손을 대이기시작하고 따러서 朝鮮總督府農林局에서도 九月中旬에 그發動準備의 協議를 할터이라고한다 이것만 가지고는 今秋의 新穀出廻期에는 비롯오 그發動을 보고야 말것가티 생각할수가잇다。

×

그러면 [illegible]이 [illegible]지 적지 過剩米는 잇슬것으로推定[illegible]에는 法의[illegible]을 보기될것인가 할에는 [illegible]에잇서 이것만으로는 [illegible]되기가 어려운바가 잇다 卽 첫재로 그米穀[illegible]上 過剩米가잇느냐 업느냐고 할이 先決的條件이 될은 勿論이나 둘재로 米價의位置如何도 相當한關係를 맺고잇다 이것은 왜 그러냐고하면 다음과 가튼點이 잇는때문이다

米穀自治管理法은 米過剩으로因한米價暴落을 막으라는때 그主[illegible]에 잇는것으로 적어도 米穀統制法에 依한 最低公定價格以上의 一割高價까지는 保持하라는곳에目標를둔것이다 그러므로 過剩米가 잇다고推定되드래도 出廻期에잇서 米價가 最低公定價格以上의 一割高價에 잇슬때는 그以下의 位置에 잇게된다고 하면 發動되어잇는 自治[illegible] 管理法을 [illegible]할必要가 안생길것이라고 말할수잇다。

×

그때문으로 지금에잇서 問題는 세가지로 나와서 볼수가잇다 卽

(一)日本內地、朝鮮、臺灣의서곳을 通한 第一回米收穫豫想이 어떠케될가 또는 十一月一日現在의 在米高가 얼만한數量에 達할가 함이 確然히 알게된때에야 新米穀年度의需給[illegible]가 [illegible]

(二)新米穀年度에잇서 適用될 米穀統制法에 依한 最低公定價格이 얼마로 決定될가 하는點

(三)그決定된 最低公定價格에 比하야서 實際의米價가 어떠한位置에잇슬가 이것을 다시 말하면 米價가새로히 決定된公定最低價格上位의一割高에 잇느는 位置에 잇느냐그以下이냐고하는 點이 [illegible]自治管理法이 [illegible]發動을 가지고서 米穀自治管理法을 나라나게될것으로 보게된다。

×

그런데 目下 農林省에서新米穀年度의 需給推算한 結果 過剩持越高九百萬石을 예이고도 二三百萬石의 過剩米가 잇슬것이라고 함에對하야 考慮치안흘수업는點이잇다 이것은

먹이인가 하면 卽(單位石)
◆供給
一、[illegible] 六、一〇〇
一、朝鮮에서移入 九、〇〇〇
一、臺灣에서移入 五、〇〇〇
一、[illegible] 九、〇〇〇
計 八、四〇〇
◆需要
一、消費見込高 七、二〇〇
一、次年度持越高 九、〇〇〇
計 八、一〇〇
◆差引
一、過剩米 三〇〇

그中에잇서 朝鮮米의 移入을 過去의 數量보다 [illegible] 計算한것이다 計算되엇는지 알수업스나 어떠한 根據에서 보드래도 過去에서 朝鮮米만가지고 從來朝鮮米移出量이 年八九百萬石이라고 하지만 豐作의 때에 九百萬石臺에 일은것이

미구나 今年朝鮮作에잇서 日本內地는 豐作, 朝鮮은平年作程度 [illegible]이다 그래서 그때의 米穀有水害로因하야 지금에 凶作을 [illegible] 豫想한 어떠이엇을 [illegible]에 對하야 相當을 안가질수업는 [illegible]이 잇다.

×

그러므로 今後의 [illegible]過剩率을 不拘하고 二三百萬石의 過剩米推定을 가지고서 [illegible]히 出廻期의 米穀[illegible]을 [illegible]은 必要로 보기도 어려울뿐 아니라 그러나 [illegible]으로 보아서는 [illegible] 過剩米數量의 多少를 不問하고 [illegible]의 [illegible]的條件이잇서도 [illegible]그法을 [illegible]케하라는 傾向도 업지안흘터이다。

—(續)—

旱魃水害의 經濟的打擊

水災農業被害 四千萬圓超過?

農村食糧對策과 復舊事業着手코저 農林局調査班派遣

今次의水害에依한 全朝鮮의農業被害는 罹災民의 應急救濟이焦眉의急이며交通 依然杜絶로 全然 推測할餘地도 업서 一切分明치안흐므로 被害는 直接農作被害約八百萬圓, 耕地被害一千五百萬圓 其他 間接被害를 合算하면 四千萬圓을 넘어슬모양이다 이에對하야 農林局에서는 緊急히被害實情을 調査하야 農村의食糧對策과 復舊事業을着手코자 農産課山本技師를 비롯하야 다음과 가튼調査班을 關係五道에 派遣키로되엿다고 한다

▲山本技師(慶北) 自五日至九日 ▲船越技師(江原) 自四日至七日 ▲水流技手(全南) 自四日至九日 ▲中村技手(全北) 自二日至六日 ▲馬岩技手(慶南) 自五日至十日

그리고 調査要項은 다음과가트며 十日까지는 그被害全貌가 判明케될것이라고한다

一、耕地(畓、田)의被害狀況
二、主要農産物의被害程度(水稻、大豆、粟、棉、果樹)
三、應急對策
一、耕地關係
二、作物關係
三、明年麥收穫期까지의食糧

秋肥需要期에 配肥申請減

慶尙爲始各道不振

朝鮮農會의 配給秋肥硫安豫定數量은 當初 京畿外關係八道三十萬叺의 豫定이엇스나 其後北朝鮮地方의 旱魃、南朝鮮地方의 豪雨風水害等으로 慶南을 비롯하야 各道共히 申込激減인 結果, 八月末現在의 申込數量은 全北을 除한 關係七道의 申込數量은 二十二萬四千六百五十九叺으로 이에全北의 想定數量三萬五千叺을 加算하야도 約二十六萬叺이오 豫定數量에 比하야 約四萬叺卽一割三分餘의 申込減이다 그러나 이와反하야 單肥申込은 三十過燐酸의 二萬百五十九叺을 筆頭로 十五過燐酸一萬四千五百四十叺, 硫安五千二百四十叺 合計五萬九百四十三叺의 申込에 接하얏는바 이제各道別配合肥料申込數量을보면如左하다(單位叺)

京畿	六四、二三〇
忠北	一一、三四八
忠南	四、〇三〇
全南	六六、六〇三
慶南	三〇、〇〇六
慶北	三四、五〇九
平南	一三、九一二
合計	二二四、六五九

四十隻船舶停滯

豪雨中의仁川港 京城驛도數萬噸滯貨

連日에亘한 豪雨는 各方面에 甚大한 被害를 與하엿는데 仁川港에서는 荷役이 全然不可能하야 目下同港에는 大小船舶合하야 約四十隻이 停滯되고 待機中이요 開港以來의 現象이라는바 이때문에 京城驛의 貨物發着도 遲滯되어 目下五六萬噸의 滯貨(主로雜貨木材)가 잇고 驛員은 그整理에 奔忙하야 未曾有의 混雜을 呈하고잇다

繩叺作業 中絶狀態

配船一時中止

江原道一帶의 風水害는 意外以上으로 甚하야 各地의 繩叺製造作業은 全部中絶되어 朝鮮[illegible] 復舊作業이될때까지 繩叺輸送의 配船을中止하고 待機中이다

食料品會社

一日創總完了

京城食料品株式會社는 지난 一日 創立總會를열고 最初百萬圓資本計畫이던것을半減하야 五十萬圓會社(四分一拂)로創立하얏는데 役員은如左히決定하얏다한다

取締役社長 齋藤久太郞 取締役 [illegible] 常務取締役 [illegible] 取締役 [illegible] 監査役 [illegible]

그리고 臨時事務所를 [illegible]에두고 目下開業準備中인바 登記의 完了를보아 今月十日頃에는 開業하게되리라고한다

夏秋繭生産費

比前年五圓低

夏秋繭의 標準은 一日의 協定會議에서 平均繭價七百二十圓以上七百三十八圓未滿間에서 三十錢으로 決定하얏는데 二日의 絲價(豫先平均七百十圓)으로 보면 二十八錢이되는바 右에對하야 製絲家側에서는 如左히보고잇다

生産費는 二百五十圓으로 決定하야 前年의 夏秋繭生産費보다 五圓이 低하다 絲價標準은 多少相當의 讓步로引下하얏스나 實際工場의 諸費用은 物價其他의 昂騰에 依하야 昨年보다 一割二分五厘가 昂騰되엇슴으로 生産費五圓의 引下로는 苦痛이오 工場의 採算은 자미업다 販賣方面을有利히 하야 補充코저한다

滿洲視察團組織

穀物大會終了後

朝鮮穀物協會聯合會에서는 咸興의大會終了後 出席者中에서 滿洲視察團을 募集하야 圖們經由 滿洲各主要地를 視察키로되엇는데 그 豫定은 十日間이라고

肥料統制法

公布는十月頃

肥料統制法의 施行에 就하야서는 過般 殖産局長 同事務官의 渡東에依하야 中央과의 折衝을 進하얏는데 日本內地에서는 [illegible]公定價格이 發하여지게되는 形勢를 示하야 同施行令의 公布도 意外로 遲延하고 十月頃公布될 豫定임으로 朝鮮의 同法도 右에 伴하야 遲延되리라한다

産組新設

十一組合認可

産業組合의 今年度新設은 國庫補助十組合, 其他九一組合을 認可키로 決定하엿다고 한다

米移出累計 八百六十萬石

比前年四十三萬石增

八月中의 朝鮮米輸移出은 日本內地의 在米拂底表面化와 共히 朝鮮米에의 買氣集中한結果 上旬二十一萬九千石 中旬十五萬石 下旬二十萬九千石으로 激增되어 八月中에는 實로 四十七萬九千石에 達하고 前年同期에 比하야 約二十萬石의 增加이다 米移出高累計는 八百六十萬六千石에達하야 比前年累計 四十三萬九千石의 激增이다 一方粟輸入도八月中十一萬四千石에 達하야 累計百二十三萬九千石을 算하엿다

米穀年度 米移出高

九百六十萬石?

昨年十一月以降今年八月末에 至한朝鮮米의 移出高는 八百六十萬六千九百八石으로 이대로가면 九月中에는 四十萬石의 移出을볼것으로 豫想되고 十月中은新穀期에 入함으로 一躍六十萬石의 移出은 例年에 倣하야 確實할것으로 本米穀年度中의 總移出高는九百五十萬石乃至九百六十萬石에 達하리라고 보인다한다

端境期接近

倉庫米激減

端境期의 接近과共히 貯藏米는 漸次 引出되어 精米側의 精白用에 供하는데 米倉의 在庫米도 一日平均 一萬石 出庫되어 八月三十一日現在 在庫米는 五十八萬五千石으로 八月中에 約三十三萬石이 激減되엇다 昨年同期의 四十三萬八千石으로보면 十五萬石이 多하나 五十八萬石中 二十萬石은 政府米임으로民間의 倉庫米는 三十八萬石에 不過하고 端境期에는 거의 一掃되리라한다

日本內地拂下米

朝鮮에逆移入 蓬萊米移入多量

端境期에 直面하야 精米側의 地濱 朝鮮産貯藏米는 繼續倉庫로부터 持出되는一方 最近白米의 混合用으로서日本內地拂下米가逆移入되고 蓬萊米의 移入도旺盛하다 此等日本內地米와 蓬萊米의移入量은 的確히 判明치안흐나 南朝鮮 西朝鮮方面에 主로 數萬石의 移入이 行한것으로보인다

政府米拂下落札

三十三萬四千石

【東京電話通信】農林省發表=政府米五十萬石의拂下는 一日 開札한結果 合計卅三萬三千九百五十九石六斗의 落札을 보앗다 各地別內譯은 如左하다(單位石)

東京	六七、四九二·〇
大阪	六二、〇九六·八
門司	九七、三九二·〇
名古屋	五三、一九一·二
神戶	五三、七七七·六
合計	三三三、九五九·六

重要商品界事情

白金價前途觀

尙高價豫想相當

白金市價는 天井不知의勢로 暴騰을繼續하야 이미 三千圓을 넘고서 이것은 一二個月前에 比하야 十割以上이 되고 大正十五年以來의 新高價이다。

그러고도 一般人氣는 依然 高價豫想이 濃厚한바 이原因을 들면 다음과갓다

(一) 世界的으로 白金需要가 旺盛 (二) 英國市場에잇서 實物 運送의 傾向이 顯著 (三) 西班牙內亂이 動因으로 된것

等이 刺戟材料로되엇다 그러나 이보다도根本的原因은 世界的軍備熱이 勃興되엇에 잇는만큼 그前途는 强材料가 아죽도 相當할것가티 보힌다。

◇

어떤勢가 어느곳까지 일르러、먼추게 될가하는 將來問題로 困知키 어려우나 지금에잇서서 實物이 極度로 딸지못한情勢로 보아서는 目前의白金市勢는 더 노픈것이 잇지안흘가 하는觀測이잇다……

經濟寸鐵

○夏秋蠶 基準 協定에 生産費가 比前年 五圓低라고 製絲家側이 不平이라나

○마음대로 못해서 不滿인가? 慾心도 만쿠나

○八月中 米移出은 激增, 粟輸入도 大增, 쌀 팔어 좁쌀 먹는 신세지만은……

○災害의 朝鮮 今年도 旱、水風害로 農村을 비롯하야 各方面의 被害, 打擊이 甚해 갈뿐

○모든것中에 災害征服이 朝鮮爲政의 最緊急事

經濟界消息

○京城見本市六十四店參加=第八回京城商品見本市는 十三日부터 三日間 京城公會堂에서開催할터인데 今年은 參加店이 六十四店에 達하고 景品額도 前年보다 引上하얏스며 割戾는 昨年은 一等五十圓이던것을 今年은 特等百圓으로 增加하고 入場者一萬名豫想이고 場外賣上約百萬圓豫想이고 場外賣上을 合하야 二百萬圓에達케할豫定

商況(二日)

○第一生命相互保險會社에서는 今年十月로써 創立滿三十五年에 相當하므로 各地에서 社員總會를 열고 [illegible] 矢野[illegible]氏가 入京하야 京城에서도 朝鮮支部의 社員總會를 열기로되엿다고

株式

上勢一巡 穩健

前場一息

昨日上放活潑인 價格까지 今前場은 利喰과 高値警戒로 一息이엇스나 卽昨後引에 比하야 東新十錢高인 百二十七圓丁, 日産二十錢低인八十二圓丁, 大新不變인 六十八圓七十錢, 鐘新一圓三十錢低인 百六十五圓五十錢, 朝新十錢高인 三十二圓三十錢에 各大引되고 朝取七十六圓丁으로 六圓九十錢, 日産新二十八圓七十錢, 拓新二十四圓八十錢, 日鑛新五十二圓五十錢이 되엿다

▲東新 [illegible] ▲日産 [illegible]

後場不變

後場도 亦同調不變이엇스니 東新百二十六圓八十錢 日産八十一圓六十錢 大新六十八圓六十錢 鐘新百六十五圓三十錢 朝新三十二圓三十錢에 各大引

投機株高誘致

昨今은 連日新高値株가 現出하야 買氣가 個個의 有望株買狙로 全面化하는 傾向이 잇스며 東新 日産等의 投機株도 昨日新甫에 依然好轉하야 待望의 秋市勢의 序幕이 展開되어잇스나 그러나 아즉株界는 거기까지 展開力을 即時豫想할수잇슬가는 斷言키어려운터이나 市面에 顯著히 明朗性을 帶한것을 否認할수업는터로서 廣田內閣의 革新政策의 實行力發揮와 同時에 인푸레再擡進의 可望이 確實케되는 原動力이 잇다。勿論 來年度豫算은 軍事費를 中心으로 一層膨脹할것이 事實로 인푸레 再進展이 豫約되어잇지만 豫算膨脹의 反面 增稅는 其他統制를 비롯한 幾多의 革新政策의 具體化를 기다려야 겟스나 株界는 [illegible] 追從하야 投機株의 昂騰으로 順序를 [illegible]의 軌道에 入한 觀이 잇는 [illegible] 그러나 投機株高誘致가 必至影響이다

日産의前途觀

日産의 實質은 日鑛、日立製作、日立電力、日産고무、自動車、食料工業、[illegible]、共同漁業、日本炭鑛、合同工業、日本炭鑛、山口[illegible]

實物前場取引

▲大同電氣 [illegible] ▲滿洲電話 [illegible] ▲東京[illegible] ▲日本電工 [illegible] ▲日滿[illegible] ▲北樺太鑛業 [illegible] ▲國産工業 [illegible] ▲足利紡績 [illegible] ▲日東[illegible] ▲朝日[illegible]

今日財界(二日)

◆米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正米(仁川) 一等 [illegible]
◆金 市中金價 [illegible]
◆株 東新 [illegible] 日産 [illegible] 大阪綿花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三品 [illegible]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 [illegible] ▲第三五分 [illegible] ▲一回四分 [illegible] ▲佛四分 [illegible] ▲米貨六分半 [illegible] ▲滿洲公債 [illegible]

東京國債市場

【東京電話通信】株式市場의 好調로 投資的의 買物은 全혀보이지안어 債는 利喰賣가 나와 [illegible] 分半十錢低를示하엿다 ▲甲五分 [illegible]

米期

卅圓台乘 强調

前場反撥

昨後場阪地三十一圓九十五錢止와 共히 三十一圓九十三錢에 場을止한 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三十二圓〇五錢인 十丁反高를 擴하고 三十圓〇一錢인 八丁高로 場을始한後 阪地稍漸高調로 八節十八錢의 高價일을때, 十三錢까지 跳返하며 阪地十二錢으로 結局〇八錢에 場을止하엿다

後場下押

後場은 三十圓〇九錢에 一丁高로 始場後 利喰과 見實物로 三十圓丁에 下押되고 〇一錢에 止場하다

南朝鮮至豪雨

拂下成績도不良

南洋海上에서 發生한 颱風은 北西로 進行中임으로 아즉材料化할餘地가 업스나 朝鮮海峽에서 [illegible]山百六미리의 豪雨를 비롯하야 南朝鮮各處大雨를 來하고 今日은 그不連續線이 北上할때 이 忠淸南北道의 洪水念慮가 업지안흐리라하며 中部以北은 曇天 滿洲와國境은 晴天이오 日本內地는 東海岸은 曇天 太平洋海岸은 晴曇相半으로 下關은 降雨인데 朝鮮中部以南의天候가 또다시豪雨를 形成하고 잇슴으로 農家의 悲觀은 勿論一般米界에도 凶作의買氣가 자못 熾烈하야 當中先三期의 買物이 連續不絶하는모양이며 一方政府米의 拂下成績도 不良하야 더욱買氣를助長하고잇다 何如間大勢는 當分上記의 事情으로 因하야 容易히瓦落을 許하지안흘것갓다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illegible]
中限 [illegible]
先限 [illegible]

市場六感

㊑……九月一日新甫第一日에 半歲에 亘한 憾限을깨트리고 東新百二十七圓七十錢(東京)을大上放은 자못雄突에 値하는일 ▲이로써百二十圓이 안깨어지고 大勢買轉換인것을 確實케한 商勢▲半歲晴事인 軟派가 依然買加할터이니 順田히 올르기를 바라기는 힘드나大勢押目買一貫而已 ▲日産도八十二圓七十錢에 까지올랏스니 東新이나 日産이나 國策關聯까지 다시 確重으로 押目(그것도東新 百二十二、三圓日産八十圓內外 잡으면 그만)을 지기쉬운것 ▲그는絶好의買場 買方으로서는 今年처음되는機會일것

㊊……政府米五十萬石拂下는 昭和八年産은 皆賣却을決定하엿스나 九年産은 入札價格의 低額으로 卅三萬三千九百餘石뿐 決定되지안헛다고 果然의買氣를 助長한모양 ▲今朝의强材는 拂下成績의 不良인데다가 中部以南은 또豪雨暴風이 엇더하라 ▲凶作凶作하든 今年은 果然凶作‼ 六十年前丙子年은 旱災의凶作、今丙子年은 風水災의 凶作이로군 그러나年中行事로 災害를當하는 三南災民의 救濟問題가 急先務

取締賣買盛行

阪地買仁川賣

新甫十一月限은 當地卄九圓八十九錢 阪地卅一圓九十錢으로 그 開鞘가 一圓二丁에 不過하엿다 그런데 當地는 朝鮮의 凶作을 悲觀하는 來客側의 買物이 簇[illegible]

各地正米

京城續進 天候不良으로期米高에刺戟되어 唱은更히十錢續進이엇다 ㊀三等三一、六〇 四等三一、三〇 一等白米三三、〇〇

仁川堅調 買氣는 不拂이나 第二颱風念慮와 期米高放으로 人氣만 强하고 更히十錢續騰이엇다 ㊀三等三一、六〇 四等三一、三〇 一等白米三三、八〇

釜山頭重 期米는자못好調를示하나 日本內地와朝鮮의拂下米에壓迫되어 買氣不振이오 人氣는 停頓狀態를 繼續하얏다 ㊀三等三一、七〇 四等三一、四〇 一等白米三三、八〇

群山强調 天候不良과 期米의反撥을둣고 人氣가 顯著히 昂進하고 日本內地注文은 작구到來하야 氣配二十錢高唱이오市況은자못强調를 呈하얏다

木浦閑散 不作豫想으로持保合이엇다 市況은依然히 沈靜裡에 米價는 閑散한態度를 가지나 實行도 可能이엇든 狀態이엇다 ㊀三等三一、一〇 四等三〇、八〇 一等白米三三、一〇

大邱仲値 出廻期가 稍遠하야 買物이 [illegible] 市場仲値는 不振이오 期米高에는 ㊀三等三一、九五 四等三一、六五 一等白米三三、八〇

堂島前場賣買

【大電話】▲賣方=東京側 地場軟派中東側 ▲買方=朝鮮側地場强氣

日産의 期米取引

出荷야 地場方面은 不知中 그買物을 消化하는 一方으로 取[illegible]二百丁內外를 [illegible] 阪地買의 取締的賣物을하는 光景이데 此는 仁川 群山 大邱 [illegible] 各取引所의 地場側이 今後 阪仁의開鞘가 二百五、六十丁乃至三百丁의 [illegible]로 [illegible]하고 [illegible]이다 昨日에도 阪地에보면 買注文이 相當하엿거니와 今日에도 阪地의 前後場十六節을 通하야 金太는 每節五百石 丸ウ는 每節二百石式의 買注文을 發하엿슴을아니라 朝鮮各市場이 [illegible]한 物을 注入하엿슴으로 적어도 今日阪地市場의 朝鮮側買物이 五萬石은 될것이라한다 그래서 今朝阪地의 突高는 卽此로由함이라고云云

㊑ 信益證券株式會社 ㊊ 信益實商店 光

仁川期米 吉村取引店 福

株式賣買 東亞證券 京城黃金町

朝取短期實賣高

合計 [illegible] 累計 [illegible]

◆東京現株 東株 鮮銀 殖銀 滿鐵 東拓 東紡 富士紡 東亞 新新新新新石 日同同同同同 [illegible]

◆東京短期 後前 [illegible]

◆朝取短期 朝取 朝新 鐘新 大新 東新 日產 同新 帝人 鋼管 日魯 同新 安取 商船新 拓新 北紙 朝石 日鑛 日石 滿鐵 日레 [illegible]

◆東京代引日步 朝取 朝新 鐘新 大新 東新 日產 同新 日魯 北紙 朝石 拓新 [illegible]

◆朝取短期 朝取 朝新 鐘新 大新 東新 日產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東新 大新 日產 [illegible]

◆大阪長期 東新 鐘紡 同新 大株 同新 日糖 日產 郵船 同新 [illegible]

◆大阪短期 東新 大新 鐘新 日產 東新 日鑛 日新 浅野 帝人 同新 日레 日魯 鋼管 郵船 東電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東新 日產 [illegible]

◆大阪短期 日產 [illegible]

期米 二日

◆朝取期米 前場 一二三四五六七八九十 後場 一二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大阪期米 前場 後場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木浦期米 前場 後場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群山期米 前場 後場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釜山期米 前場 後場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大邱期米 前場 後場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新義州期米賣買高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東京期米 前場 後場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神戶 下關 名古屋 [illegible]

◆各地正租市勢(單位圓) 地名 種類 一等 二等 三等 等外 京城穀良都 仁川銀坊主 群山銀坊主 木浦銀坊主 大邱穀良都 鎭南浦陸羽 新義州陸羽 元山龜尾 咸興陸羽 馬山穀良都 平壤陸羽 釜山穀良都 [illegible]

金融 二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京城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東京市中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米穀 二日

◆京城正米 ◆京城雜穀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商品 二日

◆京城綿糸布市勢 ◆京城綿布 ◆綿糸油粕市價 ◆日本麥粉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産市勢 [illegible]

◆大阪綿糸 ◆大阪綿花 ◆各地人絹 ◆大阪人絹現物 ◆橫濱生糸 ◆大阪砂糖 ◆海外砂糖 ◆紐育綿花 ◆利物浦綿花 ◆外國期米 [illegible]